



2백60명, 盤上의 열띤 흑백승부 펼쳐



〈관련기사 3면〉

관악출추

멀리 보고 유연하게

총동창회 주최 '동문 바둑대회'가 올해도 동문 및 재학생 2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바둑은 누가 상대의 수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읽고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이론에 제이무리 못하고 과거 유명 對局의 수를 귀신처럼 복기한다 해도 실제 승부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책에 나온 것 혹은 과거 대국과 똑같이 두지 않는 까닭이다. 경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수시로 달라지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작용하는 탓이라고 한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전략은 물론 태도나 표정에도 좌우되고 컨디션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는다.

세상과의 승부도 다르지 않다. 미래 예측은 실로 어렵고 처세와 리더십에 정답은 없다. 조직의 성격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안정기의 리더십과 위기의 리더십이 다르다고 하듯 어떤 조직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처신이나 대처하는 방안도 바뀌고 수위 또한 조절돼야 마땅하다.

서울대인의 능력과 자질의 우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다만 구성원간 화합과 충성도, 소통 문제에선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 실력 및 열정과 도전의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지만 양보와 타협,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상황 적응력 면에선 2%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가.

격변의 시기다. 지식 못지 않게 지혜도 소중하다. 승리를 위해선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이라도 상대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정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끈기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바둑의 법칙은 세상은 법칙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꾸준히 실력을 쌓고, 멀리 내다봄으로써 일희일비하지 않고 뛰기 위해선 간혹 움츠러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발휘할 때 서울대인의 앞날은 더더욱 빛날 것이다.

〈朴聖姬는설위원〉

Inside

8 동문을 찾아서(청와대 鄭正估대통령실장)

11 서울대 가족(한국해외기술공사 成百詮회장)

13 콩트 릴레이(具文宏수필가)

14 모교 소식(潘基文 UN사무총장 명예박사학위)

●느리나무광장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지 5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반세기 넘도록 민족의 아픔을 안고 1백55마일 펼쳐진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 냉전이 낳은 세계 유일의 인류 유산인 DMZ가 탄생 55주년을 맞아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李明博정부는 지난 4월 DMZ를 ‘PLZ, 평화생명지대’(Peace Life Zone)로 명명해 DMZ가 ‘PLZ란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 DMZ 일원의 생태·평화벨트화를 통한 ‘세계유산 등록’과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DMZ= 평화생명지대’ 선언을 계기로 정부기관과 지자체, 민간여행사들의 DMZ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즉, ‘DMZ의 세계적 관광 명소화’를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에 한창이며 본격적인 ‘DMZ 관광시대’의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엔 강원도가 가장 열성적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자 DMZ에 가장 많이 인접한 강원도는 ‘DMZ를 도의 대

표 관광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강원도는 8월 초 국내 최초로 ‘DMZ관광청’을 발족하고 DMZ에 가까운 고성군에 국내 첫 ‘DMZ박물관’을 짓고 있다. 또한 서울과 철원을 잇는 DMZ 평화투어 버스를 이미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엔 국내 최대의 모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DMZ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미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철책선 관광투어’ 개발도 끝났다.

이에 뒤질세라 경기도 역시 “DMZ 일대를 안보와 생태

관광 상품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관광지 개발하고 생태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DMZ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또 산하기관을 통해 DMZ의 블루오션 관광상품(병영체험)을 독자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주도로 ‘DMZ 투어’를 개발한다면 시범 코스 4개를 선보였고, 관광공사는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DMZ 팸투어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DMZ 관련 관광이나 사업들이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기관, 여행사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구난방식 접근이 아닌 상호 공조체제를 이뤄야 중복 투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또 연구개발이 재탕삼탕된다는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장들의 과잉의욕, 실적주의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 DMZ, 반세기 지나도록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공간. DMZ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제대로 가꿔나갈 때 DMZ는 더 이상 ‘아픔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건국 60주년과 DMZ

鄭興寶

춘천MBC 사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夕明

金守經

(치의학58-63)김수경치과의원장·시인

夕陽이 총만된 시간이라면

夕明은 黎明의

대충어가 될 것이네.

석명이 장년의 흐느낌이라면

여명은 청년의 희망일 것이네.

석명은 더 사색적이며

靜寂 속에 끝없는 길이리라.

모든 것을 觀照하고

다시 凝縮하여

여명을 기다리는 것 아닐까.

나는 오늘 광나루의 석명을

헤이면서 내 청춘의 열과

황혼을 읽는다.

동문칼럼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총각의 41%가 외국 여성과 결혼하고 다문화·다언어 가정이 20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도 해가 갈수록 급증해 이제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은 이미 1백20만명을 넘어 우리 사회는 명실공히 다문화·다민족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많은 상주 외국인들이 단일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유난히 강한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슬픈 일이 거의 매일같이 우리 언론에 보도돼 우리를 안타깝고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언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문화적 고립과 편견, 가정폭력, 열악한 자녀교육환경,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충격과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져 우

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됐다.

2008년 3월 설립된 웅진재단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이 돼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재단의 첫 번째 그리고 우선적 사회문화복지사업으로 외국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음악방송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 건국 60주년이 되는 2008년 8월 15일 첫 전파를 내보낼 이 방송은 외국 이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따뜻하게 보듬고 이들과 이들의 2세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촉매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방송은 웅진재단이 디지털 스카이넷과 제휴해 ‘디지털 라디오 KISS’의 한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스카이라이프 오디오 채널 855와 케이블방송 C&M 채널 811로 매일 24시간 방송된다.

웅진재단은 이 방송의 1단계로 올리는 국내 거주 이주민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필리핀 고유언어와 영어 병행), 태국 등 4개 국어, 2단계로 내년 중 일본,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아랍권을 위해 4개국 언어 방송을 추가할 예정이다.



辛鉉雄

(지리64-68)

재단법인 웅진 이사장

해당 8개국 원어민 앵커가 각각 자국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할 이 방송의 ‘음악과 교양 프로그램’은 그들 나라의 음악, 시, 수필 등을 소개해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 예절도 배울 수 있게 편성된다. ‘생활정보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육아, 보건·의료, 자녀교육, 응급안내, 가정·법률상담, 취업정보 등 한국생활 적응과 자조·자립 의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며 생활 한국어도 가르칠 계획이다.

원어민 앵커가 해당국 음악과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어려운 사업

다문화 가족 음악방송

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다민족·세계화 시대로 진입한 시점이라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웅진재단은 이 방송이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의 외국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방송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음악방송이 앞으로 국내거주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등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소통자 겸 문화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편집주간 許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鎬,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以熱治熱! 熱戰으로 여름 무더위 날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2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 최강조·A조·B조·C조·D조·E조와 단체전(이하 변형토너먼트리그) 16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전은 5국, 단체전은 4국을 치러 승자를 가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朴熙伯·孔大植·辛鉉雄부회장, 許璿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崔松和 前부총장, 朱鍾南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姜寅求보대원동창회장, 金正憲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宋鍾賢서울행정법원장, 李相賢 前국회의원 등이 선수로 참가했다.

올해에도 洪鍾賢(프로9단)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인 SBS 申秉湜 논설위원, 중앙일보 朴治文수석전문위원, 명지대 바둑학과 南治亨(프로초단)교수가 참석해 행사 진행을 도왔으며,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 洪鍾賢심사위원, 南治亨교수 그리고 홍콩에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류 프로기사 黃焰(프로4단)씨가 동문들과 지도 대국을 펼쳤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단순한 친목모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길러준 모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모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모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을 지향하자면 동문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올해 북경대 개교 1백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 분야의 챔피언을 배출하지는 분위기로 가득차 있었다”며 “이처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시대에 동문들께서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요강을 낭독한 후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기원과 후원을 맡은 재단법인 모교 발전기금, 한우리

SJM, 세계사이버기원,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한국천연물개발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체전 경기에서 차례로 미대동창회팀, 상대동창회팀 그리고 공과대학2팀을 차례로 물리친 문리대동창회팀이 결승전에서 농생대동창회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농생대동창회팀은 2006년 단체전에 참가했던 동문 4명과 재학생 1명이 합세해 선후배간 동문애를 과시했다.

문리대동창회 단체우승 개인전에 高晟郁동문

이날 우승한 문리대동창회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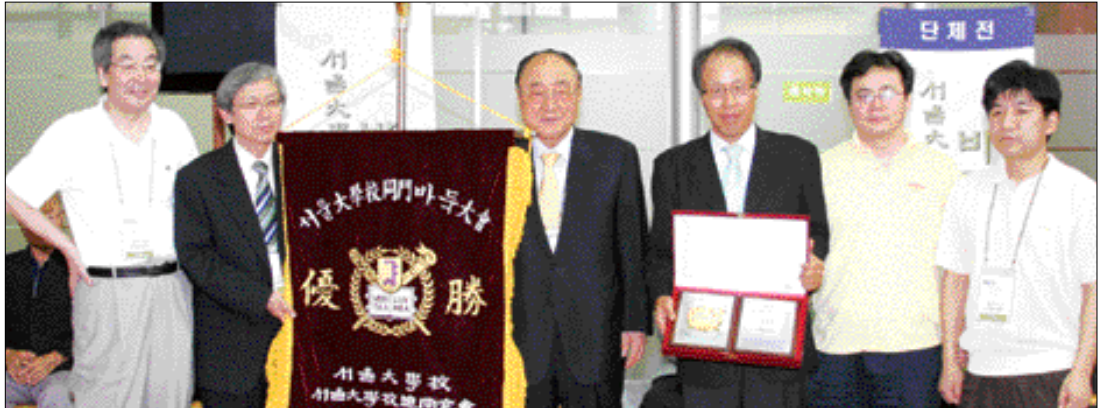
개인전 최강조에서 1회 대회 3위, 2회 단체전 3위를 기록한 高晟郁(경영78-83)동문이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대국에서 高동문에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尹錫喆(화학80-84)동문은 이번이 첫 수상이다. 또 공동 3위를 차지한 安正雄(화학82-87)동문은 高晟郁동문과 같은 대전 관악기원출신이다.

최강조 우승자인 高晟郁동문은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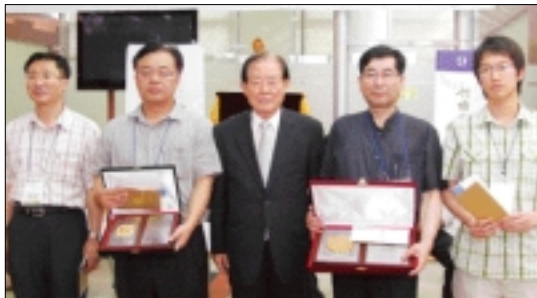
이날 단체전에 미대·사대·보대원동창회팀을 비롯해 교직원 교우회, 경상기우회, 수학과 61학번 동기회, 66년에 입학한 쌍육기우회, 농대 출신 모임인 청석회, 법대 출신 모임인 청조회, 공대 출신 모임인 호석사 등 다양한 바둑애호가 팀이 출전해 매 대국마다 멋진 승부를 펼쳤다. 역대 최다 동문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총동창회와 각 단대동창회와의 유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전 입상자 시상식이 끝난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전임 회장인 김상준 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동문음악가 CD, 모교 발전기금에서 협찬한 휴대용 돋보기와 한국기원에서 기증한 월간 ‘바둑’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또 경품 추첨 행사에서 USB메모리, 진공청소기,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음식물건조처리기,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한국천연물개발에서 개발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세트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대상인 노트북은 趙弘圭(ACAD 26기)동문에게 돌아갔다.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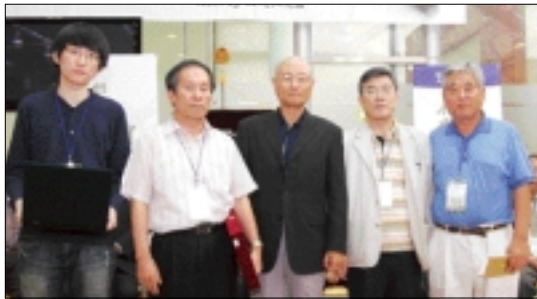
단체전 우승 문리대동창회팀 : 좌로부터 白祐榮·申秉湜동문, 林光洙회장, 朴治文·姜瑩根·安成文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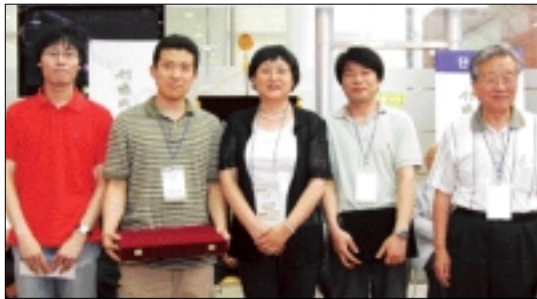
개인전 최강조 수상자 : 安正雄·尹錫喆동문, 孫一根상임부회장, 高晟郁동문, 신연철 군



B조 수상자 : 金昶濤·李康云·朴昌旭동문, 朴熙伯부회장, 金演培동문



C조 수상자 : 이진호 군, 尹錫泰동문, 孔大植부회장, 白鍾敏·徐用錫동문



D조 수상자 : 방형준 군, 徐凡浚동문, 黃焰프로기사, 金永容·曹基鳳동문



南治亨프로초단(左)이 E조 우승자인 李成原동문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 문리대동창회팀 白祐榮(중문62-67)·朴治文(국문68-79)·申秉湜(미학73-78)·姜瑩根(불문82-87)·安成文(정치83-87)동문. △준우승 : 농생대동창회팀 金基沃(농생물71-78)·魯根洙(임산가공77-84)·李在喆(농업토목86-91)·洪順善(식물생산과학92-00)동문, 지성욱(바이오시스템99입)군. △공동 3위 : 상대동창회팀 延健昊(상학66-70)·吳斗煥(국제경제82-89)·尹同鉉(국제경제82-89)·姜鐵(경제85-92)·金顯(경제85-90)·金善煥(경제85-92)동문, 서울대바둑연합팀 박준영(전기공학01-05)·이광열(의학01-07)·尹錫垣(생명과학02-06)동문, 곽형준(약학06입)·오경환(경영06입)군.

■개인전

▲최강조 △우승 : 高晟郁(경영78-83)동문 △준우승 : 尹錫喆(화학80-84)동문 △공동 3위 : 安正雄(화학82-87)동문, 신연철(전기공학06입)군.

▲A조 △우승 : 林鎔準(치의학65-72)동문 △준우승 : 朴永根(경영79-83)동문 △공동 3위 : 白武欽(금속공학84-88)동문, 김동국(지구환경시스템02입)군.

▲B조 △우승 : 金演培(경영67-71)동문 △준우승 : 朴昌旭(지구과학교육81-88)동문 △공동 3위 : 金昶濤(중문83-93)·李康云(치의학88-92)동문.

▲C조 △우승 : 尹錫泰(화학교육73-77)동문 △준우승 : 이진호(사회07입)군 △공동 3위 : 白鍾敏(상학66-70)·徐用錫(상학66-73)동문.

▲D조 △우승 : 徐凡浚(지구환경시스템공학01-05)동문 △준우승 : 金永容(사회88-99)동문 △공동 3위 : 曹基鳳(광산58-62)동문, 방형준(경제01입)군.

▲E조 △우승 : 李成原(광산56-62)동문 △준우승 : 全完植(AIC 3기)동문 △공동 3위 : 李基洪(경제50-54)·裴鍾燮(경제58-63)동문.

장학발딩 기금 추가 출연

成百詮·金安順부부 총 1억1천만원

지난 7월 9일 한국해외기술공사 成百詮(토목공학52-56)회장(사진)이 부인 金安順(화학공학 54-58)동문과 공동명의로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 1억원을 추가로 쾌척, ‘成安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1억1천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成百詮동문은 “지난 4월 9일이 아내와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좀더 의미 있는 결혼기념일이 되도록 그동안 모교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자는 의미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成百詮동문은 본회 장학



발딩 건립기금뿐만 아니라 모교 발전기금, 공대 발전기금, 토목공학동창회 등 여유가 조금씩 있을 때마다 모교에 기금을 출연해 왔으며, 부인 金安順동문과 함께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 등을 지원해 왔다.

1963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成百詮동문은 건설부 수자원국장·인천항건설사무소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면서 소양강댐, 울산공업센터 기반시설, 인천항만 건설 등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982년부터 해외건설기술 분야 개척자로서 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의 조사, 설계,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

로 장남 成廣濟(제어계측공학81-85)동문, 며느리 張洲寧(공예85-89)동문 등이 있다. <서울대 가족 11면 참조>

李東哲동문 1천만원

지난 7월 25일까지 남광토건 李東哲(토목공학78-82)부사장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발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된다.



金鍾瑞동문



許丙夏동문

건립기금 5천만원씩 쾌척

지난 7월 8일 세보M.E.C. 金鍾瑞(경제58-63)회장과 우신시스템 許丙夏(상학58-62)사장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각각 5천만원을 출연해 ‘金鍾瑞특지장학회’와 ‘許丙夏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金鍾瑞동문은 “지난 2006년 1천만원을 출연하고 나서 앞으로 좀더 나아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며 “때마침 죽마고우이자 고교 및 대학동기인 許丙夏동문과 얘기를 나누던 중 ‘50년간 함께 우정을 나누는 사이인 만큼 기금도 5천만원씩 맞춰서 내자’고 해 같은 날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13년간 섬유회사인 대한화섬에서 근무한 후 1978년부터 건축설비, 플랜트, 철구조물 등 건설 및

제조분야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金鍾瑞동문은 지난 10여 년간 산학협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대학 졸업 후 무역·조선분야 등 다양한 회사를 거친 許丙夏동문은 1984년부터 차체부품을 용접조립하는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金鍾瑞동문의 회사에 이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6년 무역의 날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상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상지경영건설팀’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金鍾瑞·許丙夏동문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최고의 대학인 모교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表>

의과대학동창회

‘사랑방’ 전담 직원 배치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가 함춘회관 ‘사랑방’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동문 쉼터인 사랑방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동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1층에 마련된 사랑방은 20여 좌석이 마련돼 있어 일반 카페처럼 담소를 나누거나 바둑, 장기 등을 즐기며 커피, 녹차 등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河權益회장은 “함춘회관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랑방을 오픈해 동문들에게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왔으나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두게 됐다”며 “소모임이나 동기회 바둑대회 등으로 많이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대원동창회

국회의원 축하연 개최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姜吉夫)는 지난 7월 9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18대 국회의원 및 국가 주요기관의 단체장에 선임된 동문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吳濟世·姜吉夫·文國現·元惠榮·金熙喆·李敬在국회의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崔相哲위원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金炯國위원장, 국토연구원 朴良浩원장이 참석해 동문들에게 축하 박수를 받았다.

동아일보 裴仁俊논설주간 본보 논설위원에 위촉



본회는 지난 7월 14일자로 동아일보 裴仁俊(철학70-74)논설주간(사진)을 본보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裴仁俊동문은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동경특파원, 경제부장, 부국장, 논설위원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농화학과동창회

홈페이지 새 단장 예정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李用益)는 지난 7월 3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동창회 법인화 검토, 홈페이지(www.agchem.or.kr) 리뉴얼, 회칙 개정, 소식지 발행, 초대 金浩植과장 추모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李用益회장은 “장기적인 동창회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별 대표 모임과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새 단장은 재학생 중에서 프로그래머와 관리자를 임명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총회에서 李회장을 비롯해 趙喆熙(70-77)수석부회장, 金秀一(61-65)감사, 許玄(69-73)기획실장, 李潤(69-76)홍보실장, 吳基鳳(78-82)상임간사 등이 새로 선임됐다.

상과대학동창회

8월 29일 장학금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藻)는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南>

만평

李元馥



AIC동창회

“새 명칭 지어 주세요”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敬俊)가 명칭 변경을 위한 동문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李海東사무총장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본과정의 명칭이 기술적인 전문지식 과정으로 인식돼 회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문 약어(AIC)는 가능하면 살리

면서 과정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교 행정대학원 崔炳善원장과 주임교수를 비롯해 동창회 임원들이 제안한 명칭에는 ‘정보정책리더십과정’, ‘ICT정책리더과정’, ‘IT 정책리더과정’, ‘정보·문화정책리더과정’, ‘정보정책지도자과정’ 등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회원은 홈페이지(www.sgmta.or.kr)자유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4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8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4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 ◆일 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풍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화 : 031-880-0300)
 - ◆참가대상 :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행 : 샷건방식
 - ◆시상내역 :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깜짝상 등 시상.
 - 출입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예정
-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인문대학동창회

창립총회서 朴孟浩회장 선출

인문대학 창설 34년 만에 동창회가 발족했다.

인문대학동창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玄武煥)는 지난 7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金信福부총장, 본회 孫一根 상임부회장, 모교 인문대 李泰鎭 학장, 元潤珠 명예교수, 국어국문학과동창회 南星右회장 등 1백50여 동문이 참석해 동창회 창립을 축하했다.

1974년 문리대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로 분리된 이후 사회대와 자연대는 동창회를 조직했으나 인문대는 각 학과 동창회만 존재했다. 지난해 5월 인문대 흡커밍 데이 행사 이후 동문들 사이에서 동창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올해 초 인문대 자체 진단평가 결과 동창회가 없는 점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인문대와 77학번 동기회가 주축이 돼 지난 5월부터 3천1백여 동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동창회 창립을 준비했다.

모교 李泰鎭학장은 “인문대 정체성으로 신평 문리대동창회에 참여하기도, 별도의 동창회를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데 문리대 선배와 인문대 후배가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문학 중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요즘, 인문대 동문들이 결집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모교의 장기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더 나아가 동문사회의 당당하고 모범적인 동창회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칙을 심의 의결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도서출판 민음사 朴孟浩(불문52-57)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7면 참조>

한편 회비는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70만원으로 정했다. 또 올해 홈페이지 구축, 회원명부·회보 발간, 동호회 및 지부 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金泳三(철학47-51)·安秉華(영문50-58)·申鉉國(중문54-58)·趙中衡(언어54-58) 동문 등 20명 ▲명예회장 : 李泰鎭(사학61-65) 동문 ▲회장 : 朴孟浩(불문52-57) 동문 ▲부회장 : 李明賢(철학60-64)·俞平根(불문61-65)·朴武益(철학62-67)·安國正(사학63-70) 동문 등 43명 ▲감사 : 黃孝鎭(동양사학78-85)·鄭址錫(동양사학80-90) 동문

미학과동창회

李明祐회장 추대

미학과동창회(회장 康澤九)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신임 회장에 李明祐(미학73-77)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李明祐회장은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동문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회장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삼성전자 미



주 가전 부문장, 소니코리아 회장,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MP3플레이어(아이리버) 업체인 레인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영동지부동창회

기금모금 방안 논의

영동지부동창회(공동회장 洪東善·安任洙)는 지난 7월 15일 강릉 시내 증식당 ‘루싱’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洪東善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와 강릉 단오제 등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젊은 후배들까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가 계속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 납부와 총동창회 건립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취미별 소모임을 연내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부 여흥시간에는 강릉대 崔孝(기상학68-76)지회장이 KIST 강릉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榮洙(상학47-56)·崔容桓(축산48-52)전임 회장을 비롯해 김철영(약학92-96)·강석우(응용생물화학98-02)·강경수(응용생물화학98-02)·차광



현(식품공학98-02)동문 등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춘천지부동창회

林正根회장 선임

춘천지부동창회(회장 韓達鮮)는 최근 춘천시내 배나무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임정근내과의원 林正根(의학70-76)원장을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7면 참조>

신임 林회장은 취임소감에서 “몇년간 활동이 전무했던 동창회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춘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신 동문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창회의 재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朴升漢(지리교육53-57)·李漢敎(법학54-59)·李雲植(조소56-61)고문, 南相憲(수의학69-73)·徐栢洙(자원공학72-76)·康辰(치의학76-82)·崔國宗(농학78-82)·邊知亮(정치78-83)·鄭日泳(의학78-84)·鄭泰洙(농업교육81-89)·成煥雨(수의학82-89)·安宰濤(사법87-92)·姜昇權(국민윤리교육92-97)·선채오(지리94-01)동문 등이 참석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夫賢一作



‘霧笛우는 날’, 수묵담채, 148×74.5cm, 2007.

<작가약력>

▲58~64년 모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6회
▲80~05년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98년 제4회 탐라문화상 수상
▲02년 제주도 문화상 수상

▲현재 한국미술협회·제주도한국 화가회·정연회 회원, 58동문회 회장

치과대학동창회

8월 28일 친선골프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洪禮杓)의 姜泰聲(치의학71-77)·權五洋(치의학74-80)·李元均(치의학74-81)동문이 최근 충북 진천 히든벨리CC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치대동창회 친선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姜泰聲동문은 개인전에 출전해 76타로 준우승에 올랐으며, 權五洋·李元均동문은 임원 개인전(신페리오 적용)에서 각각 우승과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모교를 비롯해 경희대, 연세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치대동창회 21개팀이 참가해 단체전, 개인전, 임원 개인전으로 치러졌다. 한편 치대동창회는 8월 28일 오전 6시 경기도 용인 프라자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LP동창회

6기 골프 단체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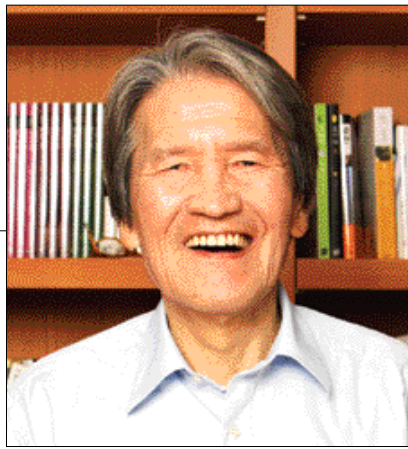
범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는 지난 7월 19~20일 제주 로드랜드CC에서 1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 6기 동기회가 단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부열(6기)회원이 개인 우승, 백진현(7기)회원이 2위에 올랐다. 그밖에 金勝濟(4기)회원이 메달리스트상, 박진재(7기)회원이 롱게스트상, 황종섭(6기)동문이 니어리스트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亮沃회장, 권기섭(1기)·김경일(3기)·김귀숙(4기)·金勝濟(4기)·박노준(4기)·송춘영(5기)·백정기(6기)회원 등이 4천5백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협찬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인문대동창회 박孟浩 초대 회장
(도서출판 민음사 회장)

지난 7월 11일 인문대학 설립 34년 만에 창립된 인문대동창회 초대 회장으로 민음사 박孟浩(불문52-57)회장이 선출됐다.

박회장은 지난 2001년 모교에 인문학 학술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는 등 인문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려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동문이 회장을 맡은 것도 인문대, 인문학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모교 로고가 선명한 동창회장 명함도 만들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타 단과대학에 비해 많이 늦었죠.

“알마 전 인사차 金泳三(철학47-51)前 대통령을 찾아뵈었는데, 그 분도 ‘여태 동창회가 없었냐’며 놀라시더군요. 인문대

는 프로그램이나 동문 자녀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사를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다지는 일이겠죠. 동문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문학과 인문대의 발전에 기초가 될 뿌리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해놓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건강하고 행복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밑거름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이 직접 만들어 가는 동창회라 생각

춘천지부동창회 林正根회장
(임정근내과의원장)

－ 새 회장단 구성은.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를 업시키고 동문들을 규합하기 위해선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동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비교적 젊은 동문들로 구성했습니다. 사무국장에 鄭泰洙(농업교육81-89)동문, 간사에 安宰濤(사법87-92)동문을 선임했습니다. 각 단과대별 연락담당자로는 徐栢洙(자원공학72-76)·康辰(치의학76-82)·崔國宗(농학78-82)·邊知亮(정치학78-83)동문 등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거에 정치인, 유명인사 위주로 운영해 오던 동창회가 이곳 춘천이 생활터전인 동문들을 주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죠. 현재 회원 수

최근 춘천지부동창회장에 임정근내과의원 林正根(의학70-76)원장이 선출됐다. 2001년 12월 정기총회 이후 7년 만이다. 신임 林회장은 “몇년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창회 운영이 중단됐으나 전임 邊知亮(정치78-83)사무국장을 비롯한 몇몇 동문들께서 재건에 앞장서 주신 덕분에 힘찬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면을 통해 林회장에게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83년 춘천에 온 이후로 송년모임에 참

“大器晚成 … 늦었지만 활발하게”

동문들이 개성이 강해 물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인문학 위기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동문들 사이에 ‘우리가 단합해 이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 회원 수를 비롯해 향후 계획에 대해.

“전체 1만여 회원 가운데 7천여 명이 연락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원진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겠죠. 부회장까지는 인선이 됐고 실무를 책임질 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원명부, 회보 제작 등의 기초 사업을 펼쳐야겠죠. 또 영향력 있는 동문들을 많이 만나 협조를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 초대 회장으로서 특별히 펼치고 싶은 사업은.

“새로운 인문학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

하시고 많은 의견과 참여 그리고 보탬이 돼 주십시오. 가장 늦게 만들지만 가장 활발하고 융성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동참해 주세요.”

충북 보은 출생인 박회장은 청주고를 나왔으며 모교 졸업 후 66년 민음사를 세워 인문학 전문출판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비룡소(어린이), 황금가지(대중문화), 사이언스북스(과학), 황금나침반(경제·경영), 세미콜론(시각문화), 민음IN 등의 계열사를 둔 국내 최고의 출판그룹으로 일궈냈다. 모교 불문과동창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으로 부인 韋銀淑(의학58졸)동문과 사이에 장녀 朴祥姬(조소81-85)동문, 장남 朴權燮(경제83-87)동문, 차남 朴相俊(산업공학91-95)동문이 있다. 〈南〉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만남시다”

석한 것이 활동의 전부였고 전임 회장님들과는 친분을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신임 사무국장과 간사 등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는 후배들의 권유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교와 총동창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총동창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춘천과의 인연은.

“서울백병원 내과 레지던트 시절 같이 근무한 인턴이 춘천인성병원을 소개시켜줘 83년 내과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죠. 2년 뒤 내과의원을 개원했고, 91년부터 97년까지 뉴욕 Mount Sinai병원에서 Oncology Fellowship과 Nuclear Medicine 레지던트 생활을 한 후 다시 춘천에서 재개원을 했습니다. 개업 당시 선배님들의 배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가 6백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학교와 대학에서 봉직하고 있어 단과대별 모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동문들을 위한 정기모임을 활성화시켜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융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모이기 위해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연말쯤 전체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林正根회장은 새춘천로타리클럽 회장, 춘천지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로타리 3730지구 재무, 춘천지검 범죄예방위원회 경생보호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또 춘천남성합창단장, 국내아마추어연극협회 아시아 후원회장, 강원도 탁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부문에 크게 헌신해왔다. 새벽 5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조기탁구로 건강을 다지고 있다. 〈表〉

“대통령의 눈과 귀 되어 民情 빠짐없이 전달”

동문을 찾아서

鄭正佶 청와대 대통령실장



지난 6월 20일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鄭正佶(행정61-65)울산대 총장이 임명됐다. 鄭正佶실장은 모교 행정대학원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정책학원론’,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등을 저술한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다. 관료 경험도 있다.

鄭正佶실장은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하는 것을 조심해왔다. 대통령실장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

이다. 지난 7월 23일 처음으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실장은 그림자처럼 행동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의 역할뿐만 아니라 브레인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본보 金鎮國논설위원과 사진 촬영을 위해 본보 李五峰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답: 본보 金鎮國논설위원(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 겸 정치·국제 에디터)

— 청와대 대통령실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열던 수석회의를 화·목 이틀간 9시로 바꾸셨는데 그럼 이제 ‘early bird’는 벗어나신 건가요. 소통을 위한 조치로 아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은 청와대 비서진이 진용을 처음 갖추었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계통을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체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 설 틈도 없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생겼고 정신없이 바빠서 피로가 누적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중 이틀만이라도 수석회의를 좀 늦추고 청와대 밖의 사람들과 아침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자고 했죠. 또 토요일 하루는 쉬자고 말씀드려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쉬어야 행정부도 쉴 수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 실장님은 휴가를 잡으셨나요.

“일이 좀 많아서 대통령께서 먼저 갔다 오시면 다녀올 생각입니다.”

—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가까이 회복되고 있어서 실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들어올 때가 제일 안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니까 국민들도 좀 속 시원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촛불시위 뒤에 나타난 일부 폭력행사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군요.”

— 이 정부 조각 때도 입각 제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 고사하셨다고 대통령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수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제자들을 잘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하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서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정부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자신도 없고 겁도 나더군요. 그러다가 울산대 총장을 하면서 학교 기틀도 마련하고 정리도 하다보니 이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돼서 사양했지만, 마지막으로 힘껏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수락하게 됐죠.”

— 대통령학을 연구하시고 ‘정책학원론’,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등을 쓰셨는데.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

다 알고 있어야 통제가 되는데, 지금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 사회가 훨씬 불안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보던 시험인데,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는 가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83%정도 됩니다. 극빈 계층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얹혀사는 대

일선 장관 도와주는 참모역할 충실

대학서 인문·자연과학 기초 강화해야

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사정에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미국은 국회가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대통령은 주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통령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미국식 대통령 이론이 이 곳에서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임 朴正熙·全斗煥·盧泰愚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관리했는지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 현직에 들어오시니까 책을 쓰시거나 학문으로 연구하실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현실과 이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盧泰愚대통령 시절에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노사갈등이 심했지만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각 분야별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다양해졌어요.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쪽에 잘 모르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모두

학 졸업생, 50대 이전에 퇴직하는 가장 등 이런 상황이 누적되기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믿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90%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도, 10%의 사람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10%의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신이 쌓여 있으니 조금만 뭐라고 해도 표출이 되는 겁니다.”

— “행정은 총리와 장관이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그림자 보좌를 강조하셨습니다. “최고의 비서”란 대통령이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미국 백악관의 앤드류 카드 前비서실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대통령실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군요. (웃음) 대통령실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림자

비슷합니다. 대통령께서 못 보신 사실들을 빨리 챙겨서 전달하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눈이나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한번 나가시려면 경호 등 관련절차가 복잡하니까 잘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죠.

두 번째는 브레인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책을 놓고 대통령께서 장관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혹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챙겨드리는 거죠. 이런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실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부 내각과의 관계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실은 참모본부 역할을 하게 되죠. 일선 사령관인 장관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 정부 출범이 얼마 안됐는데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전략상 시기를 조절하는 건가요.

“기본은 안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한꺼번에 막 몰아서 해버리는 수도 있고, 시기를 봐서 급한 것 먼저 해결하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등 완급조절이나 시기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약속해서 집권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 약속을 했더라도 꼭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죠. 물론. 미국 선거를 살펴보면 당내 지명을 받은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먼저 내걸어 놓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저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다듬거든요. 그렇게 다듬어도 현장에 가보면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선거과정을 통해 ‘레이거니즘(Reaganism)’을 다듬어서 집권하고 6개월 뒤에 발표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개혁은 집권초기에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 대통령 리더십 평가 달라

☑ 있었고, 선거에서는 정책에 대해 따져보는 게 부족했어요. 그동안 정책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를 치러왔잖아요. 서로 인물에 대해 따지다 보니 정책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하긴 했죠. 들어와서 다듬어야 하는데, 막 촛불시위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은 어느 분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게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요. 朴正熙대통령을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독재를 아주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업적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朴대통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그때까지는 제가 朴대통령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싫어한 거예요. 정권을 계속 잡기 위해선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몰랐죠.

여하튼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라 후대에 뭐를 남겼느냐 하는 업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해서 업적을 남기면, 그 리더십 스타일 자체도 좋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지 못한 예가 있어요. 미국의 후버 대통령인데, 이 분은 지식과 지성을 갖춘 젠트맨이에요. 그런데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경제를 과탄으로 몰고 가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죠.”

— 李明博대통령과는 1964년 6·3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 후의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지요.

“제가 서울대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쯤에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서울대 정문 앞에서 후문의 총장관사와 연구공원 쪽으로 고가도로를 낸다고 발표했어요. 그 당시 교무회의 논의 끝에 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90%에 가까운 교수들의 반대서명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서울시장에 지금의 李明博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鄭雲燦총장, 朴錫鉉기획실장 등과 함께 시장을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섣뜻 알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취소가 됐죠. 아마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李明博시장께서 취소 조치를 해주신 것은 서울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청계천의 고가도로 철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 철학이 남다르셨던 것 때문이죠.”

— 행정대학원동창회장 취임 시에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세계적 위상은 우수한 교육과 훌륭한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리라



행정고시 합격후 학원서 경제학 강의

울산대 총장시절 ‘폭탄주 대장’ 소문

보시는지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성과 기본적인 소양, 이 두 가지를 위해 인문학, 자연과학의 기초 등을 많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커리큘럼을 강화시켜야 하겠죠.

요즘은 필수 교양과목을 없애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목을 늘리고 있는데, 기본 소양에 대한 부분을 배우지 않으면 약자를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신입생 때에는 인문학, 철학, 역사,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시절 스터디그룹에서 부인(홍태화 여사)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아요. 우리 때는 영어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우리 때만 해도 영어 공부가 부족해서...”

— 이력서를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지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절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저는 처음에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농림부에 지원했는데, 8개월 동안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李漢彬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농림부 陳鳳鉉차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제가 농민들을 선동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획계장으로 1차 산업 총괄책임을 맡아서 이들과 함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교하게 짰어요. 그 내용을 金鶴烈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브리핑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 발표도 듣게 되었고, 앞으로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을 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농림부를 떠나겠다고 했더니 金鶴烈부총리께서 누가 괴롭게 하나며 경제기획원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세상을 좁고 작게 봤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 인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 최근까지도 젊은이들보다 더 활동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침에 한 10분 정도 맨손체조를 합니다. 울산대에 있을 때부터 했죠.”

—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요.

“요즘은 스트레스가 쌓일 여유가 없어요. (웃음)”

— 폭탄주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많이 드시나요.

“울산대 총장으로 갔을 때 처음 2년 동안은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울산대에 대해 뼈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기자와 지역 유지들의 오해를 풀고 교감을 나누며 장벽을 허물려고 하다보니 폭탄주 대장으로 소문이 났어요.”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대학원 동창회장도 역임하시는 등 동창회에 대한 관심도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林光洙회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교생도 많이 하시면서 동창창회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재도 털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셨죠. 더군다나 친화력도 대단해서 후배들을 참 잘 다독겨려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동창창회는 정말로 중흥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동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좀더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울대 본부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正喆대통령실장은

65년 모교 졸업 후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농림부 기획관리실 기획계장, 경북대 교수를 거쳐 80년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모교 한국행정연구소장, 행정대학원장, 대학원장, 울산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安興燮기자>

서울대 가족

成百詮 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

부인·처형·장남 등 미니 공대동창회

“모교로부터 받은 혜택 나누면서 삽니다”

“젊을 땐 무엇이든 지기 싫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저 열심히 달렸습다. 나이가 들고 보니 지금은 남을 위해 양보하고 일도 거들다가 큰 병치레 없이 가는 것 외엔 욕심이 없습니다. 아내인 金安順(화학공학54-58 成安기업 사장)여사께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내를 만나 기독교인이 된 후 老慾이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늘 모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모교와 교회를 위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돕고자 노력해왔고요. 둘다 이제는 돈 쓸 일이 없으니 그동안 펼쳐놓았던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복지법인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예요.”

건설부 수자원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기술심사관 실장 등을 맡아 울산공업센터와 인천항만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가기반시설을 진두지휘했으며, 정부 설립회사인 한국해외건설 대표를 거쳐 현재 우리나라 엔지니어링회사 중 해외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을 맡고 있는 成百詮(토목공학52-56·행대원 68입·AMP 6기)동문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월 9일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成百詮·金安順동문 부부는 최근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쾌척, 이름 가운데 한 글자를 딴 ‘成安특지장학회’를 운영하게 됐다. 成동문의 금혼식 행사에는 미국에서 내과 개업의로 있는 장녀 成靜美(알려지전공)씨와 사위 金弘植(신장 및 성인병전공)씨, 장남 成廣濟(제어계측공학81-85 KAIST Business Economics



앞줄 좌로부터 成百詮·金安順동문, 뒷줄 우로부터 張州寧·成廣濟동문

초빙교수)동문과 며느리 張州寧(공예85-89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국제인문학부 부교수)동문 등 가까운 친지들이 참석해 조촐하면서도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한편 成百詮동문 가족 중에는 金安順동문과 장남 成廣濟동문 그리고 金安順동문의 언니인 처형 故 金琴順(섬유공학50입)동문이 공대 출신이다. 또 부인 金安順동문이 6녀2남 가운데 셋째 딸인데, 큰언니를 제외한 남매가 모두 타대학 공대 출신이라고.

金安順동문도 처음엔 모교 약대에 입학했다가 부친의 권유로 이듬해 모교 공대에

재입학했다고 한다.

“50년 전 여자가 공대를 나와 아무리 우수해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뒷바라지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죠. 그런데 저보다 더 프론티어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당시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동산 재테크에 일찍이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등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成安기업도 20년 전 아내의 주도로 설립한 자그마한 부동산

회사예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저 역시 조금은 정제되고 안일해질 수 있는 공직자에서 사업가로 변신해 열심히 돈 벌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기금을 출연할 수 있었죠.”

成百詮동문과 金安順동문의 기질을 끌고 루 물려받아서인지 장남 成廣濟동문의 이력도 남다르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廣濟는 NASA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했는데, 2년 정도 하다가 잘 안됐어요. 경

成百詮(토목공학52-56)동문 가족

부인

金安順(화학공학54-58)

처형

故 金琴順(섬유공학50입)

장남

成廣濟(제어계측공학81-85)

며느리

張州寧(공예85-89)

영능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프랑스 INSEAD에서 MBA를 했습니다. 졸업 후 커넥터 전문 제조회사인 MOLEX에 입사해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담당 중역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됐죠.

그러던 중 KAIST에서 연락이 왔어요. Business Economic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제 아들처럼 연구원, 벤처사업가, 기업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공학도를 초빙해 경영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이공계 학생을 양성하고자 한다고요. 고심 끝에 작년 9월 부임해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張州寧동문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녀교육에 전념하면서도 틈틈히 작품활동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에 최근 일본 국제대학 교수로 임명돼 즐거운 마음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成동문은 끝으로 모교 후배들, 특히 공대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자기 분야를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십시오. 뛰어난 기술만 가지고서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후배들이 앞장서서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크게 벌이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들도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믿어요.” <表>

콩트 릴레이

우리 동네 추억

具 文 宏

(농경제60-64)수필가



해질녘의 우리 동네는 항상 부산했다.

전차길 양쪽으로 흐르는 도랑에는 걸레를 빨러 나온 아이들과 집집마다 밤을 밝힐 남포 불의 호야(유리 씌우개)를 투명하게 닦기 위해 나온 아이들이 북적대기 시작해 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에다 쌀을 주고 그 대신 북한의 전기를 쓸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그만 말도 없이 전기를 끊어 버리는 통에 이제는 밤만 되면 그 불편함을 면할 수 없었다.

우리 집도 길 건너 2층 양옥집에 살았을 때는 카바이트 불도 써보고 남포 불도 써보았지만 왜정시대 구라하시라고 불리던 큰 목재공장으로 이사를 와서부터는 공장의 발전기로 불을 밝힐 수 있어 전처럼 불편함은 없었다.

뿐만 아니다. 이제 여름 해가 잠시 더 어둑해 지는가 싶으면 전차길 바로 안쪽에 있는 막걸리를 파는 창곤이 엄마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할 차례가 온다.

그것은 언제나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골목을 약간 더 들어간 유리공장 마당에서 곧잘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놀고 있기 때문이다.

창곤이 엄마는 잠시 가게 밖을 나와 앞치마를 두른 채 “창곤아~”하고 목청을 높인다.

“창곤아~ 창곤아~”를 여러 번 하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으레 다음에는 입에다 두 손을 갖다 대고는 다시 “차왕 곤아~”

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오후쯤이면 술이 곤드레가 되어 취해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자기 작은 도단 집을 방 한 칸만 빼고는 모두 술을 파는 부엌과 좌석으로 만들어 생활을 꾸려 나갔다.

어느 봄날 창곤이는 양지바른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 한 쪽 끝이 부러진 큰 가위를 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창곤이는 압전히 앉아있고 그 가위를 든 친구는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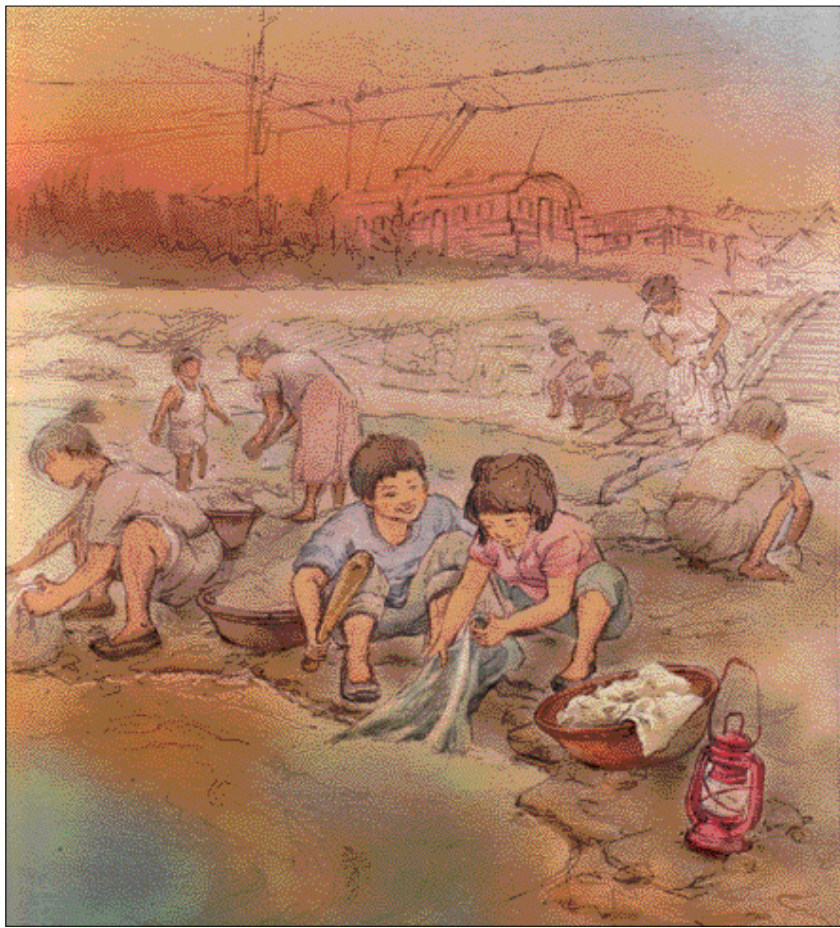
창곤이는 어디서 싸구려 난장 이발을 했는지 미처 바리깡으로 깎이지 않은 긴 머릿털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 다른 친구가 그 가위로 긴 머릿털을 골라주고 있었던 것이다.

“야. 창곤아, 니 다말래기(달리기) 너 거 학교에서 잘 한다 카는 거 들었는데 나도 운동회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 릴레이 선수 아이가. 우리 여서(여기서) 유리공장 앞꺼정(까지) 오버래끼(전속력)로 한번 시험해 볼래?”

내가 용기를 내 먼저 창곤이한테 도전을 했다.

“내 지금 가래툰이 서서 다리가 아프데이.”

나는 버르고 별렀던 일이라 약간 실망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동문

하고 더욱 목청을 돋우는 것이다.

창곤이라는 놈도 그렇지 이런 해프닝이 매일 해가 지면 있을 줄 알고도 언제나 얼른 대답을 하고 유리공장 밖으로 뛰어 나오느라 법이 없다.

“야~”하고 못이긴 듯 뒤늦게 골목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 다음에는 창곤이 엄마의 매일 반복되는 욕설이 튀어나온다.

“야 이 씨(혀) 빠질 놈아 얼른 와서 밥쳐 먹어라.”

이럴 때면 으레 동네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이거,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처럼 그저 “또 시작했네” 하시곤 껄껄 웃는 사람들이었다.

창곤이는 나보다 덩치는 작아도 나와 같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찌 왔습니까?”

“아이구~ 내 새끼야~ 니가 여 댕기냐? 우리 창곤이가 이 학교로 전학 안 왔다.”

창곤이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반가워서 야단이였다.

후일 들리는 말로는 창곤이 어머니는 악작같이 장사도 하고 돈놀이를 하셔서 자그마한 3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현금도 꽤 있는 알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창곤이와 같은 반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공부보다는 장난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런데도 결국 창곤이는 후일 일류 대학은 아니었지만 어엿하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우리 집도 다시 창곤이 집 근처로 도로 이사를 와 살게 됐다.

그러나 사실은 한 동네에 집이 있긴 했어도 대학이 다르고 친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학동안 귀향은 했어도 나와 창곤이는 자주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고 다만 오다가 길에서 만나면 서로가 반가워할 정도였다.

대학 3학년 때의 어느 여름 방학동안이었다.

내가 시내로 나갔다 전차길을 따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였는데 멀리서 아래 위로는 모시 바지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밀짚모자를 쓴 사나이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걸음걸이로 보아 분명 창곤이라는 짐작을 했지만 얼른 보기에는 마치 어느 촌로가 시골길을 걷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결국 서로가 마주치자 먼저 창곤이가 입을 열었다.

“야, 니 심심한데 시내 구경 가자.”

“나는 지금 시내에서 오는 길 아이가, 구경은 무슨 구경?”

“내 전차 태워 줄게. 그라고 올 때는 내하고 이야기하고 천천히 걸어오면 안되나.”

“야, 가기도 싫지만 올 때도 전차를 타가지 걸어오는 거는 또 뭐꼬?” 나는 의아스럽게 느껴져 그를 뺨히 쳐다보며 말을 했다.

“하~ 말도 말아라. 우리 할마시 나한테 심부름시키면서 전차표 딱 두 장만 안주나.”

“그라도 니 혼자 갔다 온나. 나는 안 갈란다.”

자기 어머니를 할마시라고 하는 창곤이도 문제였지만 다 큰 아이를 멀리 심부름을 보내면서 전차표 두 장만 손에 쥐어주는 창곤이 어머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나는 그 후 서울에서 졸곧 살면서 창곤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의 모 운수회사에서 사고담당 승상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매우 어울리는 직업을 택한 것으로 생각됐다.

명이 짧아서일까? 물론 창곤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먼저 창곤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는 50을 겨우 넘기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항상 세상을 알보지 않고 악착 같이 사썻던 창곤이 엄마와 아무리 불평이 있어도 참고 부모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창곤이...

애석하게도 이제는 그 시대 그 골목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창곤이도 그리고 창곤이 엄마도 이미 내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장대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다.

“

우리 집도 길 건너

2층 양옥집에 살았을 때는

카바이트 불도 써보고

남포 불도 써보았지만

목재공장으로 이사를 와서부터는

발전기로 불을 밝힐 수 있었다.

”

“야. 니 그 걸레 깔클리(깨끗하게) 빨았나?”

“으(응). 한 번 더 행구모(면) 된다.”

“호야는 닦아서 옆에 잘 놔두야지 안 그라도 깨진데이.”

“니 걸레는 방뽕이질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만 빨아서 되나?”

“해지고 나서 방뽕이질 하모 창곤이 엄마한테 식급한데이(혼난다). 동네가 망한 다 양카나.”

“와? 창곤이 엄마가 동네 반장이야?”

“니 모르나? 아무도 같지 몬(못) 하는 거.”

“그래도 구라하시 공장 엄마한테는 행님(형님)하면서 쫄쫄매던데 뭐.”

“그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안 그라나. 다 덕보고 산께네 그라지 뭐.”

“우리 집도 어제 구라하시 공장에서 톱밥 한 자리(자루) 얻어 왔다 아이가.”

초등학교 4~5학년이나 되는 머슴아이들과 계집아이들의 대화가 동네 사정을 얘기하듯 재미있게 들린다.

내년부터 ‘자유전공학부’ 개설

최대 1백57명 융합 학문 배워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7월 30일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개설하는 2009

학년도 모집안을 발표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전체 정원이 1백57명으로 이 중 1백10명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으로, 나머지 47명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각각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

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의학·수리학·사범계열·간호학을 제외한 학내 모든 전공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전형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100%)로 선발 인원의 2~3배수를 뽑은 뒤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50%)과 면접·구술고사(30%), 논술고사(20%) 점수를 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1단계는 인문계열과 동일하나 2단계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에서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예능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인원은 앞으로 교육과 학기술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원서 접수일 이전에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 수시 2학기 총 모집정원은 특기자전

형 1천77명과 지역균형선발전형 7백75명 등 모두 1천8백52명으로 확정됐다.

정원 외 선발전형인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30명을 선발한다. 1단계 서류 평가를 거쳐 2단계로 서류와 면접고사 결과를 종합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미대와 음대의 경우 통합전형을 실시해 서류와 면접, 실기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기로 했다.



潘基文 UN사무총장에 名博

모교는 지난 7월 3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潘基文(외교63-70)UN사무총장(사진 右)에게 명예 외교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權斗煥대학원장은 추천사에서 “潘基文사무총장은 30년 이상 국가에 봉사하면서 우리나라 외교발전에 공헌했고 국제연합의 수장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潘基文사무총장은 학위수여식 후 ‘A Stronger UN for a Better World’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내일의 지도자인 학생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 말고 포용해야 한다”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계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가슴 설레는 임무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무한한 만족감과 더불어 수많은 좌절에도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해 보라”고 조언했다.

潘사무총장은 충주고 재학 시절 영어를 배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료공장 외국인 직원과 영어회화 연습을 통해 공부를 했으며 영어대회에서 입상, 이로 인해 학생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 외교관의 꿈을 키워 모교 외교학과에 진학했다. 85년 하버드대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제56차 UN 총회 의장 비서실장, UN 대사, 청와대 외교보좌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바 있다.

UN사무총장 선출 당시 ‘불어를 모르는 UN사무총장은 안된다’는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면담을 앞두고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암기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潘사무총장은 지난 7월 미국 메릴랜드대 ‘월드퍼블릭 오피니언’이 세계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潘사무총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문화관 주변을 가득 메웠으며 盧信永 前국무총리, 본회 林光洙회장·洪性大부회장, 관악회 鄭哲圭이사, 모교 權壽赫·李賢宰·朴奉植·趙完圭·鮮于仲皓·鄭雲燦전임총장·李長茂총장, 발전위원회 尹鍾龍공동위원장, 평의원회 朴杉沃의장 등 40여 명의贵宾들이 참석해 潘사무총장의 모교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재학생 대표로 潘사무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사회대 박문경(외교07입)양은 “세계 외교의 정점에 서 계시는 선배님께 후배들을 대표해 꽃다발을 증정하게 돼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모교는 1948년 첫 수여 이래 金壽煥주기경을 비롯해 총 1백6명(외국인 97명, 한국인 9명)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모교에 30억원 추가 쾌척



지난 1987년 첫 기부 이후 지금까지 모교에 1백8억원을 쾌척한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이사장(사진 右)이 3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鄭이사장은 지난 8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李長武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양학술정

보관 Ⅲ호관’ 건립 기부금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에 짓는 신양학술정보관 Ⅲ호관은 2004년 신양학술정보관과 2006년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 이어 鄭이사장이 모교에 기부한 세 번째 시설.

鄭이사장은 중견기업인 태성고무화학의 창업주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다가 2001년 회사를 매각하고, 현재는 장학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신양공학학술상을 비롯해 학술연구기금, 학술정보관 건립기금, 본회 특지장학금 등 모교를 위한 각종 사업에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후두암과 위암을 앓아 의사소통마저 힘든 鄭이사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미술관

이탈리아 현대조각전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탈리아 대사관·문화원·가루조시각에술원(I.G.A.V.)과 공동으로 ‘물질의 미묘한 에너지 : 이탈리아 현대조각’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의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 작업한 이탈리아의 대표작가 31인의 조각품 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국내에 이탈리아 현대조각이 소개된 적은 별로 없다”며 “일상적인 형태들을 뜻밖의 재료와 물성으로 표현한 현대 조형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람료는 3천원(관악구민 및 20인 이상 단체 2천원)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4〉

중앙도서관

‘웰빙’ 주제로 도서 전시

중앙도서관(관장 金完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메인홀에서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책’을 주제로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의 병폐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정신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웰빙관련 도서를 總·食·體·富의 4개 분야로 나눠 總에서는 웰빙의 일반적인 개념 및 트렌드와 관련된 책 8권, 食은 ‘밥상, 먹을거리’와 관련된 책 45권, 體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웰빙 책 45권, 富는 ‘물질적·정신적’ 여유로운 삶을 위한 책 60권 등 총 1백58권의 도서를 전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1375〉 (榮)

선배님,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㉗

‘우리는 감사한다’ 碑

1951년 11월 의과대학 15회 동기들이 인체해부실습을

마치고, 해부학 공부에 도움을 준 모든 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제작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공사 등으로 훼손됐고,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1991년 9월 다시 세워졌다. 연건캠퍼스 의대 종합실습실과 의학도서관 사이에 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 유임

대학원장에 화학부 金夏奭교수



金信福부총장



金夏奭대학원장



金明煥교무처장



張在盛학생처장



徐鎮浩연구처장



朱鍾南기획실장

지난 7월 23일자로 모교 金信福(교육학64-68)부총장이 유임됐으며, 교무처장에 수리과학부 金明煥(수학73-77)교수를 임명했다.

또 8월 1일자로 대학원장에 화학부 金夏奭(화학63-67)교수, 학생처장에 불어불문학과 張在盛(불문75-82)교수, 연구처장에 농생명공학부 徐鎮浩(화학공학72-76)교수, 기획실장에 기계항공공학부 朱鍾南(기계공학75-79)교수를 선임했다.

교무부처장에 정치학과 林旻勳(정치81-85)교수, 학생부처장에 치주과학교실 具英(치의학80-86)교수, 연구부처장에 예방의학교실 姜大熙(의학81-87)교수, 기획부실장에 법학부 李根寬(사법

82-86)교수를 기용했다.

기초교육원장에 언론정보학과 姜明求(대학원78졸)교수, 기초교육부원장에 생명과학부 李賢淑(대학원90-92)교수를 발탁했으며, 金泳楨(철학74-78)입학관리본부장은 유임됐다.

대외협력본부장에 국어교육과 尹希苑(국어교육75-79)교수, 정보화본부장 겸 중앙전산원장에 전기컴퓨터공학부 李範熙(전자공학78졸)교수, 중앙도서관장에 중어중문학과 徐敬浩(중문71-75)교수, 언어교육원장에 영어영문학과 孫昌肅(영문80-84)교수,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경영학과 南益鉉(경영81-85)교수, 대학신문 주간에 사회복지학과 李奉柱(사회복지81-85)교수를 임명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논의

발전기금 “기부문화 확산되길”

빠르면 내년부터 연간 10만원 이하를 대학에 기부하면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羅卿媛)는 지난 7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羅卿媛(사법82-86)국회의원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학기부금에 대해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동문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 중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받은 대학은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와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총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다.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규모와 연동

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는 한도를 설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전국대학 기획처장협의회 黃榮基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우리나라가 7.1%로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고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 교육비는 4.3%로 OECD 평균인 5.1%에 훨씬 못미쳐 30개국 중 22위에 머무른다”며 “국가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金次東(SPARC 9기)인재육성지원관은 “장학재원 확충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 압박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들과의 세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尹永善조세정책관은 “이 제도의 혜택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명문대학과 지방대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우려했다.

한국조세연구원 金珍洙세법연구센터장도 “10만원이라는 소액을 세액공제 한도로 하고 있어 일견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정 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기부받는 단체들이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조세정책당국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 이하 발전기금)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무려 82%(2006년 기준)에 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간 세액공제 혜택수혜의 불균형에 대해 모금조직 인력의 부족 등 모금액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기부자층의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가장 원한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金聖鎭(기계설계88-93)모금총괄실장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기부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어 한시적으로 도입되더라도 현재 국내의 대학기부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기부자층을 확대할 수 있어 대학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기부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우리나라에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동문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 1차(2008년 6월 초~8월)
- 2차(2008년 9월 초~10월) (사전 조율 가능)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620,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ac.kr>
E-mail : snu@snu.ac.kr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내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캠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모교 李長茂총장, 삼성생명 李水彰대표

삼성생명 기부보험 협약 “모교에 기부하세요”

모교는 지난 7월 9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삼성생명(대표 李水彰·수의학67-71)과 보험금을 모교에 기부하려는 동문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보험 협약식을 가졌다.

기부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로 지정된 비영리 단체 및 공익법인에 보험금 전액이 전달되는 보험이다.

삼성생명과 기부보험 협약을 맺은 것은 모교가 여섯 번째로, 이

번 협약에 따라 보험금을 기부하려는 동문 및 교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李水彰대표는 “기부보험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일반화된 기부형태”라며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부보험 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6월 한림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확산된 기부보험은 전체 금액이 40억원을 넘었으며 기부보험 판매 건수도 4백건 이상 증가했다.

발전위원회 조찬모임 10월 모금행사 논의

모교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뮈데룸에서 발전위원회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발전위원회 林光洙·李長茂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孫京植·尹鍾龍 공동위원장, 姜信



인문대학 학장에 邊昌九교수 선임

지난 8월 13일 인문대학 학장에 영어영문학과 邊昌九(영문70-74)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邊學장은 건국대 조교수를 거쳐 89년 모교에 부임한 후 한국세익스피어학회 회장, 모교 기초교육원장·미술관장·교무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浩·金炯珠·金貞植·盧信永·孫一根·李金器·洪禮豹·尹汝斗·姜天錫·申相勳·姜德壽위원, 본회 許瑄사무총장, 모교 발전기금 차용 銑발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모교 추진사업과 ‘VISION2025’의 교내 캠페인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 캠페인을 확대하는 10월 모금행사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榮)

동 정

수 상

▲姜信沆(국문49-53 성균관대 명예교수·한국어 문 교육 연구회 장)=지난 7월 17일 제53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국어학) 수상.

▲吳金成(사회교육60-64 모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7일 제53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중국어사) 수상.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장)=지난 7월 9일 한국과 프랑스간 원자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훈.

▲金東奎(의학72-78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7월 17일 제53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신경외과학) 수상.

▲尹景炳(화학75-79 前아시아화학회 사무총장·서강대 교수)=지난 7월 17일 제53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무기화학) 수상.

▲金蘭都(사법82-86 모교 소비자 이동학부 교수)=지난 7월 10일

제26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吳受妍(국문83-87 소설가)=지난 7월 22일 소설집 '황금지붕'으로 제26회 신동엽 창작상 수상자에 선정.

▲吳世勳(SGS 7기 서울특별시장)=지난 7월 17일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 시에서 열린 '서울의 날' 기념공연장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훈장 수훈.

인 사

▲金商周(금속공학49-56 모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의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에 선출.

▲朴贊謨(화학공학54-58 前포스텍 총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지난 7월 7일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에 임명.

▲柳順昊(농화학55-61 모교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朴世直(영문57-60 재향군인회장)=지난 7월 22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

▲李來源(화학교육58-62 前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최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 역사문화교재편찬위원회에 위촉.

▲羅正雄(전자공학59-63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전자정보인클럽 회장)=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曹圭喆(법학60-64 前한국방송통신대 총장)=지난 8월 1일 4년 임기의 동아대 제13대 총장에 취임.

▲金大模(화학공학61-66·경제65-70 중앙대 교수)=지난 7월 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장관급)에 임명.

▲金德龍(사회61입 前국회의원·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지난 7월 7일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에 임명.

▲金弘宇(정치62-66 모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安澤秀(정치62-66 前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前국회의원)=지난 7월 21일 신용보증기금이 사장에 취임.

▲李成俊(고고인류64-69 前한국

일보 부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7일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

▲黃祐呂(법학65-69 국회의원)=지난 7월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한국청소년연맹 제10대 총재에 취임.

▲金尙哲(법학66-70 변호사·미래한국신문 회장)=지난 7월 17일 미래 한국과 세계의 변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연구하는 '미래연구원'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

▲金炯晔(외교67-71 국회의원)=지난 7월 10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

▲徐炳倫(농공학69-73 로지스그룹 회장·한국물류협회장)=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팔렛시스템연맹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

▲趙煥益(정치69-73 前산업자원부 차관·수출보협공사 사장)=지난 7월 22일 KOTRA 사장에 임명.

▲李載哲(법학70-77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지난 7월 23일 학교법인 경기학원 제15대 이사장

에 선임.
▲崔在德(국어교육74졸 前건설교통부 차관·前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지난 7월 2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취임.

▲陳永郁(경제70-74 前한화증권 사장·한화손해보험 부회장)=지난 7월 21일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취임.

▲朴永卓(산업공학71-75 특허청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지난 7월 15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1급)에 임명.

▲尹在錫(화학교육71-75 국민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에 위촉.

▲吳永鎬(화학공학72-80 前산업자원부 차관)=지난 7월 23일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연구원(SIAT) 전임교수에 선임.

▲鄭泰錫(무역73-77 前교보증권 대표·광주은행장)=지난 7월 22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에 선임.

▲趙靑遠(화학공학73-77 前국립중앙과학관장·전국과학관협회장)=지난 7월 18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에 선출.

▲朴成在(농경제73-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지난 7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에 임명.

▲金建植(법학73-77 모교 법대 학장)=지난 7월 4일 임기 2년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대 이사장에 선임.

▲申珪秀(법학73-77 전주유엔대 표부 차석대사·주이스라엘 대사)=지난 7월 7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임명.

▲趙榮柱(토목공학74-78 前KT 아이컴 사장·KTF 사장)=지난 7월 22일 임기 4년의 국립합창단 이사장에 선임.

▲金正基(사회교육74-78 선문대 부총장)=지난 7월 7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임명.

▲金東朱(행대원80-83 前기획재정부 정책홍보 관리실장·차관보)=지난 7월 7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명.

▲潘長植(행대원83졸 前기획예산처 차관)=지난 7월 23일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연구원(SIAT) 전임 교수에 선임.

▲盧基太(AMP 27기 前국회의원·前부산시 정무부시장·前국제신문 사장)=지난 7월 1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임명.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지난 7월 16일 대한탁구협회 제20대 회장에 선출.

▲정희선(AIP 35기·ACAD 58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장)=지난 7월 10일 임기 3년의 국과수 소장에 임명.

▲金龜(HPM 3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지난 7월 11일 대한약사회 제35대 회장에 선출.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7월 21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원격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서 체결.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시인)=최근 제8회 서울공예상(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최) 및 제13회 영랑문학상(월간 순수문학 주최) 후보 심사, 제22회 인촌상(동아일보 주최) 후보 추천.

▲林範澤(응용미술57-64 한국미협 회원·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현대사진연구소장)=최근 사진작가 생활 52주년을 기념해 작품 5백여 점이 담긴 CD-ROM 출간. (www.limbphoto.com 참조)

▲夫賢一(회화58-64 제주대 명예교수·58동문회장)=지난 7월 16~22일 서울 관훈동 모로갤러리에서 모교 입학 50주년 기념 제24회 58동문회 전시회 개최.

▲劉英世(치의학60-66 유영세치과의원장)=지난 7월 5~6일 서울에서 열린 ITI(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

▲車興奉(사회62-69 한림대 교수·한국장애인개발원장)=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작가 등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과 미술대전 작품 공모.

▲任晟準(외교67-71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7월 15~28일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제3회 유럽교육자 한국워크숍 개최.

▲李京浩(법학69-73 인제대 총장·한국인구보건협회 부회장)=지난 7월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인구보건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회에 참석.

▲朴吾銖(경영71-75 모교 경영학과 교수·발전기금 기획단장·한국경영학회 회장)=오는 8월 19~2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 학술대회 개최.

▲李東植(영어교육72-76 KBS부산방송총국장·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문화시론집 '절레꽃과 된장', 문화시평집 '다섯 계절의 노래' 출판기념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12·16일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국 일보사가 주최한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한복패션쇼' 참관. 또 베트남 혁명 1세대인 응웬 티 빈 前부주석을 인터뷰해 한국일보에 기고.

▲조윤석(응용화학93-99 스위스 로잔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재학·가수 루시드 폴)=지난 7월 4일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 받음.

▲裴義淑(AIP 24기 이나루터엔티 대표·한국여성벤처협회장)=지난 7월 18~19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창조적 여성리더 포럼' 개최.

▲金泰完(ACAD 44기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지난 7월 4~9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국제문화친선교류축전에 참가. 또 조선족 3세 어린이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 전달.

명복을 빕니다

소설가李清俊동문

소설 '서편제'의 작가李清俊(독문 60-66)동문이 지난 7월 31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전남 장흥 출신인 고인은 1965

년 사상계에 단편 '퇴원'으로 등단했으며 40여 년간 1백20여 편의 장·단편을 남겼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그린 '당신들의 천국'을 비롯해 '병신과 머저리' '축제' '이여도' 등이 대표작이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인촌상 등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남경자 여사와 외동딸(은지)이 있다. 장지는 전남 장흥군 화진면 진목리 갯나들.

▲文鴻柱(경성제대40졸 前문교부 장관)=8월 2일 별세.
▲洪升熹(경성고상41졸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장)=7월 20일 별세.
▲楊亨植(교육45-49 前한국자유총연맹 총재)=7월 24일 별세.
▲李炳暉(기계공학49-54 KAIST 명예교수)=7월 16일 별세.
▲李英一(지리교육56졸 前춘천중 교장)=7월 21일 별세.
▲梁瑞榮(생물53-57 인하대 명예교수)=7월 14일 별세.
▲尹信博(화학공학59-63 이수그룹 부회장)=7월 9일 별세.
▲金英培(법학61-65 세창상사 대표)=7월 13일 별세.
▲鄭採鎭(행대원67졸 前산림청장)=7월 27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憲法改正, 過去와 未來

— 金哲洙 지음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 본보 논설위원) 명예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해 헌법 개정 논의에 참가가 되도록 역대 헌법의 특색과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 1편에서는 대한제국, 상해 임시정부, 미군정의 헌법과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의 헌법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2편은 헌정사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고 제10차 헌법 개정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 책 말미에서 국회 입법권 강화, 바이마르 헌법의 의원내각제를 개량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비정치인 가운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한다. (한국헌법연구사출·값15,000원)

長兄·偏母·家傳清白

— 鄭秉起 지음



사를 담은 책.

鄭동문은 6·25전쟁으로 부친(鄭東雲 경성사범37졸)을 잃고 조부모와 편모슬하에서 6남매의 맏이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농림부 농업조사과장·대외협력 보좌관, 한미합작 한미유기화학 총무부장, 한일 농목장개발 컨설턴트,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세계은행 농업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했던 내용과 바퀴벌레 연구회를 조직해 방제 발명특허를 받고, 제1회 흙사랑 생명사랑상을 수상한 이야기 등이 흥미를 더해준다. (도서출판 지구관·비매품)

별처럼 사는 법

— 李時雨 지음

모교 천문학과 교수를 지낸 李時雨(천문기상58-62 한국과학기술



술한립원 정회원)동문이 우주 속에 숨겨진 진리를 별을 통해 설명한 책.

별의 일생과 인간의 일

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성현, 철학자, 문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 교육자 등 여러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과 격언 속담 등을 모아 그 뜻을 간략하게 풀이했다.

李동문은 1998년 8월 모교에서 명예퇴직 후 '천문학과와 붓다의 대화' '천문학자, 우주에서 붓다를 찾다'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등을 잇따라 펴냈다. (우리출판사출·값10,000원)

마당 넓은 기와집

— 梁永洙 지음



제주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梁永洙(영문67-72) 동문이 창작집을 냈다.

‘육망의 미로’, ‘그들의 부자유친’ 등 중편 2편과 ‘마당 넓은 기와집’ 등 단편 5편이 실려있는 이 창작집에서 공통된 화두는 ‘육망의 문제’이고, ‘방황하는 인간육망의 미로 그림이 점점 더 복잡하게 뒤얽혀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실상이라는 게 저자의 말이다.

50대 후반에 들어서서 소설가로 등단한 저자는 “외국문학 연구에 한계를 느끼면서 앞으로는 소설 쓰기에 전념할 결심”이라고 밝혔다. (평민사출·값9,000원)

헤럴드 블룸 클래식

— 鄭正浩 옮김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鄭正浩(영어교육68-73) 교수가 페미니즘 이론에 정통한 부인 李素英(영어교육69-73) 동문과 만났(혜연 고려대 졸업), 막내딸(혜진 불어교육96-00)과 함께 번역한 책.

이 책은 현대 영미 문학비평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헤럴드 블룸(前예일대 교수)이 엄선한 고전(단편소설 41편, 시 83편)들로 엮은 책.

이 책에는 블룸이 5~15세 사이에 처음으로 읽은 뒤 16~17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읽었던 고전들을 수록하고 있다. 루이스 캐럴에서 오스카 와일드, 나사니엘 호손, 푸슈킨, 모파상을 거쳐 셰익

스피어까지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묶은 이 고전 선집은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순환과 더불어 문학의 미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생각의나무출·값29,500원)

책도둑 1·2

— 정영목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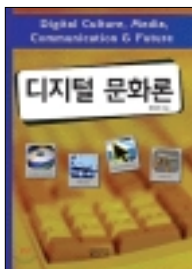
이 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겸임 교수인 정영목(영문80-85) 동문이 호주 출신 작가 마커스 주사의 장편

소설을 우리말로 옮겼다.

전 2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집은 죽음의 신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둑 이야기이다. 작가는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글을 쓰면서 이러한 시대에 가장 적합한 화자가 바로 ‘죽음의 신’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의 신’이라는 독특한 화자를 등장시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생의 아름다움을 그린 이 소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숨 가쁘게 뒤바뀌는 운명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문학동네출·값11,000원)

디지털 문화론

— 權相禧 지음



디지털은 일상에 일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權相禧(신문81-85)교수가 디지털 시대 문화의 이해를 위한 저서를 펴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 콘텐츠, 미디어, 새로운 유형의 수용자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新문화현상을 기술 설명하고 있다. (성균관대출판부출·값25,000원)

언론법

— 文在完 지음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 중인 文在完(공법81-85 한국

공연



申敏定 피아노독주회

— 8월 17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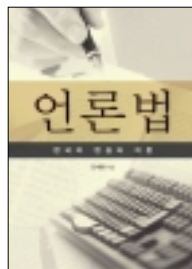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申敏定(기악85-89 백석예술대 교수)동문(사진)이 8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갈루피, 스키타라티, 테오도라키스, 그라나도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金潤實 피아노독주회

— 8월 21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金潤實(기악87-91 서울예고 강사)동문(사진)이 8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알베니즈,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 콘서트디자인 2292-7184)



외대 교수) 동문의 언론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음란, 선거, 광고,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다뤘으며, 인터넷포털 책임론, 패러디, 신상공개제도 등 디지털 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을 다뤘다.

또한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한국의 실정법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소개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으며, 국내외 이론, 법령, 판례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용이한 문제로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 후 심층적인 이슈에 접근해 법학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늘봄출·값40,000원)

허시명의 주당천리

— 허시명 지음



한국여행작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시명(본명 許正九 국문81-85) 동문이 한국의 좋은 술을 지키기 위해 천리를 여행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전국의 전통주를 찾아 먼 길을 마다 않고 돌아다닌 許동문의 술 유람기를 담은 것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내음이 가득한

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한반도 최초의 포도주의 역사와 8진사 8전석 가문의 술, 보리술 향아리에 대롱 꽃아놓고 마시는 주당들의 이야기, 일본의 술 축제 행렬까지 술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 된 듯한 행복함과 전통술을 지켜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예담출·값14,000원)

카불의 사진사

— 정은진 지음



보도 사진작가 정은진(동양화89-93) 동문의 포토 에세이집. 그녀는 이 책에서 카불에서 아프

간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낸 1년간의 시간에 대해 기록했다. 작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탈레반과 이슬람으로만 알고 있는 아프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팽배한 그곳에서 억압받는 아프간 여자, 발끝까지 오는 부르카를 쓴 그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며 삶과 직업 등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포토 저널리스트 정은진 동문은 책 속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편한 삶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낯설고 힘든 아프간의 구석구석을 헤쳐 나가며 용기있게 다가선 저자는 ‘카불의 사진사’를 통해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길 꿈꾸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열정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아일보사출·값12,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백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2천만원

△엄병윤(외과학60-64)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운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영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운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9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6천만원

△김운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5천30만원

△이종현(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GS 2기)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종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응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광산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졸)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1천30만원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신혁(문리66-73)

△강용현(법학71-78)

△강행연(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준(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옥(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6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1백50만원
△김건호(수의학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2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1백만원
△김석준(기계공학72-76)
△류종묵(상학59-65)
△백형배(화학공학47-53)
△이용희(간호학75졸)
△황남주(물리학87-92)
◆50만원
△남시욱(정치학54-58)
△박순철(사법학83-87)
△박철홍(AMP 51기)
△승의상(의학61-67)
△위정일(의학63-69)
△이상준(기계공학76-80)
△정대규(수의학56-60)
◆40만원
△여효성(대학원03-05)
△정문성(의학78-84)
◆30만원
△강 건(약학60-66)
△강민수(법학65-69)
△강승렬(지리학62-66)
△강태석(상학51-55)
△권장혁(항공공학67-71)
△김광호(농학61-65)
△김규상(화학57입)
△김만경(경제학53-57)
△김복승(APC 3기)
△김상근(법학78-82)
△김성만(금속공학57-61)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김익영(행대원68졸)
△김정자(치의학59-65)
△김진철(항공공학67-72)
△김창복(법학51-55)
△김충경(약학65-69)
△김태수(지질과학62-66)
△김한주(약학57-61)
△김혜삼(AMP 51기)
△김화규(물리학52-56)
△나형용(금속공학54-58)
△노갑기(영어교육66-70)
△문철명(축산학60-68)
△문형근(대학원79-81)
△박귀원(의학66-72)
△박동정(전기공학54졸)
△박란정(가정관리80졸)
△박문갑(의학46-53)
△박문희(간호학59-63)
△박용환(경영학72-76)
△박원길(보대원65-67)
△박효일(의학58-64)
△변기정(치의학65-71)
△변원일(종교학67-76)
△서광하(법학56-60)
△서원태(법학67-72)
△서학령(AMPP 7기)
△석세조(수의학50-54)
△성낙정(전기공학48-54)
△성쾌문(법학60-64)
△성하정(수의학81-85)
△성하현(상학59-63)
△송희승(의학53-59)
△신명철(농업교육63-67)
△신성국(법학73-79)
△신우식(영어영문53-57)
△신인식(법학74-78)
△심우영(행정학59-64)
△안재숙(농공학48-53)
△오국진(HPM 5기)
△원윤상(조선공학76-80)
△위기철(경제학59-66)

△유재운(기계공학78-82)
△유태연(의학54-60)
△윤승로(약학56졸)
△이강남(수의학66-74)
△이건우(기계공학74-78)
△이동식(영어교육72-76)
△이명선(간호학71-75)
△이선우(법학61-65)
△이세복(법학61-65)
△이연재(상학61-66)
△이영우(화학공학79졸)
△이용우(전기공학77-81)
△이종길(물리학60-64)
△이현희(경제학54-58)
△이현복(농화학64-68)
△인주선(화학공학63졸)
△인태운(치의학53-57)
△임명택(기계공학72-78)
△임상웅(약학60-64)
△임종호(치의학82-88)
△정갑순(항공공학78졸)
△정기호(화학70-75)
△정기환(사회학58-65)
△정소영(치의학52-56)
△정연문(ACPMP 4기)
△정희자(AIC 8기)
△조경종(보대원68-70)
△조성직(치의학54-58)
△조현욱(사법학83-87)
△최동건(경제학70-74)
△최동수(의학54-60)
△최병선(외교학77-81)
△최상오(금속공학63-67)
△최서영(정치학54-58)
△한견표(정치학76-80)
△한상후(약학64-68)
△허철부(경대원67-69)
△홍순우(의학85-91)
△홍영희(건축학54-58)
◆20만원
△곽병현(섬유공학67-71)

△나길웅(경제학61-65)
△노계원(독어독문58-64)
△박봉배(국어교육49-53)
△방병채(외교학60-64)
△송원표(원자핵공77-81)
△신동철(건축학97-01)
△엄보용(치의학81졸)
△이법재(법학58-62)
△이선하(농업교육65-69)
△이영배(금속공학52-56)
△이정환(심리학83-88)
△이희범(전자공학67-71)
△전동수(화학교육58-62)
△전우수(물리교육69-73)
△정근화(물리교육63-70)
△정연웅(재료공학93-00)
△조동진(행정학63-67)
△지성우(법학66-70)
◆15만원
△안영두(치의학81-87)
△윤일권(자원공학90-94)
△전형식(토목공학66-70)
△최국봉(전기공학47-50)
◆12만원
△고평석(정치학91-96)
△권영호(ACAD 60기)
◆10만원
△강석훈(사법학82-86)
△강신욱(법학56-61)
△강예목(농공학53-57)
△강희동(건축학67-71)
△강희찬(의학76-82)
△고광남(교육행정53-57)
△고재석(화학교육79-83)
△고종명(전기공학47-51)
△공종민(불어불문81-85)
△곽 규(상학51-56)
△곽동순(생물교육67졸)
△구자운(전기공학71-75)
△권광연(법학55-60)
△권봉일(산업공학69-73)

△권영식(경영학66-74)
△권용근(공법학81-93)
△권우준(건축학98-02)
△권태명(경제학58-64)
△권태우(영어영문83-88)
△권혁준(전기공학53입)
△권혁진(농학61-65)
△김지혜(제약학01-05)
△김 덕(법학54-58)
△김 윤(기계공학68-76)
△김경린(기계공학68-75)
△김경욱(간호학75-79)
△김경욱(약학64-68)
△김경향(가정교육55-59)
△김관수(AMP 61기)
△김광선(상학57-61)
△김광숙(가정교육65-69)
△김귀현(기약69입)
△김기탁(AMP 18기)
△김기홍(수의학81-85)
△김남주(보대원66-68)
△김내성(정치학55-59)
△김대호(전기공학68-72)
△김대훈(토목공학58-62)
△김두환(법학53-57)
△김민철(토목공학75-81)
△김무기(조소83-89)
△김범수(상학57-61)
△김병기(치의학77-83)
△김병숙(화학공학52-56)
△김복희(AMPFRI 3기)
△김상도(농화학69-73)
△김상렬(상학64-68)
△김선식(국어교육58-62)
△김성복(AMP 23기)
△김성은(ACAD 30기)
△김세균(정치학66-70)
△김세중(공법학82-87)
△김수영(AIP 12기)
△김수웅(지구과학60-64)
△김순갑(ACPMP 2기)

△김순구(법학58-62)
△김승경(경제학55-59)
△김승욱(응용미술82-86)
△김시학(AMP 40기)
△김양곤(금속공학65-69)
△김연만(치의학55-59)
△김연명(한대원85-87)
△김영곤(의학49-53)
△김영무(경제학56-62)
△김영섭(인류학81-86)
△김영주(의학78-84)
△김영준(사대원70졸)
△김영태(공법학84-88)
△김영홍(의학49-55)
△김영환(AMP 61기)
△김영훈(치의학56-60)
△김용복(지리교육57-61)
△김용배(축산학57-63)
△김원란(기약84-88)
△김유일(경제학53-57)
△김윤경(경제학53-57)
△김윤배(조경학83-91)
△김익수(생물교육60-64)
△김인수(치의학57-61)
△김인철(농산업교01-06)
△김일수(사학54-58)
△김재곤(치의학54-58)
△김재권(농화학46-52)
△김재균(대학원62-67)
△김재인(농공학62-66)
△김정숙(불어불문58-62)
△김정우(광산학56-61)
△김종기(법학78-82)
△김종오(토목공학76-80)
△김종홍(ACPMP 4기)
△김준섭(법학61-69)
△김준호(경영학81-88)
△김중호(국어교육60-66)
△김진배(건축학64-72)
△김진웅(전자공학77-81)
△김진호(경제학50-58)
△김진화(경제학58-65)
△김찬규(체육교육83-87)
△김채식(섬유공학54-58)
△김천기(경영학62-66)
△김철순(토목공학53-57)
△김태규(의학76졸)
△김태일(자연과학96-00)
△김태현(공법학84-88)

△김택구(농공학63-70)
△김한섭(의학44-51)
△김항구(역사교육69-73)
△김항목(대학원69-76)
△김해전(건축학52-56)
△김현민(법학61-65)
△김형기(외교학70-74)
△김형태(행정학55졸)
△김형호(철학58-62)
△김홍배(농경제학81-85)
△김홍재(법학53-57)
△김희주(공법학84-88)
△김희중(경영학67-71)
△남계호(법학54-58)
△노병완(화학공학56졸)
△노은배(의학78-84)
△노진만(경영학83-91)
△노태욱(건축학69-73)
△노태호(법학66-70)
△노형주(국사학96-04)
△노회진(식품공학84-89)
△노회정(경성법전41졸)
△도병욱(의학83-89)
△도철호(치의학79-85)
△도춘호(화학64-69)
△맹선재(물리학52-56)
△문영소(사법학82-86)
△문희화(정치학56-60)
△민경호(법학78-82)
△민동필(물리학64-71)
△민병훈(전기공학81-85)
△민수홍(기계공학51졸)
△박경정(치의학69-75)
△박기영(외교학67-71)
△박노학(사회교육50-54)
△박달용(AMP 4기)
△박동문(조선공학77-81)
△박문기(약학47-51)
△박성원(사법학81-85)
△박순영(통계학98-05)
△박순일(경제학69-73)
△박순찬(언론정보00-05)
△박승지(외교학86-90)
△박양한(법학60-64)
△박연도(회화56-60)
△박영래(경제학83-87)
△박영화(경영학65-73)
△박오식(AFB 5기)
△박원규(금속공학78-82)

△박인근(생물교육59-63)
△박인욱(농공학84-89)
△박재종(금속공학77-81)
△박제교(경성의전45졸)
△박종권(ACAD 28기)
△박종태(공법학84-88)
△박찬호(법학77-81)
△박춘규(공업교육73-77)
△박흥균(건축학71-75)
△박희임(의학99-04)
△배기열(사법학82-86)
△배형근(전기공학79-84)
△백기환(경제학53-57)
△백병동(작곡55-61)
△백수택(화학공학80-85)
△백치근(상학49-56)
△변동명(토목공학58졸)
△변성수(미학84-89)
△변순식(모교 교수)
△복진태(천문기상66-74)
△서득성(농공학58-64)
△서영민(제약학83졸)
△서창국(물리학68-72)
△서철원(철학61-65)
△성백문(제어계측83-87)
△성삼경(축산학61-65)
△성영재(조선해양91-96)
△소정룡(HPM 20기)
△손종국(영어교육55-59)
△송병국(농업교육81-85)
△송병권(농업교육68-75)
△송영덕(성악77-81)
△송장섭(체육교육69-73)
△송창록(무기재료86-91)
△송창현(법학69-73)
△신경식(사법학82-86)
△신광근(불어교육65-72)
△신근식(건축학66-70)
△신남휴(경영학62-66)
△신동호(건축학79-85)
△신왕수(토목공학85-89)
△신요철(의학54-61)
△신용태(경제학59-63)
△신정용(경제학57-63)
△신정은(자연과학99-03)
△신해철(경제학69-73)
△신현준(AIP 18기)
△신현희(HPM 20기)
△신후성(경제학55-59)

△신희철(의학65-71)
△심상조(AMP 55기)
△심우섭(의학75-83)
△심정수(조소60-67)
△안균배(경제학81-85)
△안기봉(상학55-62)
△안상선(의학83-89)
△안영근(약학52-56)
△양승주(법학67-71)
△양인철(기계공학64-68)
△양장근(수의학76-80)
△엄철현(대학원01-03)
△연태호(치의학81-87)
△예산호(AIP 8기)
△오병렬(천문기상58-65)
△오인환(국어국문58-64)
△오종태(ACAD 38기)
△오창석(사법학84-88)
△오권근(약학72-76)
△우상은(AIP 34기)
△우정식(임학53임)
△유귀열(대학원87졸)
△유근성(경영학66-71)
△유라경(수의학83-87)
△유문상(국어교육52-56)
△유병진(AMP 49기)
△유수종(의학95-01)
△유영은(기계공학86-90)
△유영해(의대전문48졸)
△유중재(영어교육54-58)
△유중철(농경제학57-63)
△유택노(통신공학52-56)
△유홍선(물리학60졸)
△윤세철(역사교육61졸)
△윤준도(요업공학75-82)
△윤종희(사회학87-91)
△윤환상(금속공학49-53)
△이 찬(응용미술78-82)
△이강우(건축학79-83)
△이건창(AIP 5기)
△이경일(임산가공84-89)
△이규왕(전기공학93-97)
△이규이(행대원66졸)
△이내선(섬유공학53-57)
△이동석(약학58-62)
△이명희(대학원74졸)
△이무일(국어교육63-70)
△이미정(약학82-86)
△이병무(국어교육52졸)

△이병주(의학61-67)
△이보호(전기공학55-61)
△이삼수(제약학80-84)
△이상구(약학58-62)
△이상근(공법학82-89)
△이상선(농공학52-56)
△이선남(상학65-71)
△이성균(의학51-57)
△이성도(조소74-81)
△이성진(잡사학60-65)
△이성홍(응용수학69-73)
△이성훈(경영학72-76)
△이세현(역사교육55-60)
△이소일(서양사학81-88)
△이수길(환대원89-91)
△이수양(잡사학66-70)
△이승찬(농공학65-73)
△이여성(행정학73졸)
△이연호(농학51-55)
△이영기(경제학63-70)
△이영래(축산학63-70)
△이영준(영어영문67-72)
△이예민(토목공학46-50)
△이완식(물리교육61졸)
△이용규(의학54-60)
△이은정(HPM 14기)
△이응숙(기계설계76-80)
△이인석(수학75-79)
△이인태(전기공학94-00)
△이장호(서양사학82-86)
△이재일(치의학81-85)
△이재천(AIP 24기)
△이재현(치의학50-56)
△이정구(금속공학60-66)
△이정명(AIP 37기)
△이종남(산업공학73-77)
△이종원(기계공학66-70)
△이종호(의학81-87)
△이창우(간호학55-58)
△이철주(회화61-67)
△이태현(산업공학86졸)
△이현규(교육학62-66)
△이호일(전자공학68-72)
△이화영(화학공학56-61)
△이흥식(경제학56-60)
△임갑혁(공업교육69-77)
△임공례(화학54-58)
△임덕순(지리교육58-62)
△임종석(약학78-82)

△임종수(치의학81-87)
△임종완(농공학70-77)
△장광윤(농공학72-80)
△장달식(기계설계81-85)
△장동운(행대원62임)
△장병지(수학교육57-61)
△장세권(의학95-01)
△장세원(상학57-62)
△장승호(임학81-85)
△장영준(AMP 62기)
△장제홍(생물교육55-59)
△장창환(작곡58-61)
△전동일(요업공학79-83)
△전문휘(섬유공학53-57)
△전석진(미학55-59)
△전영우(국어교육53-57)
△전영호(제약학81-85)
△전영훈(의학83-89)
△전재열(건축학77-81)
△전해성(ACAD 33기)
△전형남(정치학81-85)
△정기용(불어불문59졸)
△정덕교(AFB 7기)
△정명원(간호학52-55)
△정무혁(치의학82-88)
△정민걸(해양학79-83)
△정민환(화학교육85-90)
△정부길(물리교육59-64)
△정석권(외교학66-70)
△정성희(국사학82-86)
△정신동(경제학84-88)
△정영채(화학65-73)
△정용익(경제학59-63)
△정원호(생물자원98-02)
△정윤계(AIP 31기)
△정인균(대학원83-85)
△정재명(수학61-65)
△정종현(기계공학70-74)
△정준명(AMP 58기)
△정진남(약학60-64)
△정하택(AMP 23기)
△조기조(AMPFRI 4기)
△조동희(경제학55-60)
△조병철(사회학73-77)
△조상규(전기공학64-68)
△조양래(기계공학64졸)
△조윤희(수학84-88)
△조일균(의학55-61)
△조한무(철학62-69)

△조한준(치의학53-57)
△지태욱(ACAD 20기)
△진성의(ACPMP 4기)
△진형인(외교학66-71)
△진흥균(AMP 9기)
△채영덕(심리학84-88)
△채희술(AIP 33기)
△천정락(물리학69-73)
△최갑석(통신공학51-55)
△최경희(약학54-58)
△최기종(경제학44-50)
△최무혁(건축학67-71)
△최병영(AIC 19기)
△최병철(경영학74-78)
△최상열(의학88-94)
△최수일(약학65졸)
△최영석(AMP 11기)
△최영희(치의학58-62)
△최용석(농공학81-89)
△최의원(섬유공학54-58)
△최인철(의학81-87)
△최종기(해양학69-73)
△최지은(의학84-90)
△최해원(약학67-74)
△최형인(전자공학71-75)
△최훈동(의학72-79)
△최희욱(의학51-57)
△추연화(교육학62-70)
△추한출(전기공학55-61)
△탁금자(약학51-55)
△하상모(기계항공98-02)
△하인경(불어불문66-70)
△한기룡(경영학71-74)
△한상복(잡사학54-58)
△한승수(행대원63졸)
△함창국(의학60-67)
△허 균(법학49-58)
△허남린(경제학53-60)
△허성심(CHCN 2기)
△허영욱(영어영문59-63)
△현용순(응용미술68-72)
△현창현(기계공학78-82)
△홍범교(경제학78-82)
△홍원식(국제경제82-86)
△황성욱(AFB 7기)
△황원오(경제학56-60)
△황의대(영어교육78-82)
(이상 2008년 2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회 장 단

△명예회장 金在淳= 30만원
 △부회장 金貞植= 1백만원
 △부회장 尹勤煥= 50만원
 △부회장 徐廷和= 1백만원
 △부회장 李吉女= 1백만원
 △부회장 李海遠= 1백만원
 △부회장 朴熙伯= 1백만원
 △부회장 全東龍= 1백만원
 △부회장 尹世榮= 1백만원
 △부회장 李埈鎔= 1백만원
 △부회장 金讚淑= 1백만원
 △부회장 郭永駟= 1백만원
 △부회장 孔大植= 1백만원
 △부회장 安秉勳= 1백만원
 △부회장 李相禹= 50만원
 △부회장 崔奎烈= 50만원
 △부회장 河權益= 1백만원
 △부회장 南正鉉= 1백만원
 △부회장 朴成勳= 1백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부회장 許鎭奎= 1백만원
 △부회장 孫吉丞= 1백만원
 △부회장 劉常夫=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50만원
 △부회장 玄在賢= 1백만원
 △부회장 金仁圭= 50만원
 △부회장 張重桓= 1백만원
 △부회장 鄭忠始= 1백만원
 △부회장 愼昌幸= 1백만원
 △부회장 柳 津= 1백만원
 △부회장 鄭八道= 1백만원
 △감 사 朱成民=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金炯珠= 30만원
 △이 사 明泰鉉= 30만원
 △이 사 申明珪= 30만원
 △이 사 安聖哲= 30만원
 △이 사 張世一= 30만원
 △이 사 鄭啓泳= 30만원
 △이 사 金秉順= 30만원
 △이 사 張慶作= 30만원
 △감 사 金一燮= 30만원

상임이사

△李倫京 간호대동창회장= 20만원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 20만원
 △卞柱仙 사대동창회장= 20만원
 △洪龍濤 상대동창회장= 20만원
 △鄭英彩 수의대동창회장= 20만원
 △李世榮 약대동창회장= 20만원
 △徐桂淑 음대동창회장= 20만원
 △洪禮杓 치대동창회장= 20만원
 △河斗鳳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金英大 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姜寅求 보대원동창회장= 20만원
 △金貳煥 안대원동창회장= 20만원
 △李承漢 SGS동창회장= 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 20만원
 △姜普英 HPM동창회장= 20만원
 △南正明 AMPPP동창회장= 20만원
 △李敬俊 AIC동창회장= 20만원
 △金亮沃 ALP동창회장= 20만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8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 3. 20.~5. 25)·일반(08. 3. 19.~5. 25)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高光平 관악무역인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범구 농대76
 △강영규 농대85 △강원구 법대65
 △강우석 HPM13 △고기창 수의66
 △고호곤 AMP58 △공성국 법대77
 △곽응철 ACAD5 △곽의종 약대73
 △권문용 行院68 △권선기 법대86
 △권용석 법대82 △권혁도 치대70
 △김건중 공대71 △김경호 약대75
 △김기용 의대54 △김기혁 농대78
 △김도연 HPM13 △김도현 大院74
 △김동환 사대84 △김백준 문리62
 △김상갑 공대81 △김상모 AIP7
 △김성진 AIP29 △김소일 공대59
 △김순신 약대79 △김영배 농대78
 △김영수 AMP46 △김완규 AIP15
 △김완배 농대71 △김의규 AMP54
 △김일환 문리64 △김재곤 공대69
 △김재창 공대64 △김정균 공대62
 △김정일 치대70 △나도성 사대75
 △모영일 AFB5 △박상희 AMP26
 △박인성 의대79 △박해욱 간호75
 △선우영 법대74 △송기준 수의59
 △심상조 AMP55 △우종호 문리60
 △유위종 농대72 △유홍열 ACAD36
 △이경희 인문81 △이대연 농대69
 △이덕형 의대81 △이윤희 치대87
 △이재학 공대77 △이춘규 사회84
 △이태수 법대86 △이관준 음대68
 △이호진 사회81 △임종호 농대74
 △임채진 법대71 △장병전 치대70
 △장승우 상대66 △장인경 미대78
 △전윤수 ACAD39 △전창영 공대68
 △정대종 공대84 △정진규 법대67
 △채희술 AIP33 △최병준 사회76
 △하태범 공대79 △한상식 사회75
 △황인수 AMP29 △황호근 문리63

〈일반〉 △강영근 음대81
 △고성수 SPAR1 △고지환 농생99
 △고학수 사회85 △구교한 공대75
 △김경민 사회90 △김기섭 법대64
 △김상우 인문84 △김성우 인문74
 △김성태 사대69 △김윤권 법대77
 △김중겸 AMP64 △김태정 농생91
 △김푸른 자연02 △민정기 인문86
 △박민우 공대96 △박석원 의대87
 △박재율 AMP36 △박홍재 약대49
 △사영준 공대99 △서남수 법대61
 △서덕화 FIP2 △서창녕 사회86
 △선우성 의대84 △오호성 사회82
 △이보람 공대01 △이상석 AIC24
 △이재숙 법대86 △이정대 AMP64
 △이종범 인문72 △이태호 사회99
 △이훈준 상대46 △임성환 공대89
 △장윤선 공대02 △장진원 사회00

△정원화 농대70 △조춘택 AMP64
 △조해진 법대82 △조현우 공대83
 △홍기남 SPAR5 △홍윤호 ACAD48
 △황해경 AMFR20

이 사

◆인문대 △김광석82 △김학래74
 △박득송73 △박해경84 △신병식73
 △원종례73 △조정숙84 △최성락72
 △한봉희77 △현재복82 △현준용86
 △홍성운73
 ◆사회대 △김광녕82 △김동선76
 △김용표81 △김준동80 △노택선79
 △박병룡80 △박성민77 △박재완73
 △박진희76 △서동영79 △안선아87
 △윤정화83 △이남우82 △이상희77
 △이재정81 △이주형72 △전상일73
 △전홍찬79 △정해일72 △조성원88
 △최영선77 △최익순73 △홍기두74
 △황영철85
 ◆자연대 △강인숙83 △손병기69
 △송세안79 △신재광82 △엄원근77
 △이창복68 △이철의75 △장대연74
 △정철희75 △최종권75 △최진혁71
 △한용택75 △한창우75
 ◆간호대 △박선애73 △허 영74
 △홍경자62
 ◆경영대 △강홍규72 △김선구73
 △김홍섭79 △박용환72 △백우현74
 △오정구74 △유태우79 △하태형78
 △홍석주72 △황수연72
 ◆공대 △강순욱53 △강의철73
 △강충원59 △강호문68 △강희태58
 △고영주67 △고영희77 △구영창48
 △구자관73 △권상철74 △권순철74
 △김강수70 △김광욱62 △김기순76
 △김노수45 △김대모61 △김대식73
 △김덕우81 △김덕재54 △김동진68
 △김문경61 △김상도78 △김성년68
 △김성환66 △김승권68 △김시근72
 △김신배74 △김신원64 △김양오71
 △김영호78 △김용호67 △김은영56
 △김인선65 △김인준68 △김재민74
 △김종광68 △김종찬67 △김진철67
 △김창석65 △김창호72 △김대섭53
 △김학세65 △김한섭68 △김환준73
 △김호용72 △김흥근76 △나재심76
 △남용민71 △문명국73 △민병선55
 △민재홍74 △박갑태83 △박기철72
 △박상수59 △박세형73 △박용출71
 △박의승73 △박일휴61 △박재규56
 △박종택48 △박종효77 △박창용66
 △박태권55 △박태원49 △박태훈78
 △박훈준71 △박황호65 △배무현72
 △배재흠70 △백만기72 △백승욱58
 △백형배47 △변응현66 △서두석71
 △서상기65 △서우원61 △설원길48
 △성낙준74 △성백전52 △성진동75
 △소재천80 △손갑현70 △송병원69

△신건일63 △신상호76 △안상형69
 △양배덕57 △어성준67 △오정일64
 △우상룡72 △원성필75 △원윤상76
 △유관섭78 △유용석68 △윤 백78
 △이경운57 △이계수63 △이계환62
 △이광우73 △이근명63 △이능규69
 △이단형66 △이동춘53 △이무진53
 △이문수72 △이병락68 △이봉환68
 △이상준64 △이상준76 △이상호66
 △이선계65 △이성오78 △이성팔72
 △이승기70 △이영무74 △이용식68
 △이우길63 △이원표72 △이윤표77
 △이의재66 △이장무63 △이정일61
 △이종희67 △이중재64 △이창갑46
 △이필원67 △이한정81 △이희승60
 △임서환67 △임승진71 △장기욱53
 △장길성68 △전상백53 △전윤식71
 △전주흥64 △정순전66 △정익주68
 △정재은57 △정현규83 △조명호78
 △조장현64 △조중희72 △조필제46
 △주영렬72 △차근오76 △차금렬59
 △최상호64 △최영식47 △최영식50
 △최철구66 △최하경79 △최형순65
 △편도권54 △한규택73 △한도석78
 △한형수58 △홍 경67 △홍선표53
 △황은식73 △황이선63 △황익남64
 △황해근54

◆농대 △강종호60 △고현우68
 △곽영철59 △구현수67 △권 관61
 △금태섭73 △김경하71 △김사일53
 △김순규62 △김영섭65 △김정호73
 △김태영82 △김환영74 △류기락81
 △민욱기73 △박래경51 △박승호63
 △박창용65 △석준호55 △신동수55
 △신한풍59 △심용섭70 △안재숙48
 △양봉진71 △왕진무60 △유 석59
 △유병서59 △유부열66 △유이종71
 △유재영58 △유혁근65 △윤석호66
 △윤여홍76 △윤재수63 △이돈구65
 △이동선73 △이무근60 △이미순56
 △이상용61 △이상하56 △이성호71
 △이원태64 △이윤호68 △이재기53
 △이종만75 △이철우61 △이혜근67
 △임봉주65 △전승훈65 △정순오74
 △정우창54 △조병진61 △조종수66
 △조진환50 △최락현61 △최윤재73
 △한상률72 △홍순명68

◆문리대 △강승렴62 △권방웅60
 △권혁방65 △김 구58 △김동선57
 △김상복57 △김상욱68 △김영주70
 △김용성62 △김의경55 △김종진58
 △김태길46 △김현석65 △남기민69
 △도홍길61 △명건식67 △박무익62
 △박부진69 △박의송60 △박재권71
 △박종철61 △방석기62 △배인준70
 △석준형67 △성민선64 △심문규71
 △안상환62 △안소연65 △안취준61
 △여한수55 △이광찬58 △이상무61
 △이영록66 △이인기62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윤54 △이종명65
 △이종환62 △이주영61 △이진희66

△이창복58 △이충희54 △이해남65
 △이홍윤64 △임득호64 △임병석54
 △임형택62 △임희섭55 △정영섭67
 △전종우67 △정무호61 △정소성64
 △정연국64 △조영길58 △조완규48
 △조용철64 △차재억70 △채영수68
 △채치범59 △최경락71 △최종덕52
 △하영식58 △한태길69 △홍성관63
 △홍영남60 △황병선64

◆미대 △노숙자62 △박대순49
 △부현일58 △성기점58 △안종문60
 △이규남82 △이영진54 △전민숙74
 △전영철53

◆법대 △강기중83 △강대석67
 △강동세77 △강태중52 △강희복65
 △고광우53 △김관재71 △김근대63
 △김길중61 △김나복55 △김덕주52
 △김동철61 △김동호56 △김두희58
 △김세돈72 △김영갑74 △김영수65
 △김영우56 △김영일60 △김영철61
 △김용환72 △김용렬59 △김이수72
 △김창복51 △김태경52 △김태조54
 △김평우63 △김현석79 △김형성79
 △김홍식67 △김효종61 △류수열75
 △문영길55 △박 만70 △박경구57
 △박무용64 △박상욱75 △박상일77
 △박성원81 △박승문78 △박영수52
 △박영현69 △박일환69 △박재경57
 △박준서59 △박충근68 △박태훈66
 △박희태57 △배 도53 △백계문73
 △백대현54 △서광하56 △서상수80
 △서석호79 △석광현75 △석동현79
 △선우종원41 △성패문60 △손기식68
 △송상현59 △송언종56 △송재현60
 △신규태56 △신상규68 △심명수63
 △심우영59 △여상훈75 △오경락54
 △오석준80 △오연근76 △원은섭63
 △유해덕53 △유희열63 △윤보목66
 △윤석정67 △이경우76 △이기승68
 △이대경77 △이보환61 △이삼섭68
 △이상주82 △이선우61 △이선우62
 △이성범70 △이신섭62 △이여성73
 △이영기71 △이용훈59 △이인상60
 △이재원77 △이재철70 △이종상54
 △이진우78 △이충호68 △이태창61
 △이효종59 △장명봉63 △장부웅59
 △장세두59 △장준철67 △정경용65
 △정광우61 △정덕장59 △정도출68
 △정문화59 △정성명68 △정세용74
 △정용인60 △조동주53 △조상흠67
 △지관열75 △차수명58 △천인수59
 △최광률54 △최병구67 △최병륜56
 △최병모67 △최석원52 △최세관54
 △최세영60 △최신석59 △최영광59
 △최영도57 △최재형75 △최정현75
 △한진유60 △허 명68 △황병인54
 △황봉환73 △황선태66 △황영구75
 △황영선55 △황이연55 △황창섭53
 ◆사대 △강경돈70 △강봉근67
 △강신포68 △강영삼59 △강한철73
 △곽형기71 △구본형75 △구우영76
 △구인환50 △권혁창69 △김병연69
 △김봉근60 △김상구60 △김성대59
 △김승재71 △김익관67 △김영삼73
 △김영석64 △김용균65 △김용서77
 △김진영65 △김천수63 △김혜원56
 △남상인73 △민경현53 △박규홍69
 △박양수55 △박영민62 △박영오66
 △박인호70 △박정태78 △박찬구56
 △박창수58 △박화영64 △박정애60
 △송태성64 △양금석54 △양남식73

△오윤용⁶⁰ △유경근⁵⁸ △유덕준⁶⁰
△윤규태⁶⁵ △이기영⁶⁸ △이명천⁶⁸
△이복환⁷⁰ △이상경⁶⁵ △이상락⁶⁷
△이성목⁶⁷ △이용수⁷⁷ △이원호⁶⁸
△이재혁⁶³ △이찬근⁷⁴ △이홍식⁶⁸
△장병환⁵² △정갑주⁶⁹ △정봉섭⁶⁵
△정선영⁶³ △정용길⁷⁷ △정은실⁷⁴
△정응근⁶³ △주기성⁷² △최석진⁶³
△최은규⁷⁸ △한기선⁷¹ △홍승직⁴⁹
◆생활대 △문경란⁷⁹ △박성희⁷³
△서혜석⁷³ △손인희⁷² △여의주⁸²
△정태숙⁸⁰ △정해자⁶¹
◆상대 △강웅식⁵⁸ △구분영⁶⁶
△구영보⁶⁹ △권희구⁵⁶ △김경모⁶¹
△김병호⁵⁷ △김상희⁶⁶ △김성규⁵⁷
△김영춘⁷¹ △김영환⁵⁴ △김완기⁴⁶
△김용기⁵⁶ △김인호⁶¹ △김정환⁷¹
△김종서⁵⁸ △김종호⁵⁴ △김중기⁵⁴
△김태겸⁷⁰ △김형영⁵⁶ △나진원⁶⁷
△남상덕⁶⁹ △류종목⁵⁹ △맹정주⁶⁷
△문영도⁵⁰ △박길부⁵⁹ △박영주⁵⁹
△박영호⁶⁷ △박태하⁵⁸ △박호전⁶²
△배경일⁶⁹ △서승원⁶³ △서정도⁶⁶
△선종승⁷¹ △성낙정⁴⁴ △손근홍⁶⁶
△손희균⁴⁶ △신평재⁵⁷ △오일호⁷¹
△위기철⁵⁹ △유원영⁵⁷ △윤석현⁶⁷
△이성구⁶⁰ △이성주⁶² △이순학⁶⁴
△이일훈⁵⁵ △이호유⁵⁴ △이홍주⁶⁰
△임응원⁵⁸ △임종홍⁵⁹ △장덕신⁷¹
△장병구⁶⁴ △정규영⁶⁵ △정인성⁷¹
△정주호⁶⁵ △정대웅⁶⁷ △정형배⁶⁴
△조원구⁶⁴ △조원래⁵⁷ △조중현⁶²
△차태균⁷¹ △최경식⁵⁹ △최남해⁵²
△최동건⁷⁰ △최명규⁴⁶ △최수일⁵⁵
△최종민⁶¹ △황문환⁶⁴
◆수의대 △구연강⁶² △김계방⁶¹
△김상돈⁴⁴ △김창윤⁵³ △박종명⁶¹
△백오섭⁵⁸ △석세조⁵⁰ △안 훈⁵³
△엄영호⁷⁷ △윤화중⁵⁴ △이 준⁶²
△이기주⁶¹ △이상우⁶⁵ △장치훈⁷⁰
△주현식⁷³ △차종상⁵⁶
◆약대 △강석진⁵⁵ △권현욱⁷⁹
△김길수⁶⁰ △김상조⁵⁴ △김성오⁸¹
△김우영⁶⁷ △김인수⁵⁴ △김태근⁷¹
△박승규⁵⁹ △박시우⁶⁹ △박일영⁸⁵
△박준석⁶³ △박준욱⁵⁵ △송창진⁵⁴
△우용렬⁵⁷ △유 연⁷⁰ △유도봉⁶⁶
△윤혜숙⁶² △이순석⁶¹ △이윤하⁷⁷
△이주형⁶⁷ △정연진⁶⁹ △조경일⁶⁴
△조영애⁸² △지상구⁵⁴ △최순만⁶⁷
△최진곤⁷⁷ △한상후⁶⁴
◆음대 △강덕원⁶⁹ △김대환⁸⁹
△김동조⁷³ △김미경⁶⁹ △김봉임⁵⁵
△김수진⁸³ △김현숙⁷⁴ △서한범⁶⁵
△손국임⁶⁴ △신상호⁷⁴ △신수정⁵⁹
△윤혜원⁸¹ △이명희⁶⁸ △이한돈⁶⁵
△최보금⁶⁵
◆의대 △강형룡⁴⁴ △고 훈⁶⁹
△국형철⁷⁶ △김근식⁵³ △김귀윤⁶⁶
△김규환⁸¹ △김명석⁶² △김명호⁶⁸
△김봉석⁸² △김영근⁴³ △김영덕⁶⁴
△김우곤⁵⁵ △김종구⁷⁷ △김종환⁵⁰
△김진호⁷⁵ △김홍규⁶⁵ △김환규⁷⁸
△김희석⁸⁴ △노문진⁹⁰ △문효중⁴⁴
△박병주⁷⁴ △박소배⁷² △박영수⁵⁹
△박은호⁷⁷ △박정범⁶³ △박효일⁵⁸
△서진수⁸³ △선덕영⁴⁹ △송영철⁶³
△신기철⁷⁵ △심달섭⁴⁵ △양승렬⁵¹
△여봉구⁷⁷ △원상희⁷⁵ △유왕성⁷⁵
△윤여규⁷⁵ △이강진⁷⁴ △이건용⁶⁹
△이관희⁷⁵ △이동철⁷⁷ △이민호⁷³

△이승규⁶⁷ △이용국⁵⁹ △전형식⁸¹
△정동철⁵⁴ △정명관⁹¹ △정창생⁶⁶
△조현오⁶⁴ △조근원⁴³ △진용환⁷⁰
△차장일⁶⁴ △최 황⁶³ △최복식⁸⁴
△최승순⁸⁰ △허봉열⁶⁰ △허준평⁷⁰
△홍성환⁷⁶
◆치대 △권오양⁷⁴ △김경원⁸¹
△김규진⁶⁴ △김성은⁸⁶ △김용란⁷⁰
△김정호⁸⁰ △김지호⁵⁹ △김채종⁶⁸
△김한경⁶³ △김홍석⁵⁹ △남수현⁷¹
△남용욱⁵¹ △류남순⁷⁰ △박용준⁵⁴
△박행운⁵⁶ △백순지⁶³ △변기정⁶⁵
△손병화⁶¹ △손한기⁶⁶ △송영호⁵⁷
△양일수⁷³ △유병도⁵⁶ △유영세⁶⁰
△이시우⁵⁹ △이영욱⁷⁶ △이용오⁵⁶
△이진근⁶³ △이형규⁵⁷ △임순모⁷⁰
△전태수⁵⁶ △정광현⁵⁸ △정진용⁷²
△조유동⁵⁵ △주미희⁸² △황의강⁶¹
△황치일⁷⁷
◆대학원 △김승호⁸³ △나카미⁸⁰
△문형근⁷⁹ △박복만⁶⁶ △박정민⁸¹
△이시운⁸¹ △정기화⁷¹ △한희석⁸⁶
◆경대원 △김선대⁷² △김운택⁶⁸
△이홍렬⁷⁰ △조정희⁶⁹
◆교대원 △우정남⁷³ △장석민⁷²
◆보대원 △박원길⁶⁵ △박일영⁷⁹
△박종안⁷²
◆신대원 △유일상⁷⁴
◆행대원 △권영규⁸⁰ △김상돈⁷⁹
△노일숙⁷⁹ △박우순⁷⁶ △양석호⁶⁷
△이시경⁷⁹ △장동운⁶² △차정균⁹⁷
△전홍욱⁸⁴ △최규학⁶³ △현경병⁸⁵
◆환대원 △강우원⁸⁶ △김경윤⁷⁹
△이만의⁷³ △이평재⁷³ △정병한⁶⁹
◆AMP △권오석⁶¹ △김강배⁵⁰
△김건중³⁸ △김재운³¹ △김종영²⁸
△김천수¹⁶ △박수웅³⁹ △박유재⁹
△박인상²⁸ △신성우³² △신정택⁴⁸
△육신학⁵⁷ △이경일⁶¹ △이대봉³⁶
△이원복⁴⁷ △이종철⁵⁶ △이중아³⁷
△장영준⁶² △전용배⁵⁷ △정연근⁵⁸
△천용택³¹ △최강호⁶⁰ △하재준¹¹
△한규범⁴² △황복현⁴⁵
◆AIP △금병찬³² △김경호²³
△김민수¹² △김성길⁷ △김용태³⁰
△김재기¹⁶ △김후근¹⁷ △박양신²⁰
△서영식¹⁵ △안정환¹¹ △이대만²⁴
△주영현¹² △최유환³⁰ △추현식³²
△한승욱²⁷ △현창호³¹ △홍강지³⁰
◆ACAD △강남주⁵⁶ △권상문⁴⁵
△김성은³⁰ △김태영²⁹ △김태완⁴⁴
△박명규⁴⁰ △송봉식⁵² △이달화²⁴
△이영태⁵⁵ △이왕열³³ △이재돈²⁸
△정이조⁴⁸ △주영순⁵⁴ △진강현²⁰
◆ABP △손병웅⁶
◆SGS △김수근² △김영구³
△김영대¹² △박종인⁵ △서선호⁴
△손성오¹² △이창섭⁷ △조성태²
△채일석⁴
◆APC △서정원⁹ △윤종아⁹
△정만모⁹ △함춘조²
◆HPM △김 웅⁶ △김윤하⁵
△김장현⁴ △김재영¹⁸ △김정자²⁰
△노동일⁷ △박천표¹¹ △방금석²
△송정순³ △유문경¹² △윤원진⁶
△이봉애¹⁵ △최병용⁹ △최선희¹⁷
◆AIC △김정구³ △민장홍⁹
△이인기¹¹ △이일로¹ △조정구⁸
◆AFB △박오식⁵ △장재승⁴
△정성모³
◆AMPFRI △조기호¹⁴ △최창혁⁴

◆ACPM △김정식³ △박영미¹
◆GLP △강창석¹⁴ △남재술⁹
△박미례¹⁵ △윤여표¹¹ △이원욱¹¹

일 반

◆인문대 △강상진⁸³ △공종민⁸¹
△구자현⁷⁷ △권영대⁸³ △권태우⁸³
△김경은⁰² △김대환⁸¹ △김순철⁷⁵
△김희정⁸⁵ △남유진⁷² △노지운⁰¹
△노형주⁹⁶ △박종천⁹¹ △배성운⁸⁰
△백승희⁸³ △변성수⁸⁴ △서선령⁸⁷
△서태영⁷⁴ △송재종⁷⁴ △윤다운⁰³
△윤희경⁰¹ △이 건⁵⁹ △이동관⁸³
△이명재⁰⁰ △이왕돈⁷⁵ △이종은⁹²
△이한근⁷³ △이현식⁸⁸ △정말순⁸⁰
△조용일⁸¹ △주영두⁷⁷ △홍미애⁸⁶
△홍재범⁸⁶ △황규학⁸¹ △황진상⁹⁸
△황태순⁷⁸
◆사회대 △강유진⁰¹ △곽동철⁰¹
△권규태⁸⁵ △권순형⁹⁰ △김갑철⁸⁴
△김계수⁸¹ △김서중⁸⁹ △김수호⁹⁴
△김용대⁷³ △김유식⁸⁴ △김종민⁷⁴
△김진기⁸² △김홍석⁸³ △김환일⁰²
△남기섭⁷⁶ △노영화⁸⁸ △노창현⁸⁷
△류현욱⁰¹ △박 철⁸¹ △박기훈⁹⁷
△박은형⁰³ △박재진⁸⁹ △박준서⁸⁰
△박찬웅⁰⁰ △배세환⁹⁶ △변희구⁹⁰
△상지원⁸⁶ △석태수⁷³ △손건수⁸³
△송기호⁸² △송현종⁸³ △신지이⁰³
△안규배⁸¹ △유상하⁸⁷ △유진권⁷³
△유형웅⁰³ △윤광기⁹⁰ △이경덕⁷⁴
△이기선⁸⁴ △이동환⁸⁴ △이영진⁹¹
△이재하⁸¹ △이주희⁹⁷ △이창우⁰¹
△이한규⁹² △임재금⁹⁴ △장철호⁸³
△전종호⁸⁹ △전형남⁸¹ △정기철⁷³
△정삼봉⁷³ △정석영⁸⁶ △정신동⁸⁴
△정용진⁹⁸ △정재원⁰¹ △정총기⁸¹
△정희권⁰¹ △주용우⁸⁶ △진정균⁹⁹
△최창호⁸⁶ △하규봉⁰⁰ △하창원⁸³
△한창욱⁹² △허신형⁰¹ △홍경표⁸³
△홍재배⁹⁹ △황영수⁷⁷
◆자연대 △고연진⁰⁴ △구형모⁸⁸
△김기표⁰⁰ △김남우⁰³ △김수경⁷³
△김우신⁰⁴ △김정희⁰¹ △김지환⁹⁶
△김태훈⁹⁹ △노동진⁸⁹ △노용하⁷⁸
△문종섭⁷⁷ △박수희⁸⁶ △박정환⁸³
△박주현⁰⁰ △박진섭⁰⁰ △박혜령⁰⁰
△백병학⁷² △서민호⁸¹ △서정석⁰⁶
△성민정⁰⁴ △손병용⁶⁸ △신형진⁰⁰
△양용성⁸⁶ △유정민⁰⁴ △이경임⁰⁴
△이세민⁰² △이순열⁷⁹ △임완중⁸⁷
△임태순⁷⁹ △장영재⁹² △장종민⁷²
△정기영⁸⁰ △정병문⁸³ △정사원⁸¹
△정지범⁰⁴ △정현주⁰³ △최사훈⁹⁸
△최 한⁹⁹ △최성배⁹⁹ △최철호⁸³
△함승우⁸⁴ △허익수⁰⁰ △홍한솔⁰³
△홍호정⁰⁴ △황동규⁸⁴
◆간호대 △고혜명⁶⁵ △곽향자⁷⁵
△권오점⁵⁶ △김수은⁰³ △김시정⁹⁵
△김재희⁸⁴ △오두남⁸⁹ △윤미여⁷⁶
△이경숙⁸² △이금라⁷⁰ △이인실⁰⁴
△이한나⁹⁹ △조결자⁶² △한영자⁶⁶
△허성이⁸³ △황애영⁶⁸
◆경영대 △강민선⁸³ △강왕수⁸⁴
△고광호⁸⁵ △고주환⁰¹ △고희라⁹⁹
△고희원⁹⁷ △김광섭⁹⁵ △김태진⁹⁰
△김해현⁰² △김형희⁸⁶ △민병일⁹⁹
△박기준⁸⁵ △서학수⁸² △송요신⁷⁶
△송호찬⁷⁸ △신윤경⁰⁶ △신윤철⁷⁰

△신진창⁸⁸ △심규진⁹³ △오대훈⁰¹
△오선영⁸³ △원대로⁹¹ △이 준⁰⁰
△이상철⁹⁵ △이지선⁹⁹ △임유민⁰⁴
△장보훈⁸³ △장상용⁷² △정순암⁸²
△조성윤⁷⁶ △추연식⁹⁹ △한대성⁰⁰
▲공대 △강무치⁶⁸ △강병기⁵¹
△강성수⁵⁷ △강수민⁹⁴ △고윤기⁰⁴
△고재선⁵² △고형석⁸⁵ △곽광록⁹⁸
△곽노산⁰¹ △곽삼진⁵² △곽태균⁶⁷
△구자진⁷⁶ △권덕황⁰⁴ △권민규⁰⁴
△권봉수⁶² △권순영⁵² △권오석⁶⁰
△권혁선⁷² △권희덕⁷¹ △김경석⁶⁶
△김광준⁷³ △김규남⁴⁷ △김기아⁹⁴
△김대균⁶⁰ △김대웅⁶¹ △김대원⁰³
△김동화⁰³ △김명수⁷³ △김명호⁶⁹
△김법규⁰² △김병제⁵² △김상용⁵⁴
△김선구⁷¹ △김성권⁹⁷ △김성기⁸⁰
△김성찬⁵⁶ △김성태⁸⁶ △김성호⁰²
△김세중⁰⁵ △김순모⁵⁶ △김영길⁶⁰
△김영식⁷² △김용근⁶⁰ △김용민⁶⁶
△김용진⁰⁶ △김원태⁵⁶ △김윤제⁶²
△김응호⁷⁰ △김재봉⁶⁹ △김재수⁹¹
△김재일⁷⁷ △김재환⁵⁴ △김정덕⁶⁹
△김정철⁵⁵ △김종린⁶⁸ △김종오⁷⁶
△김종민⁶⁸ △김종채⁵⁵ △김주영⁵⁵
△김주용⁵⁸ △김주찬⁷⁵ △김준영⁰⁴
△김준철⁶¹ △김준호⁰² △김진기⁸⁷
△김창규⁴⁶ △김창순⁷¹ △김천주⁵⁷
△김천환⁶⁵ △김철순⁵³ △김철호⁸⁵
△김태병⁸⁶ △김태영⁰¹ △김태한⁰⁰
△김태형⁹⁴ △김학성⁸⁵ △김한길⁸⁵
△김현중⁰³ △김홍근⁷⁶ △김희중⁰²
△나선홍⁰⁴ △나세윤⁰³ △나영욱⁷³
△나형주⁷³ △노승규⁸² △노진호⁰⁰
△노홍호⁴⁸ △류철호⁶⁷ △류한수⁰¹
△모중환⁰¹ △문 광⁷⁰ △문제춘⁷¹
△민철기⁵⁶ △박 훈⁶³ △박규상⁰⁴
△박대동⁰⁴ △박동성⁵⁷ △박범기⁹⁵
△박병선⁰³ △박봉엽⁷¹ △박선형⁰⁰
△박성용⁹⁷ △박승엽⁴⁶ △박용기⁷¹
△박은영⁰⁶ △박일훈⁸⁹ △박재원⁸²
△박정주⁷⁸ △박정훈⁰¹ △박주영⁰³
△박준현⁰³ △박한조⁰⁰ △박형순⁶⁰
△박화철⁵⁸ △박희웅⁸⁹ △방우섭⁵⁹
△배무호⁸² △배재훈⁰¹ △배종국⁷⁴
△배형호⁹⁵ △백남식⁶⁸ △백남주⁴⁸
△백두산⁹⁴ △백선욱⁶² △백성기⁶⁷
△백성환⁴⁸ △서성우⁰⁰ △서용운⁰³
△서정훈⁹⁷ △성호용⁰³ △손세근⁷⁴
△송수영⁵¹ △송창원⁶² △송한섭⁵¹
△신대욱⁰⁴ △신재기⁷⁹ △신지수⁴⁵
△신현길⁶⁹ △심창생⁶⁰ △심풍수⁷⁶
△안상록⁶⁸ △안재봉⁷⁹ △안정욱⁰²
△안창범⁷⁹ △양동률⁵⁰ △양동열⁶⁹
△양배근⁸² △양은진⁰⁴ △양인철⁶⁴
△양정일⁰⁰ △양희진⁰² △염태석⁶⁵
△염희택⁴⁶ △오 훈⁹⁵ △오성목⁰⁴
△오장훈⁹⁷ △오치재⁷⁰ △우경호⁷⁸
△우병철⁵⁸ △우종민⁹⁷ △원제혁⁵⁸
△원종석⁰⁴ △유관호⁰¹ △유봉환⁵⁶
△유성선⁸¹ △유심덕⁶¹ △유인봉⁵⁵
△유태근⁰⁴ △유태용⁵⁰ △육광수⁴⁶
△윤기상⁹⁵ △윤상철⁵¹ △윤석호⁵¹
△윤일권⁹⁰ △윤한상⁴⁹ △윤혜림⁸⁷
△이경태⁵³ △이광제⁶⁷ △이국로⁸⁰
△이규봉⁷⁴ △이규재⁴⁴ △이기화⁵³
△이낙주⁴⁷ △이도현⁰⁴ △이동희⁸⁵
△이민중⁷⁹ △이복영⁵⁵ △이봉희⁷³
△이상길⁰¹ △이상린⁵⁵ △이상우⁰⁴
△이상현⁰¹ △이성렬⁴⁵ △이승훈⁰²
△이양훈⁸⁶ △이영근⁵⁴ △이영민⁸³

△이영배⁵² △이영희⁷² △이왕근⁹⁰
△이우성⁹⁰ △이육상⁷² △이원구⁸⁵
△이의남⁶² △이인태⁵³ △이일환⁵⁵
△이정원⁹⁹ △이재욱⁹⁷ △이정민⁵²
△이정욱⁹⁹ △이정준⁰¹ △이제근⁵⁶
△이종근⁴⁸ △이종수⁶⁵ △이준환⁵²
△이지환⁰⁴ △이진기⁴⁶ △이진형⁷⁴
△이창우⁷⁶ △이창주⁹⁷ △이창준⁰¹
△이한봉⁵² △이한수⁵³ △이해균⁹¹
△이현석⁹⁹ △이호영⁰⁴ △이호정⁰⁰
△이화준⁶⁹ △이환계⁷² △이훈민⁷³
△이흥복⁹³ △이희국⁷⁰ △이희영⁸⁹
△임갑혁⁶⁹ △임동조⁷¹ △임용택⁵⁵
△임효빈⁶¹ △장경현⁷⁷ △장기주⁴⁷
△장동찬⁹³ △장민석⁹² △장석호⁶⁵
△장수경⁷⁸ △장영식⁵⁵ △장재우⁸⁰
△전상수⁷² △전창선⁵⁸ △정 윤⁷⁶
△정 훈⁵³ △정강민⁶⁷ △정경훈⁹⁵
△정규홍⁸² △정백기⁷⁸ △정보현⁰¹
△정상구⁷³ △정숙철⁵⁸ △정영일⁶²
△정원영⁴⁸ △정인식⁷⁴ △정진태⁸⁰
△정태영⁷³ △조무제⁸⁷ △조민욱⁰²
△조상규⁶⁴ △조열리⁰⁴ △조재열⁸⁹
△조철제⁵⁷ △조현우⁰⁰ △주경재⁵³
△주기만⁶⁴ △진선용⁰⁰ △진은석⁹¹
△진행섭⁶⁶ △전두만⁹⁵ △최 근⁰²
△최 탄⁶² △최규식⁰⁰ △최동신⁰¹
△최동혁⁰⁵ △최상호⁷⁵ △최수홍⁰⁶
△최승관⁷³ △최원봉⁶⁹ △최재호⁶⁵
△최정립⁵³ △최정우⁰³ △최정혜⁸⁶
△최준영⁸² △최준용⁰¹ △최현진⁰⁴
△최호근⁸³ △편영준⁷⁷ △하경표⁸⁹
△하태광⁸⁴ △한 열⁶¹ △한건우⁵⁵
△한동수⁷⁸ △한두욱⁷⁵ △한재소⁶⁶
△한태영⁹⁵ △함성일⁰² △허 정⁹⁶
△허광열⁰⁵ △홍영진⁷¹ △홍헌성⁷²
△황창정⁵⁹ △황해룡⁷⁴
◆농대 △강경원⁵² △강문주⁴⁵
△강민구⁹⁹ △강병석⁷⁰ △강원우⁶⁰
△강인목⁵⁴ △강희완⁶⁴ △공대우⁰³
△공민영⁰⁵ △곽은주⁹⁷ △권원중⁵⁶
△권정혁⁶⁰ △금방용⁸⁵ △기상서⁸⁴
△김 현⁵⁸ △김기현⁸⁸ △김동민⁰⁰
△김두만⁵² △김무겸⁴⁹ △김문수⁵⁴
△김봉수⁹⁸ △김삼식⁵³ △김상후⁶⁴
△김수영⁵⁹ △김수진⁰³ △김숙자⁶²
△김영상⁵⁸ △김영채⁶⁵ △김용득⁷¹
△김용찬⁵⁷ △김용환⁷⁷ △김용훈⁷²
△김우석⁶⁴ △김옥생⁶² △김원달⁶⁷
△김원문⁶⁷ △김원보⁷³ △김원훈⁴⁹
△김의도⁸⁷ △김인수⁶⁷ △김일희⁵²
△김정교⁴⁹ △김종성⁵⁵ △김종언⁹¹
△김종천⁵³ △김준호⁰¹ △김진수⁷⁰
△김진웅⁶⁰ △김채훈⁰⁴ △김태유⁰⁴
△김학원⁷⁷

△유영준59 △유중철57 △윤동면65
△윤상진69 △윤상철80 △윤여승83
△윤정원85 △이건우52 △이경영92
△이경월61 △이기복53 △이대직48
△이동구66 △이동열01 △이명남63
△이민재57 △이범재65 △이병희69
△이상직56 △이석우59 △이세표55
△이수옥55 △이연주01 △이우인78
△이원희50 △이의숙57 △이재형66
△이정남61 △이종태64 △이중택76
△이중호00 △이중훈48 △이지원80
△이학로65 △이현우51 △이형구61
△이희근65 △이희영50 △인치웅54
△장경우97 △장용인70 △장윤환54
△전우방55 △전현기64 △정구현53
△정도섭57 △정돈철68 △정동성57
△정무남62 △정영진01 △정용복51
△정정택70 △정주영87 △정태원57
△정해영66 △조규택86 △조준기54
△천기길57 △최동균56 △최동준73
△최동환75 △최무재53 △최병환60
△최성규58 △최재용93 △하맹종58
△하병찬87 △하성훈86 △하현팔68
△한기학52 △한태수65 △한해룡55
△허문도57 △허정수60 △홍영기81
△홍정선06 △황용진56 △황재순70
△황철갑55 △황태상01
◆문리대 △강기진63 △강병순59
△김기중59 △김명정64 △김상욱61
△김생기59 △김선리64 △김시창63
△김영기51 △김영기59 △김영식64
△김종휘62 △김찬근69 △남기흥67
△노동일68 △도태균63 △목영진63
△박기영67 △박대일61 △박성철48
△박영순68 △박용오70 △박용환62
△박인국71 △박지용45 △박창남48
△방병채60 △배성동56 △백제현48
△변광수65 △변창명56 △서광식59
△서기원57 △서일환55 △송연달67
△송태호65 △신현식56 △신호순49
△심사수54 △안남순54 △안사균47
△양 원55 △양천식69 △양호민45
△오현승65 △우성식71 △원이숙54
△유정열52 △유지현67 △윤영호70
△이 순55 △이극찬46 △이맹복64
△이사계58 △이상근55 △이상택61
△이양길60 △이영근67 △이영복52

△이영준67 △이용길62 △이정배56
△이종혁51 △이주홍62 △이춘기54
△이희경59 △임동규55 △장구영74
△전성철69 △정봉택50 △정서구65
△정옥희56 △정대식56 △정태훈53
△정한택46 △조봉계61 △조영수64
△조원홍71 △주순호51 △지정택70
△최 홍66 △최동진54 △최연대53
△최연상56 △최재원65 △최흥전53
△허두표60 △허영옥59 △홍승호59
△황경구57
◆미대 △김근배55 △김병욱48
△김영희78 △김용진79 △김춘자62
△김혜림81 △김희춘62 △노명자63
△박석환53 △박연도56 △박은경74
△박종규69 △박한진57 △박햇살03
△송민정04 △양해연05 △원묘희59
△유신혜83 △유영일83 △윤옥진64
△윤지학96 △이경림86 △이상은86
△이운식56 △정형석99 △정의철86
△조봉구78 △주진희74 △채응준81
△현숙자56 △홍경희66
◆법대 △강군우67 △강상구02
△강형춘54 △강효상81 △공도식55
△구운희58 △권용근81 △권지용48
△김 욱86 △김 훈85 △김건식73
△김광현54 △김국열92 △김기동83
△김기성60 △김기현57 △김동혁93
△김범수82 △김병화74 △김봉수66
△김상구55 △김상호72 △김선병81
△김성수96 △김순구58 △김오수83
△김용제53 △김의환81 △김인중56
△김장원02 △김재구68 △김정기75
△김정렬54 △김종식68 △김진병85
△김찬동50 △김철수90 △김태병85
△김태현84 △김학용56 △김해산57
△나민수78 △남기룡56 △남문우55
△노영구51 △노용희48 △류소열70
△문태길61 △민예순56 △박상형48
△박연철68 △박우순58 △박인환51
△박재태81 △박종국65 △박종태84
△박철희92 △박형남78 △방국성74
△배성범80 △배종만56 △백인기56
△봉 욱84 △봉종현57 △사부성61
△서고운00 △서범수93 △성지용82
△손영재81 △송기영69 △송용식51
△송진원59 △신동민99 △신장윤00

△안경수99 △안기선96 △안병익88
△안재식57 △안창식53 △양수일62
△양승상56 △양정석57 △오병주75
△오영수50 △오정돈79 △오치룡65
△유병환77 △유석원82 △유원석59
△유홍섭78 △윤석상82 △윤신승88
△윤의선58 △이 립82 △이건방62
△이광만81 △이광철65 △이권형00
△이기중70 △이대웅97 △이덕모71
△이미희00 △이민재72 △이병무57
△이사철71 △이상근74 △이상철79
△이석호02 △이양원78 △이영의59
△이용범58 △이원기81 △이원섭59
△이종문56 △이준보80 △이현복93
△이흥권87 △임동철68 △임무룡60
△임상현59 △임승환67 △장 호67
△장민순55 △장석주55 △장영석95
△장인종82 △장준봉55 △전병관84
△전수성66 △전수일58 △전승호86
△전오영82 △정 협99 △정기돈78
△정동현99 △정서용86 △정수영53
△정영일73 △정용달81 △정인숙81
△정해방69 △정현기03 △정현수75
△정혜경03 △조경래51 △조근석77
△조두현49 △조봉균58 △조성제85
△조영동57 △조영언02 △조영준83
△조재호69 △조형복03 △조훈갑00
△조희대75 △지영남86 △최강호67
△최선재02 △최성룡02 △최수지02
△최영기48 △하윤홍80 △한상술58
△허 군49 △허만조64 △현휘남57
△호영진56 △흥기인55 △홍일표63
△홍진영00
◆사대 △고옥순41 △구본식70
△구사용51 △권 군61 △김계연68
△김광진41 △김길중48 △김다림95
△김동균63 △김문수71 △김병욱69
△김봉민53 △김성태69 △김수자68
△김순동56 △김영애39 △김영은02
△김예슬04 △김용복57 △김재철71
△김종석55 △김준호50 △김중호60
△김증자61 △김지숙03 △김지은74
△김지현02 △김진홍64 △김찬규83
△김찬기76 △김창열72 △김형주50
△김혜우64 △김희분50 △나고찬52
△나일남73 △민선애04 △민혜식52
△박경돈75 △박규원71 △박기열52

△박상필76 △박순애50 △박정숙66
△박정자54 △박종식74 △박진길60
△박춘진57 △방재근62 △배운경04
△백남수45 △변법식86 △변재용59
△봉정모72 △성하경56 △송복주53
△송장섭69 △신일윤66 △신찬우48
△신태우58 △안양옥75 △안영숙52
△안종환55 △엄유선86 △오경자52
△오수량62 △우정애00 △유명선67
△유상주58 △유석렬58 △윤영준84
△윤희숙57 △윤희옥60 △이광렬56
△이광정67 △이기충55 △이길오73
△이대규57 △이매기87 △이무일63
△이병순67 △이상옥51 △이상철59
△이상희04 △이석주60 △이성진53
△이세현55 △이승우61 △이왕근66
△이윤상69 △이은희92 △이인재04
△이일화00 △이재만52 △이정태55
△이종현05 △이준형77 △이현택53
△임상순60 △임은주04 △임학수69
△임홍선53 △전팔근47 △정구옥49
△정국진40 △정기숙55 △정봉우79
△정은혜02 △정은호59 △정의상55
△정인상72 △정창권88 △제옥례33
△조경오75 △조길준56 △조민식55
△조정휘60 △조주현04 △주상훈02
△주윤수66 △진쾌현56 △최계숙52
△최성을74 △최수현81 △최영춘57
△최용섭54 △최익규50 △최정림62
△최정현64 △최종진64 △추성구48
△하영준56 △하태부82 △한경열04
△허광옥59 △홍은경54 △홍한종01
△황광수56 △황석근51 △황세열49
△황종복66
◆상대 △강 욱56 △강남언58
△강상기53 △강정구61 △강좌희55
△강진우52 △김경원58 △김규석55
△김규현52 △김선태62 △김용술56
△김웅태53 △김이규50 △김정웅60
△김종원56 △김종현55 △김천기62
△김한오53 △김홍배63 △김흥배66
△문무상54 △문학모58 △민병훈56
△박경수59 △박동순57 △박명배64
△박용만69 △박용희53 △박종달58
△박진화55 △백지근49 △변형윤45
△서규상53 △설 유64 △설동욱62
△소구영58 △손경수56 △손성철50

△신기범61 △신해철69 △신후성55
△심형섭57 △안기봉55 △안영목57
△양재국50 △양재욱53 △염재현65
△예종호54 △오길영42 △오정현54
△원한영56 △유명희57 △유재윤68
△윤가현52 △윤승두43 △윤영원55
△이강천71 △이건재52 △이경모52
△이계식56 △이규찬55 △이길호55
△이동대57 △이동수59 △이상언59
△이중희45 △이찬구56 △이태종50
△이한선70 △이한웅54 △이홍근70
△임동승56 △임한석59 △장기선66
△전재송48 △정문화71 △정하용65
△정해운46 △조관호56 △조규용53
△조기완65 △조남성71 △조석조44
△조성일62 △조한영43 △진영수63
△채광옥63 △채수한56 △최기종44
△최윤식55 △최재혁49 △최처락54
△추준석67 △하지명48 △한정복66
△허병우66 △허재경56 △허재원56
△홍구희57 △홍동엽58
◆생활대 △김경애70 △김소예03
△김영미83 △김혜경77 △김희형78
△박미연04 △배운정03 △서병숙55
△안은정03 △이민선02 △이지혜01
△임영순85 △임정빈61 △정승희06
△정해리03 △조정자61 △조진희80
△최고은03 △홍윤정91
◆수의대 △강석주55 △고익식56
△구용회51 △권순호53 △김명중59
△김민정04 △김세은01 △김정훈62
△김형석97 △남궁선57 △박유순63
△백영환56 △신현덕80 △우창현75
△원문상60 △유리경83 △유한상78
△윤태걸58 △이장탁45 △임춘기77
△정심호88 △정진화52 △조병왕61
△조수식52 △조용호83 △최영식61
△최윤주00 △허정희60 △홍종수55
◆약대 △강내영82 △강대흥51
△강삼식65 △강순철59 △고은숙83
△김광일46 △김승대81 △김영길61
△김종국62 △김현욱57 △김혜자55
△김홍숙73 △나명철69 △남기혁52
△문선희87 △문창규59 △박경립70
△박정애04 △손공렬52 △손호영06
△양순애95 △오병무62 △오익상69
△유종훈82 △윤여상57 △윤희중57

△이동약57 △이삼수80 △이상구58
△이성민06 △이수정90 △이승하74
△이용화62 △이혜빈58 △이형천85
△임준형00 △전대웅77 △전정숙57
△정인명49 △정현경83 △조은정00
△조중현68 △최수일65 △최인영03
△한영희65 △홍순태67
◆음대 △강상미98 △곽은영82
△권혁남58 △권혜란99 △김 진81
△김민자66 △김정희04 △김지윤93
△김현정02 △김효진99 △문명자63
△박명춘76 △박수전71 △박효경65
△서계순63 △안종덕81 △유새롬04
△윤승현87 △이상렬84 △이선아00
△이신희70 △이윤정04 △이윤주89
△이은호68 △이정아84 △이정현97
△이종국59 △이태운00 △이효주04
△장창환58 △장광준72 △정이와03
△정홍자61 △홍성연03 △황수아98
△황순빈95
◆의대 △구본술50 △권선주94
△권영길47 △김 윤62 △김관엽53
△김길중06 △김득구50 △김병철85
△김승철82 △김영일90 △김웅흠73
△김진국52 △김장기89 △김한섭44
△김혜리04 △노관택49 △노용준04
△도병욱83 △문명선52 △문채구53
△민법준04 △박성근89 △박순일51
△박용섭56 △박재현86 △박효은00
△백성현56 △백승기83 △서중배85
△신용찬54 △신희경04 △오준호45
△왕영종54 △위봉애80 △위정봉56
△유방환55 △유영진54 △유재훈42
△윤주영01 △이명춘83 △이범구73
△이수동68 △이승남76 △이정석04
△이종호81 △이준걸88 △임재인96
△임정기68 △장이찬79 △정 석04
△정구현44 △정상봉95 △정연철85
△정응남50 △정진엽73 △정진우45
△정해철76 △조광수47 △조일균55
△최영길53 △최영호86 △최용석82
△최창욱54 △최효정04 △최희욱51
△한인교66
◆치대 △고석호82 △구옥경62
△권오균71 △김 인82 △김공배58
△김기달74 △김봉환80 △김승현98
△김연만55 △김영규48 △김영수57
△김용식82 △김용철63 △김유진68
△김정우04 △김종배58 △김진홍78
△김철위57 △김휘철77 △나병선69
△남창희87 △노지섭45 △목길수73
△박건배70 △박경정69 △박기호57
△박동귀55 △박인욱83 △박종만69
△박종욱80 △박중훈50 △서가진79
△서성구74 △서정일99 △성영환59
△손영경86 △송병욱65 △송정의77
△신영민97 △심경숙81 △양무도70
△유치린58 △윤동호80 △윤임도72
△윤철민82 △이가은01 △이경모76
△이관우91 △이상표77 △이성출70
△이영희56 △이완수53 △이의웅59
△이점식61 △이지윤06 △임장섭54
△조상범62 △최동광62 △최인선82
△최재인75 △홍성익54 △홍정임87
△홍현종82
◆대학원 △강 욱88 △김경진84
△김기혁85 △김문협68 △김백철02
△김우태86 △모수미75 △박용현92
△신동수92 △안홍렬79 △유장훈86
△이규동95 △이송근89 △이충우84
△정태우78 △조석준57 △진선주69

△최정욱79 △최천석77 △추용식91
△황재환92
◆경대원 △고창석71 △박정남69
△유진성66 △조혜규91
◆교대원 △이상길70
◆국대원 △김종민03 △엄혜원05
◆보대원 △김귀향79 △김정인05
△김학기76 △김홍은76 △박영주87
△방욱근85 △백운석93 △신금호72
△여현태65 △이수형01 △지경희06
◆신대원 △유종일72 △이준우73
◆행대원 △김민정06 △강성원68
△강인준71 △기노진87 △김경섭73
△김상국72 △김석균92 △박성일86
△박재석71 △박정훈59 △서일수67
△송종면64 △신호현84 △심윤수81
△안병주67 △이기선84 △이동춘70
△인호석02 △임세환71 △장성호85
△정준석82 △조미진05 △최석식83
◆현대원 △강덕원85 △김 석02
△김성중82 △김연명85 △신언교87
△안대환99 △윤종식89 △이수길89
△이정택02
◆AMP △강신도61 △강원채1
△고상환9 △고정웅40 △권영제62
△김경덕18 △김광수45 △김기석64
△김병오36 △김선홍14 △김성섭47
△김성환25 △김영훈49 △김우평55
△김을재45 △김정국14 △김종길29
△김진배57 △김철환5 △김태웅48
△김홍두53 △남운우51 △노영돈64
△류근환10 △류동현57 △민경배31
△박성규15 △박영민62 △박영수33
△박은숙41 △박인석53 △박재근64
△박재상6 △박종구21 △박찬영61
△박치현15 △박학경47 △배석두36
△배승엽50 △배신호34 △백운광9
△백정기4 △서준희63 △서호근60
△성백환36 △성영창26 △성평건25
△송병진44 △송준섭63 △신동대35
△신명철8 △안복현41 △양석승63
△염수한10 △오동빈22 △우상우18
△유병창53 △유부웅46 △유상욱39
△유진석32 △윤석규62 △윤성민13
△윤순광64 △이상갑25 △이석범31
△이순구63 △이승휘49 △이원호43
△이윤로50 △이정희64 △이종환7
△이춘호46 △이한국13 △이현종26
△장원기62 △정운대64 △정재성7
△정철길61 △정형택6 △정희원60
△조기행63 △조봉구19 △최병택6
△최인호12 △한건우26 △한석봉20
△한종희28 △황기연52
◆AIP △계명제22 △권영익19
△김계동36 △김광철34 △김기원38
△김동수38 △김민아38 △김병철38
△김수기14 △김익모23 △김지년38
△김해식38 △김형우8 △나재암7
△남귀현3 △문규원10 △박만홍38
△박영욱38 △박창환38 △배춘렬38
△서영국38 △서영복19 △석도길26
△성대영33 △성영창38 △송세현31
△신강준38 △신정식13 △심영복38
△안병수9 △안주현37 △이석우36
△이선규38 △이육수15 △이인창35
△이재서11 △이재천24 △이창범22
△이창욱38 △장영규25 △전세현38
△전종택16 △정병철10 △조동기33
△조병제33 △조우장33 △채수만9
△최익선25 △최종세34 △황구연38
◆ACAD △김기봉50 △김낙기63

△김동일42 △김동찬18 △김득만12
△김수중5 △김승영43 △김영민58
△김용기64 △노정기36 △류근환13
△서대일37 △안승우38 △안신환34
△안영기30 △유갑종24 △유병국30
△유영우35 △윤학수64 △이경우37
△이광석64 △이범진48 △이성철33
△이영희57 △이은홍48 △이재복21
△이종정61 △전영배5 △정민근62
△정하철52 △조옥식16 △지태욱20
△진인권28 △최상철36 △최상필31
◆ABP △구태근7 △김동연30
△박원욱22 △변정섭14 △서승원3
△양관석20 △양종하19 △유충열29
△윤호연30 △이용범28 △전정택18
△한준근13
◆SGS △원창호14 △윤 건4
△이항구8 △임득현6 △정명교9
△차원갑5 △최상석2 △황병돈11
△황정식2
◆CHCN △김향숙10
◆APC △강석훈1 △김상규6
△도창환1 △손일근3 △양희승8
△임광수1 △정규원7 △홍기만3
◆HPM △권부욱1 △김종대16
△나재철16 △박태화20 △신철화13
△양동근12 △이상복5 △이상복16
△이은정14 △이정현9 △이창하16
△임일규1 △정승혜19 △정지문14
△정지행5 △조용선12 △홍의표9
◆AMPP △김대모6 △김영배8

△김인신6 △김종대4 △엄재구6
△이상만7 △진노식4 △한재순7
◆AIC △고창규23 △구자영10
△김인기2 △민홍식23 △박승춘15
△이세한11 △임진환7 △장영규23
△조규원10 △조한수1
◆AFB △김숙희7 △김용식7
△신명호7 △이용환7 △전응식3
△정재민5 △최영기3 △현수용6
◆AMPFRI △강정목9 △강태호22
△구본건1 △권 순4 △권혁원22
△김미정19 △김종은19 △김종진22
△김태배3 △서재용22 △신연경22
△원범희14 △이기선12 △이종무11
△이창복22 △지일산22
◆ACPM △김순영3 △김유진3
△김일택4 △김종호4 △김현란4
△남준우4 △문경욱4 △박주상4
△송경섭4 △신희돈3 △안홍수3
△유선근4 △이동엽1 △이문표4
△이용덕4 △장기창3 △장진근4
△정연문4 △진성의4 △최재영2
△한승구4 △홍만수4 △황보연4
◆GLP △강대구9 △공정범12
△곽창근3 △권덕수15 △김강호4
△김일연11 △석수경10 △신동욱9
△이동향9 △이승구15 △이정우13
△이창의14 △이희준12
◆ALP △권영찬4 △박용주6
△변 강2 △부봉훈2 △이동기4
△임영철5 △조용만3 △차원진3

◆SPARC △강도영10 △강순희10
△고은영9 △구덕모4 △구재홍9
△권형우9 △김 건8 △김남호10
△김병만2 △김성수1 △김수형4
△김영석5 △김용환9 △김유경2
△김인환2 △김일환9 △김정숙10
△김치동9 △김태근6 △김학성6
△김효경9 △나경환4 △노창호10
△류용열10 △문동준9 △문형철4
△박기선10 △박명식10 △박재구9
△박진숙9 △박찬원4 △백한미10
△변상남10 △서순욱6 △송종오9
△신권식10 △연일환10 △오준서4
△오진호9 △유근종10 △윤석구10
△이 선9 △이문구4 △이성영5
△이연숙4 △이영석4 △이원철7
△이의시9 △이환채6 △전계조10
△정무신5 △정수종6 △정운호9
△조상해6 △조영운7 △조종일10
△지정규10 △최광종6 △최종진9
△최지윤9 △최평규4 △최혜순10
△황 철7 △황수봉1

6 월 계 : 140,460,000원
평생회비 : 48,400,000원
입 회 비 : 830,000원
총 계 : 1,039,840,170원



서울대학교 總同窓會

바둑특집

참여 · 협력 · 영광 | www.snua.or.kr

주관: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702-2233 | 팩스:703-0755 | 발행:(주)한우리SJM 전화.2264-2114

제5회 (2008년 7월 6일 일요일)

서울대학교 동문 바둑대회



운영
위원회

대회장 임광수(동창회장), 이장무(모교 총장) / 운영위원장 손일근(상임부회장)

운영위원 박치문(중앙일보 전문위원), 신병식(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신현웅(동창회 부회장), 이정재(모교 학생처장), 허 선(동창회 사무총장), 홍종현(프로9단) (가나다순)

심판위원장 홍종현 사범 / 심판위원 남치형(명지대 교수 · 프로 초단)

개 회 사



임 광 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尊敬하는 李長茂 總長님과 敎職員 여러분, 그리고 先後輩 同門 여러분,

오늘 先後輩間에 友情을 나누며 對話의 場이 될 第5回 同門 바둑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生覺합니다.

바둑을 가리켜 좌은(坐隱)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 곳에서나 바둑판과 마주 앉으면 世上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은둔(隱遁)의 境地에 沒入한다는 뜻이며, 위기십결(圍棋十訣)中 신물경속(慎勿輕速)은 바둑을 輕率히

빨리 두지 말고 慎重히 한 수 한 수 잘 生覺 하면서 두라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께서도 아름다운 母校의 캠퍼스에서 바둑의 매력에 빠져 餘裕를 가지고 느긋하게 멋진 勝負를 通해 自身과의 싸움에서 勝利하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뜻 깊은 時間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大會가 單純한 親睦모임의 次元을 넘어서 우리를 길러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母校에 對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고 世界 名門大學으로 나아가는 母校에 寄與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眞摯하게 生覺해 보는 機會가 될 수 있다면 錦上添花라고 生覺합니다.

그동안 母校의 名譽를 빛내준 많은 先後輩 同門과 이 나라의 次世代 指導者가 될 後輩 在學生들이 함께 어우러져 바둑을 둬으로써 先輩는 後輩에게 아낌없는 助言과 激勵을 해주고 後輩는 先輩의 발자취에 귀를 기울이며 더 큰 人材로 成長하겠다는 覺悟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期待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사랑하는 同門 여러분!

저는 이 時點에서 母校의 일을 生覺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母校는 우리나라에서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學問의 殿堂으로서의 地位를 누려온 것이 事實이지만 現 位置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世界 10位圈 名門大學을 指向하자면 同門들의 支援과 協助가 絶對적으로 필요한 轉換點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同門님들께서 母校에 少額이라도 發展基金을 出捐해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總同窓會의 力點事業인 獎學빌딩 建立 事業은 그동안 5千餘 同門의 愛情어린 參與로 建立基金募金の 當初 目標額이 거의 達成되는 時點에서 또 하나의 기쁜 消息은, 그동안 不動產 市場의 變化 등이 加勢한 結果, 完工되면 獎學빌딩 時價가 千億원을 上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同窓會의 各種 모임마다 많은 同門이 參與해주시고 財産

도 1千億을 上廻하는 會館을 갖게 됨으로써 서울大人이 더 以上 모래알이 아니라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며 必要하면 하시라도 凝集力을 發揮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對内外에 보여준 快舉라고 生覺합니다.

“누가 祖國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冠岳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確信합니다. 祖國과 民族 앞에 責任을 다하는 서울大人이 됩시다!

이번 行事を 準備하는데 아낌없는 支援을 해 주신 韓國 棋院과 世界사이버棋院을 비롯해 審査를 맡으신 洪鍾賢 師範과 南治亨 敎授님, 그리고 朴治文·申秉湜 委員님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參與하신 모든 분들과 그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恒常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08年 7月 6日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林 光 洙

축 사



이 장 무

서울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임광수 서울대학교 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5회 동문 바둑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니다. 바둑대회라고 하니까 경쟁을 통해서 승자를 뽑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오 늘은 오랜 벗들이 만나 우애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모처럼의 휴일에 이렇듯 시간을 내어 여기 까지 나와 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둑은 옛날 고전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지혜를 닦는 수련의 일종이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옛 선인들은 그 속에 담긴 많은 지혜와 원리들을 생각했고, 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바둑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알게 해주고, 통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바둑을 ‘수담(手談)’이라고 하나 봅니다. 말이 아니라 바둑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바둑을 함께 두는 시간을 통해, 승패를 겨루기 보다는 지혜를 깨우고, 말로 하는 대화보다 더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국가와 사회는 물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소통은 조율과 조화의 근본이고 사람 사는 곳을 그래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디 마음에서부터 지혜롭게 대화하는 ‘바둑의 수담이 이곳 서울대학교의 운영에도 구현되어 우리 대학 발전의 포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대회의 개최를 위해 애쓰신 준비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6일
서울대학교 총장 李 長 茂

◆◆◆ 개 · 인 · 전 ◆◆◆									
■ 최강조					■ A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강경관	자연대	70	4단	1	권오룡	사범대	56	3단
2	강호윤	공과대	70	5단	2	권월순	문리대	65	3단
3	고성욱	경영대	78	5단	3	권태일	농과대	72	3단
4	김길중	상과대	62	5단	4	김관형	공과대	79	4단
5	김상준	사범대	07	4단	5	김경식	사범대	82	2단
6	김안중	사범대	68	5단	6	김동국	공과대	02	3단
7	박인균	공과대	75	5단	7	김성우	인문대	74	4단
8	서상훈	자연대	86	5단	8	김종문	공과대	50	1단
9	손병용	자연대	68	6단	9	노영식	사범대	65	3단
10	송진현	법과대	75	5단	10	류동렬	사범대	71	3단
11	신연철	공과대	06	4단	11	류진열	법과대	72	4단
12	안재길	문리대	61	5단	12	박영근	경영대	79	3단
13	안정웅	자연대	82	6단	13	박원근	경영대	72	3단
14	양태우	자연대	01	5단	14	백무흠	공과대	84	3단
15	유기철	사회대	73	6단	15	백진우	공과대	05	1단
16	유원하	의과대	60	5단	16	서형배	인문대	74	3단
17	윤석철	자연대	80	4단	17	성상현	의과대	73	1단
18	윤석훈	공과대	84	5단	18	염상현	농생대	00	3단
19	윤진훈	공과대	95	5단	19	유병근	사회대	83	3단
20	이광우	농과대	56	6단	20	이성엽	자연대	08	2단
21	이종면	공과대	79	6단	21	이승엽	약학대	06	1단
22	이태규	상과대	66	5단	22	이진환	사범대	54	3단
23	임기영	문리대	60	5단	23	임성빈	공과대	63	3단
24	임영식	공과대	70	5단	24	임용준	치과대	65	3단
25	장동기	사회대	82	5단	25	정주열	공과대	73	3단
26	정기용	상과대	71	5단	26	진태훈	의과대	84(졸)	2단
27	조태홍	공과대	70	5단	27	천한우	경영대	79	3단
28	최명남	사범대	69	5단	28	최경명	약학대	76	1단
29	한만철	공과대	77	5단	29	최민호	공과대	00	3단
30	한승수	사범대	72	5단	30	하석봉	공과대	70	3단
31	한용술	사범대	71	5단	31	한박무	문리대	66	3단
32	한유정	문리대	59	5단	32	황금연	사범대	50	2단

◆◆◆ 개 · 인 · 전 ◆◆◆									
■ B조					■ C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고경순	사범대	61	1급	1	권경덕	공과대	62	4급
2	김 승	공과대	68	1급	2	김병식	상과대	68	4급
3	김도현	자연대	07	1단	3	김성중	공과대	73	4급
4	김동걸	치과대	74	1급	4	김풍오	공과대	68	4급
5	김선현	법과대	58	3급	5	박수환	사범대	65	4급
6	김연배	상과대	67	2급	6	박우성	사범대	82	4급
7	김영환	공과대	56	1급	7	박희백	의과대	51	4급
8	김용섭	대원	83	1급	8	백종민	상과대	66	3급
9	김준호	상과대	68	3급	9	백훈상	상과대	66	4급
10	김진철	공과대	67	1급	10	서용석	상과대	66	3급
11	김창근	인문대	83	3급	11	손원중	상과대	58	3급
12	김태우	공과대	89	1급	12	신충열	상과대	66	4급
13	김황영	농과대	74	2급	13	신태수	법과대	58	3급
14	박병덕	약학대	95	3급	14	심동석	공과대	88	3급
15	박성진	약학대	69	3급	15	안창섭	사범대	61	4급
16	박용수	공과대	76	1급	16	옥정식	공과대	67	4급
17	박창욱	사범대	81	2급	17	위재훈	의과대	52	3급
18	박철호	공과대	66	3급	18	윤석태	사범대	73	3급
19	방지훈	인문대	07	3급	19	윤용하	자연대	84	3급
20	석용기	AIP	37기	2급	20	이용훈	농과대	75	3급
21	손영환	공과대	99	1급	21	이일영	치과대	66	3급
22	양현국	수의과대	88	2급	22	이진호	사회대	07	1급
23	오상태	문리대	65	2급	23	이태우	사범대	60	3급
24	이강운	치과대	88	1급	24	이태현	상과대	66	4급
25	이근영	인문대	99	1단	25	이하길	의과대	51	3급
26	이상현	문리대	64	1급	26	이형식	사범대	65	4급
27	이춘섭	의과대	77	2급	27	임재선	사범대	75	3급
28	정재홍	사회대	79	1급	28	임종순	법과대	56	3급
29	정주화	상과대	72	1급	29	정종제	사회대	82	3급
30	천주훈	공과대	64	1급	30	조장식	농생대	00	3급
31	한재정	자연대	80	1급	31	최창식	법과대	58	4급
32	황정현	공과대	56	1급	32	하진구	교직원		4급

◆◆◆ 단 · 체 · 전 ◆◆◆					◆◆◆ 개 · 인 · 전 ◆◆◆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1	경상기우회	박건호	상과대	59	9	사회대수학61	김원준	사범대	61
		안종원	상과대	59			인병식	사범대	61
		심명기	상과대	59			임성모	사범대	61
		이부연	상과대	59			주정식	사범대	61
		정현석	농과대	63			유도기	사범대	68(졸)
2	공과대학1팀	신우영	공과대	84	10	상과대학	연건호	상과대	66
		김종진	공과대	72			오두환	사회대	82
		김도형	공과대	80			윤동현	사회대	82
		이시연	공과대	82			김 현	사회대	85
		박세화	공과대	84			강 철	사회대	85
3	공과대학2팀	이납기	공과대	65	11	서울대바둑연합	김선환	사회대	85
		이승복	공과대	66			오경환	경영대	06
		이강국	공과대	65			곽형준	약학대	06
		이윤호	공과대	64			윤석원	의과대	07
		최 훈	공과대	63			이광열	의과대	03
4	농생대학	김기욱	농과대	71	12	쌍육기우회	박준영	공과대	01
		노근수	농과대	77			장진원	상과대	66
		이재철	농생대	86			상태익	상과대	66
		홍순선	농생대	92			김상남	상과대	66
		지성욱	농과대				이원민	상과대	66
5	문리대	백우영	문리대	62	13	청석회	김영식	상과대	66
		신병식	인문대	73			박종호	농과대	81
		박치문	인문대	68			김문찬	농과대	83
		강형근	인문대	82			김 옥	농과대	82
		안성문	사회대	83			홍창일	농과대	84
6	미술대학	김종선	미술대	74	14	청조회	김현태	농과대	84
		이길원	미술대	69			김정렬	농과대	85
		성철중	미술대	70			김창국	법과대	56
		김정현	미술대	65			김석조	법과대	58
		홍순모	미술대	69			박정일	법과대	58
7	보건대학원	우병탁	미술대	76	15	호석사	배찬린	법과대	58
		남철현	보건대	62			정인섭	법과대	58
		강인구	보건대	69			최덕규	법과대	58
		조길웅	HPM	14기			구윤희	공과대	58
		임국환	HPM	20기			최창환	공과대	60
8	사범대학	정문호	보건대	66	16	교직원교우회	이영상	공과대	58
		이상규	사범대	75			유무웅	공과대	58
		유충균	사범대	82(졸)			이준의	공과대	58
		정원채	사범대	80			홍정수	교직원	
		김봉래	사범대	85			이경영	교직원	
		최안기	사범대	70			김재호	교직원	
							김영태	교직원	
							송하균	교직원	

◆◆◆ 개 · 인 · 전 ◆◆◆									
■ D조					■ E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곽희준	법과대	58	6급	1	김창수	수의대	64	7급
2	권명오	HPM	19기	5급	2	박인석	자연대	84	7급
3	오승관	농과대	77	6급	3	배종섭	상과대	58	7급
4	김기휘	상과대	66	6급	4	성영환	공과대	58	7급
5	김명관	경영대	82	6급	5	양태운	FIP	4기	7급
6	김영웅	사회대	88	6급	6	유건환	공과대	56	7급
7	김인찬	공과대	90	6급	7	유계하	공과대	56	7급
8	김흥만	상과대	66	5급	8	유치석	법과대	84	7급
9	나정균	자연대	07	7급	9	이관우	상과대	66	7급
10	문종일	사회대	07	4급	10	이기홍	상과대	50	7급
11	박윤근	의과대	90	6급	11	이성원	공과대	56	7급
12	방형준	사회대	01	5급	12	장기문	사범대	65	7급
13	백수철	공과대	77	5급	13	전완식	AIC	3기	7급
14	서범준	공과대	01	5급	14	조홍규	ACAD	26	7급
15	송현석	공과대	66	6급	15	홍기표	공과대	62	7급
16	신규곤	음대	81	6급	16	홍영희	보건대	75	7급
17	유두환	법과대	58	5급	17	홍형기	사범대	54	7급
18	이광복	사범대	65	5급	18	금장태	문리대	62	7급
19	이병주	의과대	61	5급					
20	이상완	의과대	55	6급					
21	이연원	공과대	83	5급					
22	이영훈	문리대	64	6급					
23	이지복	의과대	52	6급					
24	이찬민	상과대	70	6급					
25	이택주	법과대	58	6급					
26	장기호	상과대	66	5급					
27	장덕신	상과대	71	5급					
28	전경훈	상과대	66	5급					
29	정영채	문리대	62	6급					
30	정희주	농과대	61	6급					
31	조기봉	공과대	58	4급					
32	허 경	사범대	60(졸)	5급					



-- 대회요강 --

1. 본대회의 진행과 운영 방법은 한국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릅니다.
2. 개인전은 출전자의 기력에 따라 5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 단체전은 5인이 한 팀이 되어 대국하게 됩니다.
4. 단체전 · 개인전 모두 변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합니다.
5. 대국은 모두 호선 6집반 공제로 하며 10분 자유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로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대국이 종료되지 않을시 프로기사로 구성된 심판위원들의 판정으로 승패를 결정짓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대진표는 한국기원의 추천방식에 따라 사전 무작위 자동추첨을 하게 됩니다.

시 상 품

▶ 개인전 최강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 상품권(4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명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3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명
공동 3위	■ 상품권(1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2명

▶ 개인전 A조, B조, C조, D조, E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 상품권(2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1명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1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1명
공동 3위	■ 상품권(5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2명

■ 용어풀이

- 승수 : 본인이 이긴 승의 합
- 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자의 승의 합
- 종합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방의 승점의 합

■ 순위 결정 방법

- 승수가 많은 자가 상위
- 위가 동률인 경우 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종합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수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점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승자승의 원칙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률로 처리

▶ 단체전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순회우승기 ■ 상품권(15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팀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10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팀
공동 3위	■ 상패 ■ 상품권(5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2팀



이직도 프로는 나의 꿈

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올해 입단한 기사 중 연구생 3조에 속했던 기사도 있다. 적어도 연구생 1~3조 30명은 실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력으로 결코 프로기사에 뒤지지 않는다. 이들은 젊은 청춘을 10년 가까이 바둑에 바쳐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연구생에서 나가는 순간 거의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 연구생 출신 후배들을 보면 어떤가.

“연구생에서 나오면 정말 막막하다. 당장 군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연기하려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쓰다보면 바둑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방황하게 된다. 연구생에서 나온 얼마 동안만 잠깐 반짝하다가 이후 성적을 못내고 사라지게 된다.”

- 연구생 출신 기사들의 관리가 필요한가.

“연구생 출신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은 전체 바둑계 발전에 저해된다. 연구생들은 그야말로 바둑밖에 모르고 살

그에서 우승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통해 상위 몇 위 안에 든 기사들은 프로기전에 뛰게 해 준다는 등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아마대회는 출전하지 못하게 한다.”

- 그중에서도 또 탈락자가 있을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보급기사제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연구생 출신들이 해외로 나가 보급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마추어 몇 단으로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이들에겐 ‘보급기사’라는 타이틀 등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 프로기전 유지도 힘든 마당에 2부리그까지 만들면 바둑계가 힘들지 않겠나.

“그건 보는 시각을 넓히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 여러 바둑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을 흡수할 수도 있다. 어떻게 스폰서를 끌어들이느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부리그가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둑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 프로기사들과의 관계 설정도 쉽지

“입단대회 본선 시드를 받았으니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또 연구실을 운영해 제자를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서른 살 이전에 하고 싶은 것은 연애다.”

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프로 입단의 관문을 뚫는 것 밖에 없다. 이 상황을 프로 기사 지망생과 부모들이 볼 때는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재능과는 상관없이 부모 입장에서선 비전이 없고 힘든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 빠져나오거나 처음부터 프로 지망을 포기하게 된다. 이 역시 바둑계의 손실이다.”

- 연구생 출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연구생 출신은 프로 전문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생업을 갖고 바둑을 좋아하는 일반 아마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 바둑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세미프로제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로야구에도 2부리그가 있고 골프도 2부투어가 있다. 지금 연구생 출신의 모임인 청년 아마추어기사모임(청아모) 소속 인원이 약 70명 정도인데, 매년 10여 명씩이 연구생에서 퇴출돼 나온다.

곧 100명을 넘게 된다. 4-5개 정도의 기전을 운영하는 ‘2부리그’를 만들어 이들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어차피 웬만한 아마 대회도 주니어 시니어부를 따로 운영한다. 2부 리

한 기원에서 붙잡혀 가출 생활이 막을 내렸다. 이후 아마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 한때 프로도 부럽지 않은 아마 기사라는 말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한해 7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만 3,500만원 정도 번 적이 있다. 그 때 프로기사 랭킹 10위의 1년 수입이 그 정도 됐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실력이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나와 1년에 아마대회 1, 2번 우승하기도 쉽지 않다. 또 지금은 프로기사 10위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아마에서 10년 가까이 정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아마대회에 출전한 초반에는 무작정 이기려고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수 한수가 생명력을 갖고 바둑판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 그게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 프로 무대에 가고 싶은 건 왜인가. 지금처럼 아마에서 정상권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승부사로서 온 정신을 바둑판 위에서 불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아마기전은 대개 속기전이고 하루에 몇 판 씩 둔다. 시간에 쫓겨 자신의 바둑을 두기가 쉽지 않다. 프로무대에서 나의 승부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마음속에 승부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입단의 꿈은 평생 계속될 것 같다.”

- 입단한다 해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을 내긴 쉽지 않겠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1년 정도 경험을 쌓는다면 호락호락하게 지진 않을 것이다.”

- 앞으로의 목표는.

“입단이다.(웃음) 세계아마대회 우승으로 입단대회 본선 시드를 받았으니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또 연구실을 운영해 제자를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서른 살 이전에 하고 싶은 것은 연애다.”

〈인터뷰/동아일보 서정보 기자〉

-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나.

“지난해 말 아마국수전에서 우승한 뒤 세계아마대회 제한시간인 1시간반에 10분당 15수를 뛰야하는 초읽기 방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또 김승준 九단, 이희성 七단, 한종진 六단 등의 프로기사들과 연습바둑을 가졌다. 승패를 떠나 프로기사의 승부호흡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세 프로분들께 감사한다.”

- 그러나 세계아마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자동입단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다.

“내 입단 여부를 떠나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 기사들의 희망을 없애버린 것은 아쉽다. 지금까지 세계아마대회 한국 우승자는 1998년 김찬우 三단 등 3명밖에 없다. 매년 세계대회에 우승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길마저 막아버린 건 안타깝다. 국내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우승자와의 형평성 여부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기존의 혜택을 없애는 식으로 정리한 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할 것 같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아름답지 못하다.”

-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들의 진로가 밝지 못하다.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이면 바둑계의 인재인데, 이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침체하는 바둑계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승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한다. 2부리그를 만들지 않더라도 세계대회 우승자 등에게는 1년이나 2년 정도 프로기전에 대국료 없이 출전케 하고 여기서 일정 승률을 올리면 입단 여부를 논의하거나 기전 참여기간을 늘려주는 방식도 있다. 한국기원이 긴 안목을 갖고 세미프로제 등 연구생 출신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 다른 얘기를 해보자. 99년 연구생에서 나와 아마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연구생 1조에 계속 있다가 입단대회를 앞두고 3조로 갑자기 추락했다. 나이 제한(만 18세)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는데 심적 부담이 컸다. 어린 마음에 가출을 했다. 돈이 한 톨도 없어 기원을 돌아다니며 1000원 짜리 내기바둑을 뒀다. 처음엔 판내기로 하다가 돈이 안 돼 방내기로 돌았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뒀던 것 같다.(웃음)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에게 시내



제29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21회 후지쯔(富士通)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구 리, 후지쯔배 첫 우승

7월 7일 도쿄 일본기원에서 벌어진 제21회 후지쯔(富士通)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구 리 九단이 이창호 九단을 205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하며 후지쯔배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중국랭킹 1위인 구 리 九단은 LG배 세계기왕전(2006)과 춘란배(2007)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 번째 세계 정상을 밟게 됐다. 또한 이창호 九단과의 상대 전적도 3승 4패로 좁혔다.

한편 구 리 九단의 우승으로 한국의 후지쯔배 11연패의 꿈은 좌절됐다. 한국은 1993년 유창혁 六단(당시)이 우승한 이래 무려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유독 후지쯔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1998년 이창호 九단이 우승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은 2007년까지 10연패의 금자탑을 달성했으나 구 리 九단의 우승으로 연패 신화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요미우리신문과 (재)일본기원·(재)관서기원이 공동주최하고 후지쯔(주)가 후원하는 제21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의 우승상금은 1,500만엔(한화 약 1억 5,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엔(약 5,0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이며 1분 초읽기 10회가 주어진다.



① 이창호 九단과 구 리 九단의 결승전 모습.

② 창 하오 九단은 류 싱 七단에게 22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③ 준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九단에게는 500만엔(약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④ 이창호 九단과 류 싱 七단의 준결승 대국이 끝난 직후 창 하오 九단이 합세해 장시간 복기가 이어졌다.

⑤ 검토실 풍경. 조훈현 九단은 녹슬지 않은 일본어로 일본 프로기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⑥⑦ 왕밍완 九단과 오사미 나루미 三단이 공개해설로 진행된 공개해설회 모습. 1인당 1천엔(약 만원)의 입장료가 붙었지만 해설장은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 상 핫 뉴스

제12회 박카스배 한·중 천원전

원성진, 구 리 꺾고 한·중 통합 천원 등극



6월 24~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진 제12회 박카스배 한·중 천원전 3번기에서 원성진 九단이 구 리 九단에게 종합전적 2-0 승리를 거두며 한·중 통합 천원(天元)에 등극했다.

원성진 九단은 이번 승리로 구 리 九단과의 통산전적에서 2승 3패(비공식 대회인 2004년 통첸배 한·중 정상대결 포함시 2승 5패)를 기록하게 됐다. 원九단의 승리로 한·중 천원전의 통산전적은 한국이 7승 5패로 앞서게 됐다.

6월 27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우승자 원성진 九단에게 상패와 우승상금 1만달러가, 준우승자 구 리 九단에게는 상패와 준우승상금 5,000달러가 각각 수여됐다.

스포츠조선과 중국의 신민만보(新民晚報)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제약(주)이 후원하는 한·중 천원전은 한국의 박카스배 천원전 우승자와 중국 천원 타이틀 보유자가 매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3번기로 통합천원을 가린다.



- ① 전야제에서 구 리 九단과 원성진 九단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② 6월 24일 펼쳐진 3번기 1국에서 원성진 九단이 159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 ③ 시상식 기념촬영(왼쪽부터 스포츠조선의 하원 사장, 구 리 九단, 원성진 九단, 이에 썸 중국 신민만보 편집부 주임).

이세돌, 태극마크 달았다!

랭킹 1위 이세돌 九단이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게임즈 (World Mine Sports Games)바둑 부문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이세돌 九단



박정상 九단



박지은 九단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이번 대회는 베이징 올림픽 종료 직후 남녀개인전과 남녀단체전, 페어바둑(남녀 2인 1조), 오픈 개인전 등에서 6개의 메달을 놓고 전세계 약 80개국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이창호 九단은 5일 연속 두 판씩 두어야 하는 강행군에 부담을 느껴 출전을 포기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는 남자 16명, 여자 9명, 아마추어 4명 등 총 25명이다.

중국은 랭킹 1위 구 리 九단을 비롯해 창 하오·루이 나이웨이 九단, 콩 지에 七단 등 남녀 정상급 기사들이 출전의사를 밝혔으며 일본도 야마시타 게이코 九단(기성), 다카모 신지 九단(본인방), 고노 린 九단(천원) 등 타이틀 보유자 위주로 최강팀을 구성했다.

제4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

제 4기 원익배 십단전 예선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예선에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26명 중 본선시드 5명(전기 우승자 이창호 九단, 준우승 목진석 九단, 4강 진출자 이영구 七단·백홍석 六단, 후원사 시드 이세돌 九단)을 제외한 221명이 참가했으며 총 39명의 본선진출자를 가리게 된다.

(재)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주)원익이 후원하는 제4기 원익배 십단전의 총규모는 3억 3,000만원이며 우승상금은 1,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이다.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시상식 열려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시상식이 7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비씨카드 장형덕 사장을 비롯해 한국기원 한상열 총장, 유창혁 九단(한국기원 이사), 바둑TV 심용섭 사장, 사이버오로 손종수 이사, 박상돈 七단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우승을 차지한 김기용 四단에게는 트로피와 2,500만원의 상금이, 준우승자인 김승재 二단에게는 트로피와 1,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조혜연,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에 위촉

조혜연 七단이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

7월 8일 서울시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조혜연 七단은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사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효식 마케팅 기획팀장은 “한국바둑과 더불어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조혜연 七

단이 앞으로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적극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가수 비,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 국내의 저명인사 50명(국내 12명, 해외 28명)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에 위촉해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 및 해외 현지 한국관광인지도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양재호, 시니어팀에 우승 피날레



양재호 九단이 박지은 九단의 4연승 행진을 저지하며 시니어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7월 9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27국에서 양재호 九단

이 박지은 九단에게 248수 만에 백 6집반승을 거뒀다. 여류팀의 마지막 주자였던 박지은 九단은 최규병 九단, 조대현 九단, 서봉수 九단을 연파하며 희망의 촛불을 밝혔으나 양재호 九단의 관록에 막혀 여류팀 우승 견인에 실패했다.

바둑명품 경매와 함께 치러질 시상식은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병권, 응씨배 세계청소년 시니어부 우승

제25회 응씨배 세계청소년바둑대회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푸이양에 있는 하워드 존슨 플라자 구이양(Howard Johnson Plaza Guiyang)에서 열렸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태국 등 13개국 20명이 출전한 가운데 시니어부에서 한국의 강병권 아마5단(92년생, 양재호 바둑도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주니어부에서는 송재환 아마5단(97년생, 유창혁 바둑도장)이 3위에 올랐다.

응씨배 세계청소년바둑대회는 고(故) 응창기 선생이 1984년 창설한 세계 최초의 바둑대회로 우리나라 현역 프로기사 중 이세돌 九단, 박영훈 九단, 강동윤 九단을 비롯해 중국의 창 하오 九단, 구 리 九단, 뤼 시허 九단, 평첸 七단 등이 입상한 바 있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 상 핫 뉴스



바둑축제로 들떠 있는 흥진초등학교

7월 14~19일 군포 흥진초등학교(교장 김용대)에서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2008 신나는 바둑 축제」가 열렸다. 학생들의 바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요일별로 벌어지는 학년별 바둑대회를 비롯해 즐바둑 대회, 바둑퀴즈 맞추기, 가족대항 알까기 대회, 프로기사 초청 대국, 바둑 세미나, 바둑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개교한 흥진초등학교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과특성화(바둑)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월 4시간씩 바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바둑 영재반을 집중 교육해 각종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① 흥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5학년 학생부 바둑대회가 열렸다.
- ② 도서관에서는 바둑계 인사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에서의 바둑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③ 가족대항 알까기 대회 모습.
- ④ 대회에 참가한 두 어린이의 진지한 대국 장면을 포착했다.
- ⑤ 아이들이 현관에 놓인 조훈현 九단과 유창혁 九단의 기성전 백두산 대국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 ⑥ 유건재 八단이 초청돼 지도다면기가 펼쳐졌다.



이 사람의 하루 바둑방송 진행자 최유진

프로는 아름답다... “최고의 MC가 되고파요”



1982년 1월생으로 학교생활을 1년 빨리 시작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이가 많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둑들을 집기 시작해 현재 공인 아마5단. 어릴 적에는 아마대회에도 많이 참가해 다수의 입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월간 『바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새내기로 대학생활 시작.
2003년 스카이라이프 「주간명승부리뷰」 리포터로 발탁, 방송계에 발을 들여 놓는 듯했으나 3개월 만에 퇴출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2004년 방송 일에 매력을 느꼈고, 제대로 된 방송을 해 보고자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 꽤 열심히 공부했다. 같은 해 가을 스카이라이프에 재입성. 플러스 초점대국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2005년 7월 바둑TV 「바둑리그 진기명기」 리포터로 활약했다.
2006년 3월 바둑TV 「스피드 초점대국」에서 진행을 맡았다.
2008년 4월 「KB 한국바둑리그」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방송경력 5년차.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방송인이지만 가냘픈 몸매에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최유진은 바둑계의 열광으로 많은 남성팬들의 ‘뜨거운’ 시선을 끌고 있다. 도시적인 외모 덕에 간간한 ‘깽쟁이’ 처럼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 그녀지만 정작 TV 모니터 밖의 그녀는 순둥이다.

오전 9:50 (사진 ①) 낮게 드리워진 회색 구름 사이로 간간히 날리는 빗방울을 헤치고 방배동 그녀의 집을 찾았다. 우편상 아래 자리 잡은 서래마을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10층 아파트에서 편한 복장의 최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9년을 같이 살고 있는 애완견 샌과 장난치며 한가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올 초부터 바둑TV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이하 바둑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2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돌아켜본다면?

“진행자 위치에서 처음 해보는 라이브 방송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더구나 간판 프로그램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하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어 부담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둑리그뿐인가?

“「바둑TV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대국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으로 생방송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방송하니 바둑리그와는 달리 오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는 편이에요.”

-바둑 외에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없나?

“작년에는 다른 케이블방송 현장리포터나 기업 사내방송 MC, 아나운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있어요. 시간도 충분치 않고 바둑리그에 집중하고 싶어요.”

-후배들을 위해 수입을 공개한다면?

“작년에 정산을 해보니 3,000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오전 10:50 (사진 ②) 낮게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온다. 당일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대국자들의 정보를 얻고 전날 바둑계 뉴스를 꼼꼼히 살핀다. 메일 확인하고 미니 홈페이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전날의 주식시세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수입의 60% 이상을 저축 및 주식, 펀드 등을 이용해 재테크 하고 있는데 작년 수익률이 15%를 웃돌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다른 진행자들의 방송을 보며 모니터를 많이 해요. 집에 있을 때는 새벽까지 바둑TV를 보죠. 방송이 있는 날은 일찍 일찍 스튜디오에 나갑니다. 같이 바둑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한해원 3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둑에 관한 내용도 물론 저보다 잘 알지만, 프로그래머로서 선수들과 친분이 많다보니 바둑 내용 외에 대국자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에피소드 등을 중간중간 양념 치듯이 맛깔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재미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제가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선수들과 친분이 돈독치도 못해서 소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 대국자들의 당일 컨디션이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 모든 정보를 얻어 방송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효과도 많이 봤어요.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일반 스포츠 중계도 빠지지 않고 시청합니다. 대본 없이 진행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또 방송 중에 귀가 솔깃해지는 멘트가 나오면 메모를 해 왔다가 종종 이용하기도 합니다. 1주일에 평균 3일 정도 방송이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그리 시간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방송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예전에 만화영화 ‘고스트바둑왕’ 뒤에 붙는 바둑소개 프로그램을 이세돌 9단과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화영화가 끝난 후 1분 분량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바둑을 쉽게 설명해 주는 코



너였고, 2회 촬영이 끝난 상태였는데 방송사에서 진행자의 인지도를 문제 삼아 하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속상했었죠. 빨리 출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던데요.(웃음) 또 현재는 의상이나 메이크업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방송 초기에는 직접 화장



하고 의상 챙기곤 했었어요. 화장이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의상은 구입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고민고민 하다가 꿈수라고 쓴 것이 방송 바로 전날 의상을 구입해 깨끗이 입고 방송한 후 환불을 한 적이 꽤 있었어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를 악용한 셈이죠. 이 자리를 빌려 당시 백화점 언니(?)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바둑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아마5단의 실력을 자랑할 정도로 바둑을 좋아하셔서 예전부터 가족스포츠(?)라고 명명하고 저를 제외한 온 식구가 바둑을 배웠죠. 그래서 가끔 부모님과 오빠, 언니가 연기바둑을 두곤 했는데 저만 빠진 것에 대해 샘을 많이 냈어요. 그런 이유로 바둑을 배우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권갑용바둑도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권사범님한테 단수부터 배웠죠. 하다 보니 처음엔 바둑이 무척 재미가 있어서 권사범님 집에서 1년간 먹고 자면서 공부한 적도 있었죠. 동갑인 권효진 5단과 같은 방에서 생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둑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바둑뿐 아니라 미술, 첼로, 수영 등 꽤 많은 것을 동시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승부욕도 떨어지고 실력도 별반 차이가 없어 바둑과 조금씩 멀어졌죠.”

-방송인으로서는 보람이 있다면?

“스튜디오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지난

번 바둑리그 투어 때 지방을 찾았는데, 바둑팬들이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에 콧날이 찡할 만큼 감동했어요. 그때 방송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는 MTB(산악자전거)를 끌고 한강 고수부지를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

라고 비가 오는 탓에 MTB를 타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47kg의 가냘픈 몸매를 가진 그녀가 하기엔 결코 녹록치 않은 스포츠이다. MTB를 타게 된 계기가 재미있었다. 자신을 스키 광(狂)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겨울이 되면 모든 스케줄의 최우선순위가 스키 일 정도로 좋아하는데, 산악자전거 또한 스키를 위한 일종의 몸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동계 종목 선수들의 하계 훈련 코스 같은...

오전 11:15 (사진 3) 꽃단장(?)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따라 침실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침대와 화장대, 1인용 옷장으로 꾸며진 방은 별다른 특색은 없지만 심플하다. 음악을 틀어 놓고 화장을 시작한 그녀.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주로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나요?

“클래식을 좋아하고 재즈를 주로 들어요.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 하셔서 항상 집에서 클래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릴 때 바둑도 공부했지만 첼로도 꽤 오래 했어요. 작년까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베누스토’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귀가 솔깃해진 기자는 첼로 독주를 부탁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오후로 미루기로 했다.

오전 12:15 (사진 4-1) 권효진-위에 랭 부부와 식당을 찾았다. 위에 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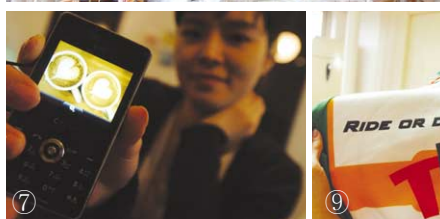


四 단은 최유진을 보고 굉장히 어려워보인다는 말부터

꺼낸다. 셋 다 82년 동갑내기이다. 괜히 기자만 나이 든 느낌!!!

작년 10월에 태어난 권효진 부부의 아들 현에 대한 이야기로 보름 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에 정신이 없는 그녀. 위에 랭 四단과 기자는 그녀들의 수다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긴 점심시간을 보냈다.

오후 1:40 집 앞의 헬스클럽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1주일에 평균 3~4회, 헬스클럽에서 가벼운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체력 관리를 한다. 이동 중에



이상형에 대해 질문했다.

“외모는 전혀 안 보구요, 절대 방송용 멘트 아니고요, 성실하고 능력 있고, 특히 털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저희 집이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아서 분위기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훈현 九단 같은 분이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고, 가정적이며 유머도 갖추신 것 같아요.”

오후 1:50 (사진 5) 운동복으로 바뀌 입은 그녀는 러닝머신 위에서 가벼운 워킹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맨손체조도 하고 기구를 이용한 근력운동도 빠뜨리지 않는다.

오후 2:50 (사진 6-7)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쁜 카페가 보여 무작정 들어갔다.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녀는 아메리카 커피를 주문했다.

“제가 커피를 무척 좋아해요. 예전에는 그냥 좋아했는데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김지명 씨가 커피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음... 뭐랄까... 커피입문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 여하튼 그래서 학원도 다녔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요.”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 기자 앞에 내밀며 자신이 만든 ‘라떼 아트’라고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인상이 차갑게 느껴진다는 말도 많이 하던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도 주변에서 깽쟁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실속도 못 챙기는 바보라고 말해요. 저도 깽쟁이로 살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저는 욕심도 없고, 근성도 부족하고, 승부욕도 많지 않아요. 바둑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성격 탓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방송에서만은 욕심을 가지고 잘 해야겠다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 자신을 다그치고 있어요. 현재 목표도 바둑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오후 3:30 (사진 8-9) 집에 도착한 그녀에게 첼로 연주를 부탁했다. 오랜만의 연주라 잘 될지 모르겠다는 엄살과는 달리 능숙한 솜씨로 연주를 시작했다. 음악에 문외한인 기자에게도 귀에

익숙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묵직한 저음으로 가슴을 감싸고돈다. 첼로를 감싸 안고 활을 놀리는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을 내뿜었다. 이어진 영화 ‘시네마천국’의 테마곡까지... 뜻밖의 자리에서 얻은 호사에 마냥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오후다.

좌우명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느닷없이 산악자전거 동호회 유니폼을 보여준다. 선명히 새겨져 있는 『ride or die』. 최유진의 좌우명 『do or die』에서 힌트를 얻어 새겨 넣었다고 한다.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녀의 의지가 느껴진다.

오후 5:10 (사진 10)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방송을 위한 메이크업을 시작한다. 그녀의 방송 시간은 오후 9시부터이다. 바둑리그 생방송을 위해 많은 스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부조정실에서 방송 준비로 바쁜 담당PD에게 옆치불구하고 최유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노력을 많이 하는 진행자”라고 첫마디를 꺼내며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전문 진행자로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많은 진행자이다.”라고 좋은 평점을 주었다. 메이크업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돌아오는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오프닝 멘트요.”

오후 6:05 (사진 11) 방송 진행자인 김지명 씨와 이른 저녁식사를 마친 그녀는 방송자료를 꼼꼼히 체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필요한 정보들을 살핀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 당황했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지만 당시는 꽤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드는데요. 해설자인 K프로기사와 방송 직전까지 깔깔 거리며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방송이 시작된 후에도 해설자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꽤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시선 한 번 못 맞추고 카메라만 보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이것은 말하면 안 되는데... 바둑 수순 틀린 적도 꽤 많고요. 열심히 수순 진행을 하다 보니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라고 말하며 빠져나간 적도 많아요. 아마 시청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오후 7:05 (사진 12) 한게임 대 영남일보의 첫 번째 대국이 시작되었다. 최유진은 커피 한잔을 뿜아 들고 검토실이 마련되어 있는 2층으로 올라간다. 검토 중인 선수들 옆



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리포터 정지애 씨와 오늘 대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오후 7:40 바둑TV 부조정실로 내려온 그녀는 방송을 보며 모니터하기에 여념이 없다. 20여 분을 모니터만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2층 검토실로 향한다. 2층과 1층을 열심히 왔다갔다 하며 방송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후 8:50 (사진 13-1) 방송 10분전이다. 입으로는 계속 “한게임 대 영남일보”를 되뇌며 스튜디오로 들어간다. 해설자인 양재호 九단과 대사를 맞추어 보고 키도 맞춘다.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감으로 가득찬 스튜디오에 웃음을 불어넣기도 한다.

오후 9:00(사진 14-1) 방송이 시작되었다. 브라운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푹부러지는 발음에 힘이 느껴진다.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오후 10:20(사진 15-16) 대국이 끝났다. 힘겨운 1시간 20분간의 방송이 매끄럽게 진행된 듯 밝은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나선다. 더불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귀찮게 한 월간『바둑』과의 인터뷰도 끝이 났다.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리포터 정지애 씨와 파이팅을 외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펜클럽 하나 만들어 주세요!!! (환한 웃음) 농담이구요. 더욱 노력하는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글·사진/이주배 기자〉

〈기사제공 : 월간바둑〉



이달의 手手手 오호! 놀라운지코

19로 반상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깜짝수'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또 이 '깜짝수'로 인해 바둑의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본 코너에서는 매달 등장한 기발한 착상이나 묘수들을 소개한다.

□ 구성 / 구기호 편집장



死亡線 - 1선에 묘수 있다!

바둑에서 1선을 가리켜 사망선(死亡線)이라고 합니다. 2선을 지칭하는 패

얇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 돌의 효율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그래서 바둑 교실 선생님들이 한사코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사망선-1선이 묘수로 둔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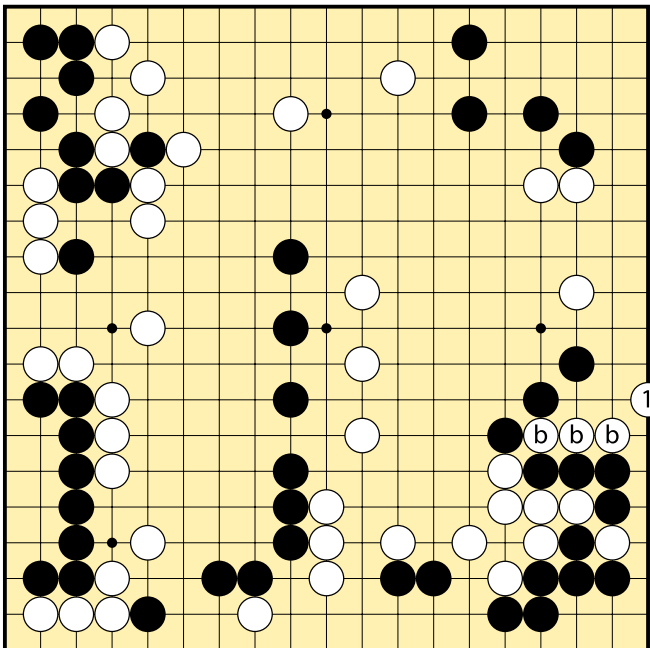
이번 달부터 첫 선을 보는 「이달의 手手手/오호! 놀라운지코」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던 중 레이더망에 딱 걸려든 수가 이 세돌 九단이 2008 중국 갑조리그에서 구 리 九단을 한방에 보낸 '1선의 묘수'입니다. 매달 깜짝수를 소개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때 마침 본 코너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수가 등장해 내심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강원

도 산비탈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산삼을 발견한 심마니의 심정이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나도 모르게 "심봤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ㅎㅎ

[장면1] 2008 중국갑조리그 11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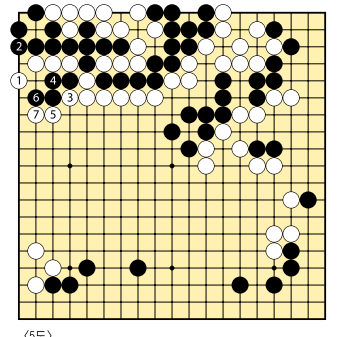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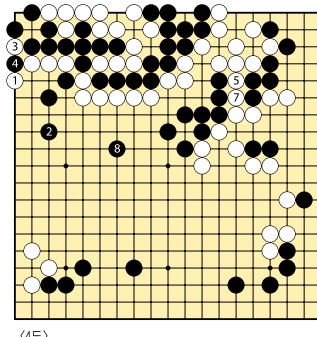
○이세돌(李世石) 九단
●구 리(古力) 四단

〈제한시간 각 2시간, 덤 7집반, 200836321, 중국, 146수 끝, 백 불계승〉



망선(敗亡線) 다음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1선은 아무래도 돌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이를 강조해 사망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장면1 우변 백A 석점을 살리는 수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백1이 바로 석점을 구출하며 바깥의 흑 석점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망선-1선'의 묘수'입니다. 이 묘수를 얻어맞은 순간 구 리 九단의 안면근육은 마비되었을 겁니다.



등장한 적이 있어 소개합니다. 좌상의 공방이 빅으로 일단락되며 한 템포 쉬어 가는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백1의 1선 마늘모가 등장하며 한바탕 소동이 다시 일게 된 것입니다. 흑2로 버티 패가 났고, 패의 대가로 백5·7로 뿔어서는 백이 충분한 모습입니다.

1도(양자충)

흑1로 두면 백의 연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큰 오산입니다. 백2로 끊은 다음 4로 미는 수가 선수여서 6~10으로 바깥을 죄면 흑이 양자충의 덫에 걸려 움썅달썅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2도(실전진행)

실전에서는 흑1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백2로 붙여 넘자고 하자 흑의 응수가 없습니다. 결국 4의 곳을 차단하지 못하고 흑3으로 늘었습니다만 백4로 '부우웅~' 연락선 기적소리를 내며 넘어가서는 순식간에 흑이 백의 포위망에 갇힌 모습입니다.

3도(차단 불가)

백2 때 흑3으로 차단하는 수가 없었을까? 하고 궁금해 할 독자들을 위해 본도를 덩으로 드립니다. 백4~10으로 흑이 자충에 걸려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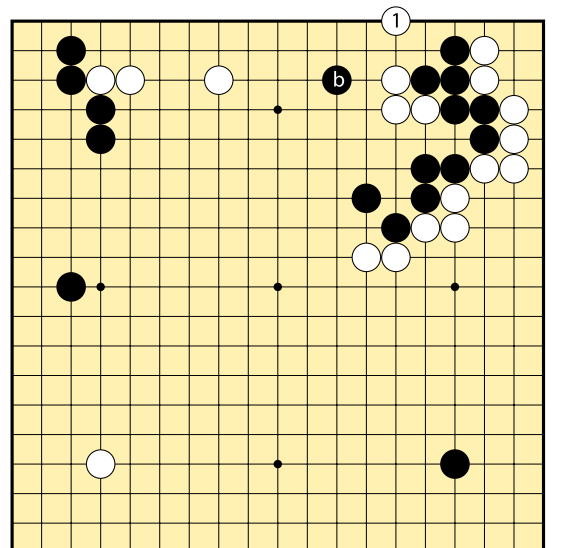
4도(유사 실전예)

과거 구토 노리오(工藤紀夫·백) 九단과 왕리청(王立誠) 九단이 격돌한 일본 기성(碁聖)전 도전기에서 이와 유사한 1선의 묘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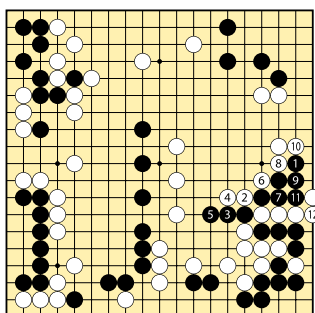
5도(변화)

백1 때 흑2로 귀를 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백3~7로 막아 외곽을 선수로 싸발라 역시 백이 좋습니다. 흑은 이 그림이 싫어 패로 버틴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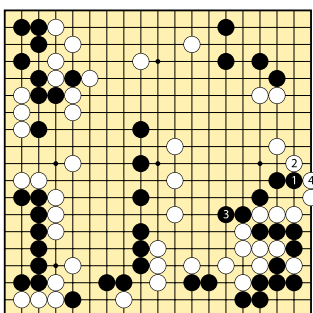
장면2 7월 17일 제10회 농심신라면배 한국대표 선발전 예선 준결승에서 강동운 八단(백)과 한상훈 三단이 대결한 바둑에서 1선 한칸땀의 묘수가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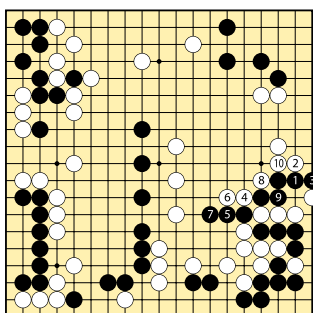
〈장면2〉



(1도)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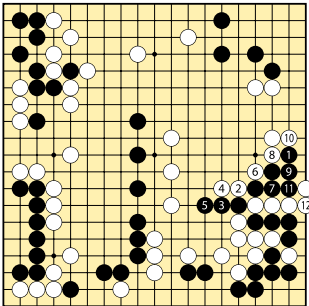


(3도)

등장했네요. 흑a의 겁박 때 백1의 한칸 뿔이 타개의 묘수.

1도(실전진행)

흑1로 차단하자 못이긴 척 백2로 이었고, 흑3으로 포위하자 백4로 옆구리에 붙여 이하 16까지 몇 차례 타개했습니다. 이후 흑은 A에 붙여 사석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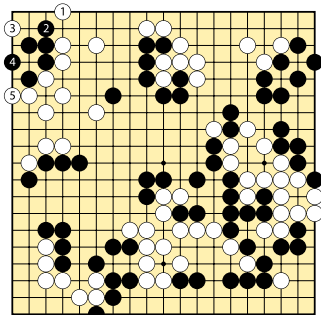
<1도>

2도(1선의 맥)

7월 4일 김승재二段과 고근태六단이 겨룬 한국리그에서도 1선의 맥이 등장했습니다. 백1이 귀의 흑을 잡는 유명한 1선의 맥. 사활책에서 본 바로 그 맥입니다.

3도(흑 죽음)

잠깐 사활 공부를 하고 가면-, 흑2로 궁도를 넓히면 백3의 치중수가 익히 알려진 후속타입입니다. 흑4로 한눈을 내도 백5로 가만히 내려서서 흑 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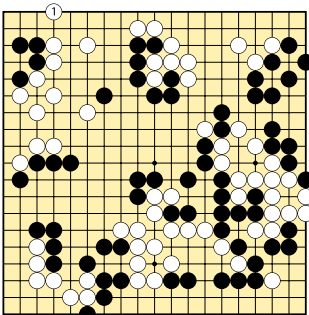
<2도>

4도(끝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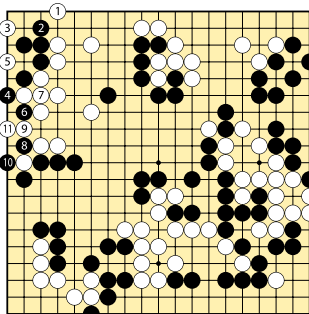
설마 프로가 백1의 유명한 맥을 모를 리는 없고, 그렇다면 고근태六단이 백1의 1선의 맥을 끝까지 확인한 이유는 뭘까요? 백3의 치중 때 흑 4·6으로 두어 다음 8·10으로 좌변 백 한점을 따내는 수를 선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로의 수읽기가 정말 깊지 않습니까.

5도(1선의 마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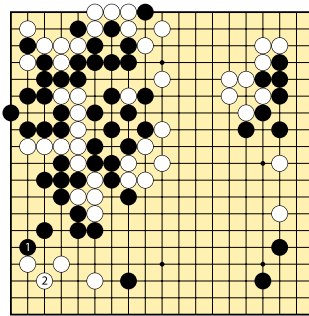
한국리그에서 나온 1선의 마늘모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7월 3일 윤찬희二段(백)과 2008한국리그의 사나이 류동환初단이 대결한 바둑에서도 알듯 모를듯한 1선의 깜짝 마늘모가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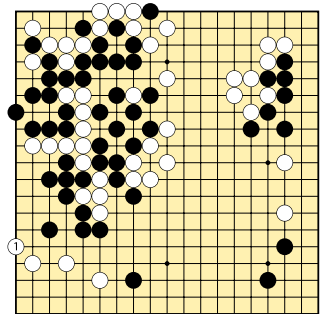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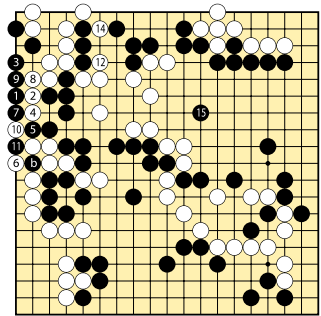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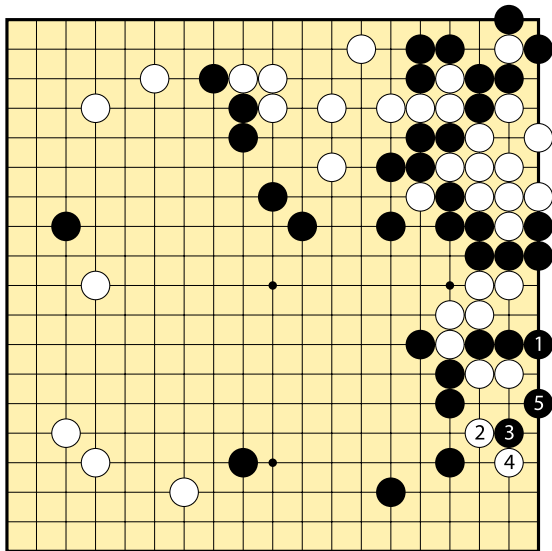
<5도>



<6도>



<7도>



<장면3>

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깜짝 한수’ 맞죠.

6도(흑1 따끔)

윤찬희二段은 좌하귀를 손빼기가 아무래도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손을 빼면 흑1의 모불임이 따끔하죠. 백2로 지키면 후수!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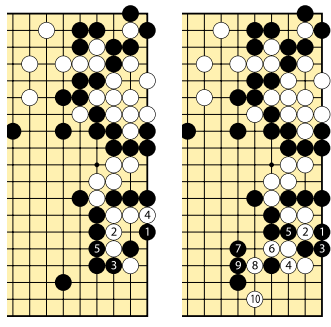
7도(1선 한칸뿔의 맥)

1선의 한칸뿔으로 유명한 바둑이 제15기 천원전 도전5번기 제5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천원 타이틀 보유자가 조치훈九단(백)이었고 상대는 이중허리로 유명한 린 하이펑(林海峰)九단입니다.

흑1의 1선 한칸뿔이 호수로 패가 벌어져 흑 우세가 확정됐습니다. 1선의 한칸뿔,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하죠.

장면3

7월에는 유독 1선의 묘수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4일 벌어진 제13기 GS칼텍스배 본선(조한승九단(백) 대 유창혁九단)



<1도>

대국에서도 흑1로 빠진 다음 5로 두는 1선 마늘모 묘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가 없었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1도(백2는 불가)

흑1에 백2로 이을 수는 없습니다. 흑3으로 끊기면 5까지 백이 걸려들었습니다.

2도(실전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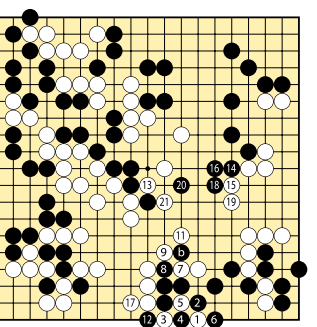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백2로 단수 쳐 버림돌 작전으로 변신했습니다. 보통 묘수를 당하면 당황해 수를 잘 읽지 못하는데, 조한승九단은 마치 그 수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처럼 잘 타개했습니다.

3도(1선 치중의 묘수)

과거에 오탁케 히데오(大竹英雄)九단(백)이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명인에 도전한 바둑에서 나온 1선 치중의 묘수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백1의 1선 치중수가 미세한 국면을 순식간에 ‘백 유리’로 뒤바꾼 묘수입니다. 백3의 짓힘에 흑4·6이 불가피해 흑 석점이 자충이 되었습니다. 다음 백 7·9로 흑a 한점이 끊어져 21까지 중앙집이 크게 부풀어 승부가 결정나고 말았습니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3도>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딸 수 있는
뿌리깊은 나무로 다가서겠습니다.

단 한권의 월간바둑이라도 성심성의껏 맥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책값이 변경되어도 정기구독(3개월 구독 이상 신청시) 중에는 종전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바둑』정기구독신청 안내

전화 02-2264-5447 팩스 02-2285-6955

• 1부 6,800원 • 3개월 20,400원 • 6개월 40,500원 • 1년 81,000원

정기구독료 입금방법은 한국기원 홈페이지(www.baduk.or.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시거나, 아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신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입금금사항을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안내

• 우리은행: 1005-501-129104 • 국민은행: 003101-04-027559
• 하나은행: 199-910001-13604 • 농협: 360-01-053010
• 외환은행: 630-005433-955 • 예금주: 세세사이버기원(주)

1년(12개월)정기구독자를 위한 다양한 선택

1년 정기구독자께는 정기구독 사은품 4가지 중에서 선택하신 1가지를 드립니다.
사은품을 원하지 않는 구독자께는 정기구독료 81,000원을 70,000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 정기구독자 중 매달 2명을 추첨해 바둑비디오테이프를 특별사은품으로 드립니다.

1년(12개월) 정기구독자를 위한 사은품

- ① 2008바둑연감
- ② 사이버로 3개월 이용권
- ③ 국수산맥
- ④ 푸쿨

매월 27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바둑매거진 월간 바둑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잡지!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

반상반의 오프 더 레코드

선혈이 낭자한 ‘맥심코피배’

□ 글/바둑TV 최정은 PD



오프 더 레코드! 19로 반상의 아웃사이드들이 비보도의 불문율을 깼다.
그동안 반상, 혹은 반외에서 일어난 촌철살인의 이야기들을 반상반외(盤上盤外)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에서 최초 공개한다.

붉은 악마 합성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02년. 나는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평생에 다시 맛보기 힘들 열정을 불사르던 스물셋 꽃다운 청춘이었다. 같은 해 나는 걸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해 판 세상만 같았던 바둑계와 연을 맺게 되었다. 바둑돌을 바둑판 위의 선 위에 놓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선 사이의 면에 놓아야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던 바둑 문외한. 그러나 “저 우선 바둑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정신없던 지난날들이, 결국 나를 바둑인으로 만들었을까? 바둑팬들께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한 편을 소개하게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입사 3년차인 2004년. 조연출 중에서도 어느덧 중고참으로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던 무렵이다. 당시 맡고 있던 두 개의 프로그램은 [오스람 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과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공교롭게도 비교체험극과극(?)처럼 25세 이하 신예들만 출전하는 기전과 바둑에서는 신의 경지에 달했다는 9단 입신들만 출전하는 기전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동생뻘의 프로 기사들과 친해져서 진행이 수월했던 오스람코리아배와 달리, 맥심커피배는 입신이라는 단어의 무게감과 나이 지긋하신 9단 프로기사님들 덕분에 은근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사건의 발원지는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이었다.

당시 맥심커피배의 연출자는 바둑TV의 만인인인 H도 선배. 지금은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겨 기전 유치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살인미소를 남발하고 계시지만, 당시는 시청률에 목숨 거는 바둑TV 맹렬 여성 PD였다. 맥심커피배 시작 전 H선배의 시청률 끌어올리기 승부수는 바로 바둑방송 고정 프로그램 사상 유례가 없었던 ‘조훈현

국수님 해설 출연!!’이었다.

워낙 바쁘셔서 출연조차 못하시는 기전에 해설이라니.... 일견 허황된 목표 같았지만 H선배와 나는 머리를 맞대고 조국수님을 포섭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고, 결국 우리의 무기는 단 한 가지라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바로 미인계!!

“조국수님, 바둑TV 프로그램 중 연출과 조연출이 모두 미모의 여성인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어요. —..—”

물론 이 논리는 조국수님 설득에 실패했고, “입신들의 수준 높은 대국을

“이창호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김인 국수님이라면
“감히 우리 조국수의 코에 피를 묻혀!!”라며 노발대발하셨을 테고...
온갖 불길한 상상에 식은땀이 절로 날 상황이었다.

해설하실 분은 조국수님 밖에 없으세요....”라는 설득 논리를 펼친 끝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던 조국수님에게서 OK 사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조국수님의 결심이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했던 것은 당시 조국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줄.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대략 주중 3회 정도의 대국과 주말의 바둑행사, 거기에 적지 않게 잡혀있는 해외 일정까지. 정말 하루에도 분초를 아껴가며 본인의 주특기인 속력행마를 펼치던 때였다. 여기에 방송해설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다음 소개하는 사건의 배경이 이러했다.

2시 녹화를 30여 분 앞두고 모든 스태프들 스탠바이 상태. 조국수님이 예의 바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스튜디오로 들어오신다.

“조금 늦었나? 미안.... 빨리 온다고 왔는데....”

“아니에요. 분장하시면 바로 오프닝 준비하겠습니다.”

무사히 오프닝 영상물 사전 제작을

마치니 대국자들은 바둑판을 마주한 채 착석, 진행 해설자는 해설실에 착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수많은 모니터를 쳐다보며 상황을 살피던 조정실 H선배의 “스탠바이... 큐!!” 사인과 함께 방송 스태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계시원의 멘트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와 함께 바둑판 위에 돌이 놓이기 시작했다.

한편 영상물 플레이를 마친 나의 다음 임무는 해설실로 이동해 연출자와 출연자간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되는 것. 시청자들은 눈치 챌 수 없는 카메라의 앵글 밖에 쥐 죽은 듯 앉았다가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연출자의 사인을 보드에 적어 출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치열한 대국은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스태프들은 클로징 준비를 위해 다시 한 번 긴장의 고삐를 다잡던 그때... 사건이 터졌다. 조국수님의 외마디 비명.

“어? 어?”

‘흠... 형세가 또 요동치나? 조국수님 추임새가 심상치 않군...’ 그러나 괴이하게도 조국수님의 입에서는 별다른 해설 없이 다시금 비명이 흘러나왔다.

“어!! 어!!”

갑자기 진행자 이정원 사범이 내 옆 구리를 쿡쿡 찌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턱밑에 달린 마이크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저 조국수님 쪽을 쳐다보며 다급한 눈짓.

고개를 돌린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견 사건이 해결되었나 싶었지만 조정실에서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H선배의 목소리.

“해설실에 무슨 일 있니?”

알고 보니 커피를 막아주는 고마운 휴지들이 조국수님 목소리를 현영의 코맹맹이 목소리로 바꿔버린 것. ‘예고, 지금 정신없는데...’ 나는 황급하게 보드판 위에 단 두 글자만을 썼다.

‘코피!!’

다시 H선배.

“헉! 누가?”

다시 급한 마음에 남긴 한 글자.

‘조!!’

이렇게 양 여인네가 사건 해결을 위해 좌충우돌하는 중에 대국은 종국을 향해 치달았고, 붓물 터지듯 흘렀던 코피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해설판 앞에 위치한 두 사범님. 카메라는 대국실에서 해설실로 넘어왔고, 조국수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국 총평을 마쳤다. 그의 코 밑 거뭇거뭇한 자국과 짙은 색 셔츠에 남은 희미한 커피의 흔적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 새 창백하고 수척해진 듯한 조국수님의 얼굴 등. 카메라 밖의 엄청난 사건을 시청자들은 알 수 없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천하의 바둑황제가 해설판을 뒤로 하고 시청자들 앞에서 존안(尊顔)에 커피를 흘렸다면? 바둑팬들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조국수님을 혹사시킨 바둑TV를 성토했을 테고, H선배와 나는 경위서와 시말서 등 온갖 종류의 반성문 체험에 나섰으리라. 심지어 “이창호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김인 국수님이라면 “감히 우리 조국수의 코에 피를 묻혀!!”라며 노발대발하셨을 테고... 온갖 불길한 상상에 식은땀이 절로 날 상황이었다.

우리의 고초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설실을 빠져 나온 조국수님은 안부를 묻는 H선배에게 특유의 엄살을 부리신다. “아... 바둑TV가 날 너무 부러먹네. 힘들어 죽겠어.”

이것이 바로 입신들의 제전 맥심커피배가 선혈이 낭자한 ‘맥심코피배’가 될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다.

“조국수님, 아무쪼록 허락 없이 에피소드 썼다고 노여워 마시고 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조국수님



〈기사제공 : 월간바둑〉

취재방담 · 취중진담

361로 바둑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기자들의 취재 뒷담화. 뉴스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차 한잔의 방담(放談)과 때로 술 한잔의 취중진담(醉中眞談)으로 풀어놓는 흑백 중문기자들의 육성기사(肉聲記事).

〈이달의 참석 기자〉
□ 구기호, 이주배(월간바둑) 정용진, 김경동, 김상우, 이도윤(사이버오로 콘텐츠팀)
최진웅(한국바둑리그 전문기자) 정연주(타이점 기자)
□ 2008년 7월 10일, 사이버오로 회의실 □ 정리 / 정용진

0...무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마른장마라죠? 어찌 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일기예보가 맞지 않네요. 요즘 사이버오로 베테마니 아들 사이에선 이창호 九단 때문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창호 九단의 경기가 우리나라의 일기예보처럼 번번이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이라나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래도 이전 이창호의 위용을 믿고 ‘묻지마 베테’했다가 올인당했다는 하소연이죠. 하하. 아무래도 후지쯔배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후지쯔배 11연패 부도난 이창호, 무슨 일이?

0...지난달 우리가 이창호 九단의 ‘조명 징크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부쩍 조명 온도가 강한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대국에서 유독 패점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현상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심화되고 있는데 7월 3일 후지쯔배를 치르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2주일여의 성적이

(上氣病)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어떤가요? 요즘도 얼굴이 벌건가요?

0...지난해 한때는 정말 심해 카메라를 들이대기가 미안할 정도였죠. 그러나 올해는 그런 혈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최근 보니 그래도 가끔은 나타나다군요.

0...인터넷 지식검색으로 찾아보니 상기증(上氣症), 상기병이라는 것이 스님 같은 분들이 참선 중에 몸의 어떤 기운이 위로 올라와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멎해지고 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문제는 뽕족한 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스님들은 수행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승문(僧門)에서 전승되어온 체조 같은 비방으로 극복한다고 합니다만 대국이 줄줄이 잡혀 있는 이창호 九단 같은 톱플레이어가 돌연 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들리는 얘기로는 요가로 다잡고 있다 하던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0...그렇다고는 해도 프로는 성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창호 九단이 도쿄로 건너가기 전 국내기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는 해도 후지쯔배는 ‘조명’을 쬌지 않는 대국이라 뭔가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가요. 한국의 후지쯔배 11연속 우승이란 대기록도 걸려 있었고 상대인 구 리 九단이 직전 제주도에서 벌어진 한중통합천원전에서 원성진 九단에게 0-2로 완패를 당한 터라 우승을 예상한 팬들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0...2005년 춘란배 우승 이후 급작스레 ‘우승 제조기’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3년 내내 준우승에 그쳐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창호 九단이었기에 저 또한 이번 후지쯔배 우승을 간절히 기원했지요. 아무리 우승을 밥먹듯(개인 통산 세계대회 23회)했던 사람이라도 이번이 준우승에 머물다보면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고 급전직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승부세계거든요. 2006년 삼성화재배와 2007년 후지쯔배에 이어 세 번째 이어지는 준우승이네요. 더구나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도 완패였다는 게 더욱 걸리네요. 구 리 九단이 잘 두어서 이겼다가보다는 이창호 九단이 워낙 못 둔 바둑 아니었나요?

‘안방용’ 오명 벗은 구리

0...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류 싱 七단과의 준결승전도 힘겹게 역전승한 판이었습니.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즐기겠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결승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 리 九단과 활달한 모습으로 복기를

주고받아 다소 의외였습니다. 겸연쩍은 웃음을 곁들이긴 했습니다만...

0...이창호 九단 정도의 산전수전 다 겪은 대가쯤 되면 복기할 때 의연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라 봅니다. 정작 문제는, 바둑 내용적으로 예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퇴색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특징인 끝내기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점이겠죠. 계산과 끝내는 그간 이창호의 독보적인 분야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씩니다. 오히려 신예들의 끝내기가 더 강해 보일 정도이니



한국의 후지쯔배 11연패를 저지한 구리 九단.

가요. 실력 차가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다른 기사들의 기력이 강해졌다는 거겠지요. 여전히 이창호 九단은 최정상급 기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0...그래서일까요? 원래 이창호 스타일은 두텁고 단단한 바둑이었죠. 그러면서도 실리의 균형을 맞춰나갑니다. 초중반 금강석 같이 견고하게 구축한 두터움은 자연 후반에 힘을 발휘하게

2003년부터 중국랭킹 1위 자리를 고수해 왔으면서도 단 두 번, 그것도 자국 기사를 상대로 거둔 세계제패다 보니 국내용, 안방통소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이창호 九단을 이기고 세 번째 우승을 거뒀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되지요. 게다가 슈퍼컴 같은 끝내기 솜씨까지 뒤를 받쳐주니 미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먹혀서인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후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인지 초반에 느긋하게 가지 못하고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실리를 챙기는 만큼 바둑은 넓어지지요. 또 초반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고 속기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후지쯔배 결승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지요. 좌하면 상황이 걸린 장면에서 장고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격제격 두어 깜짝 놀랐습니다. 대국상대인 구 리 九단조차 “초반 포석에서 이창호 九단의 속기에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했을 정도였지요.

0...반대로 구 리 九단으로서 이번 우승이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2006년 LG배와 2007년 춘란배를 석권한

바 있지만 공교롭게도 천 야오에 五단과 창 하오 九단과 대결해 우승한 것이라 강인한 인상을 심지 못했죠. 2003년부터 중국랭킹 1위 자리를 고수해 왔으면서도 단 두 번, 그것도 자국 기사를 상대로 거둔 세계제패다 보니 국내용, 안방통소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이창호 九단을 이기고 세 번째 우승을 거뒀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앞서 8강전에서는 세계최강으로 꼽히는 이세돌 九단을 꺾어 한국바둑의 양대산맥을 넘으며 한국의 11연패(霸)를 저지했으니까요.

0...그나저나 이번에 구 리 九단의 인터뷰 통역 와전으로 잠시 소란(?)이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일본 취재를 다녀온 김상우 기자께서 해명하시죠? ^^

0...준결승전이 끝나고 일본기원에 마련된 공개해설장에 오른 구 리 九단이 “한국이 후지쯔배 10연패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는 물음에 “내가 그동안 결승에 오르지 못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답하더군요. 이걸 제가 사이버오로 뉴스로 타전했고 이 기사를 다시 중국에서 인용 보도하면서 양국 팬들의 “견방지다”는 비난이 일었죠. 그런데 일본말로 통역하다 보니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중국말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로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기원 관계자로부터 구 리의 발언(일본말로 통역한 것)을 다시 한국말로 전해 듣고 기사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0...그렇지 않아도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기자가 제게 메신저로 구 리의 말이 와전되었다고 알려주더군요. 구 리 九단의 본 발언은 대략, 지금까지 8강에 오른 게 고작이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준결승에서 자국의 창 하오 九단을 누르고 오른 결승전이니만큼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 각오를 말한 것인데 엉뚱



구리 九단을 2-0으로 꺾고 한중 통합천원에 오른 원성진 九단.



21회 후지쯔배 결승, 이창호 대 구리전.

1승 3패로 극히 부진해 우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입단 만1년차에 불과한 이원도 初단(티브로드)에게 당한 한국리그에서의 패배는 초반에 대마가 횡사해 충격을 주었고요, 강동운 八단에게진 명인전 본선리그, 홍성지 六단과 벌인 한국물가정보배도 모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치른 대국입니다. 특히 홍성지 六단에게는 지난해부터 4연패(역대전적 1승 4패)를 당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0...이창호 九단이 상반기에는 예전의 페이스를 되찾으면서 성적이 좋았죠. 올해 열린 세계대회에서 이九단만큼 모든 대회에 걸쳐 안정적이고 고른 활약을 보인 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국이 쌓이면서 피로해 하는 기색이 완연합니다. 한두 해 전부터 떠돌기 시작한 ‘건강 이상설’이 이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아직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짐작수준이긴 합니다만 한의학 전문가들이 진단한 상기병



으흐흐~. 난 구 리 영아가 참 좋아! 2-0으로 화끈하게 저주었으니까. 세세!



하게 전달되어 오해를 샀다고 하더군요.

여기자들이 졸지에 '구리녀' 된 사연

0...구 리 九단 얘기가 이어지는 김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12회 한중천원전 얘기 좀 해볼까요? 원성진 九단의 승리도 사실 좀 예상을 벗어난 결과인데 2-0 스코어까지 났으니... 이 바람에 팬들의 반응이 대단했죠?

0...12회 대회 동안 구 리 九단은 통산 4회나 우승했는데 이는 이창호 九단과 나란히 하는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2-0의 스코어더군요. 지금까지 구 리 九단이 번기(番棋)에 나서 영봉패를 당한 것이 처음이라네요. 더군다나 후지쯔배를 코앞에 두고서 이창호보다 한 급 아래로 보았던 원성진 九단에게 일격을 맞았으니 '세계최강의 아마추어'라는 비아냥을 또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0...세계최강의 아마추어란 건 또 뭐니까?

0...기복이 심한 구 리 九단을 빗댄 말이지요. 기분에 이끌려 일직선으로 "고"를 외치는 아마추어처럼 그런 바둑을 곧잘 둔다해서 붙여진 오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에게야 시원하고 화끈한 바둑으로 환영받겠지만 프로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지요.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그간 구 리 九단이 실력에 비해 세계대회 성적이 저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0...구 리 九단도 0-2로 당한 패배에 적잖이 충격을 먹었던가 봅니다. 직후 후지쯔배를 제패하고서야 그 속내를 털어놓았잖습니까. 그런데도 구 리 九단의 처신을 보면 대인의 품모가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라도 두문불출할 텐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지막 뒷풀이까지 화끈하게 함께 했다면 서요?

0...요즘 바둑계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조어가 '구리녀(女)'라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기 앉아 계시는 두 여기자(타이젠 정연주 기자, 사이버오로 이도운 기자)가 잘 아실 텐데요... 제주도 취재를 다녀오셨으니까. ㅎㅎ 역시 함께 취재했던 스포츠조선의 나



성물 기자의 개인블로그를 비롯해 바둑계 인사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몇 장의 사진을 일단 보시죠. 컬러사진으로 소개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뭐 이 흑백사진으로만 봐도 그야말로 광란의 밤이었음을 느끼겠네요.

0...에고~, 저는 곁에서 탬버린만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0...그날 현장사진을 죄다 찍은 사진기자로써..., 증인? 똑바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만천하에 모든 사진을 공개하는 수가 있습니다. (버럭버전)

0...구 리 九단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 다음 2차 단란주점까지 합석해 기차놀이에 스카이라이프 이지영 피디를 비롯해 여기자들과 블루스도 추고 애창곡도 부르고... 반상에서는 적이었지만 반외에서는 원성진, 구 리 두 사람은 더없는 친구이자 형제였답니다. 둘 다 술에 취해서 내내 다정히 손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우습던지...

2차 술대결에서도 판정승 거둔 원성진

0...구 리 九단은 중국 프로기사 중 3대 주당으로 꼽힐 만큼 '한술(?)' 합니다. 과거 한중신예대항전에 출전했을 때 우승컵과 준우승컵에 술을 마시자고

일찍이 신에 강호들은 원성진 九단을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로 평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세돌-이창호에 이은 넘버3로 원성진을 꼽는 기사도 적지 않거든요.

제안하기도 했지요. 한국기사들은 우승컵보다 작은 사이즈인 준우승컵에 따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마셨는데 중국기사들은 끄떡 없이 마시더군요.

0...중국기사들의 주량이 대체로 센 것은 인정하지만 그날 바둑에 이어 2차 술대결에서도 원성진 九단은 악착같이 승리를 거두더군요. 구 리 九단이 띄어되어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원성진 九단은 끝까지 버텼으니까요.

0...이날 식사 자리에서부터 원성진 九단은 구 리 九단과 끊임없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원九단 왈, "아, 이거 술 취하니까 혀가 잘 풀려서 중국어 잘 되네~" 이러더군요. 하하. 원九단이 외대 중국어학과에 재학중인 건 다들 아시죠? 본인은 자기의 중국어 실력이 장롱면허보다 형편없다며 부끄러워 하지만...

0...그런데 이번 한중천원전이 열리는 기간이 유로2008과 겹쳤는데요, 축구마니아인 구 리 九단이 이 축구경기를 보느라 밤잠을 설쳤고 이것이 패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0...관광할 때도 버스에서 잠을 자고 눈이 약간 충혈된 것

을 보면 축구경기를 보긴 본 것 같더군요. 하하.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에 입각한 입방아이고요, 원성진 九단이 그 어느 때보다 구 리 九단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했던 거 같습니다. 국후 2연승의 비결을 묻자 "아무래도 구 리 九단의 기보를 많이 연구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제주도 올 때도 그의 최신기보 10개를 가지고 왔다."고 자신 있게 밝히더군요.

0...팬들은 원성진 九단의 우승을 의외로 보았는지 모르나 바둑계에선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일찍이 신에 강호들은 원성진 九단을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로 평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세돌-이창호에 이은 넘버3로 원성진을 꼽는 기사도 적지 않거든요. 어쨌든 원성진 같은 기사들이 진가를 발휘해 일류대열에 당당히 낄다는 건 그만큼 한국바둑의 허리힘이 강해진다는 얘기이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요.

0...이건 한중천원전과 직접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제주도에서 하도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0...뭔 얘기인데 그리 주저하세요? 구 리 九단과 춤 한번 쳤다 도매금으로 '구리녀'로 전락한 바둑 여기자들도 여기 있는데..., 뭘 더 감출 게 있다고. ㅋㅋ

0...이번에 중국선수단 일행으로 온 뤄 쥘원(羅建文) 七단이 소문난 낚시광이라 현지에서 낚싯대를 구입해 한국기원 관계자와 같이 낚시를 하자고 제안했

죠. 문제는 한국기원 관계자들이 하나 같이 낚시가 처음인 초보자. 외국 손님에게 너무 망신을 당해도 안 되겠다 싶어 사전에 여행연습차 숙소 근처 방과제로 나가게 되었는데, 생전 처음 던져보는 낚시질이 어설피다 못해 그만 한 명이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된 모습이 하도 재미있어 나중에 놀려먹을 생각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두었지요. 하여간 인근 편의점에서 양말과 팬티를 급히 사 입고 부랴부랴 귀환한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0...뭐야? 그게 다예요?
0...흐흐, 거기서 끝났으면 에피소드라 할 것도 없겠지요. 문제는 서울에 돌아와서..., 물에 빠진 모습을 찍을 땐 불같이 화를 내던 친구가 갑자기 급히 이메일로 사진을 한 장 보내라고 성화지 뵈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친구의 부인이 출장 다녀온 남편의 내의가 바뀐 걸 보고 크게 의심하는 바람에 제법 시달렸나 봅니다. 그때 제가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게 평상시 아내에게 잘 해야죠. 험험.
0...그거 사돈 남발 아닌가요. 하하.

바둑리그 전반기의 루키, 류동완

0...바둑리그는 전기리그가 끝났지요? 이세돌 九단을 정점으로 한 총북제일화재가 6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 월드메르디앙이 5승 2패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우승팀 대구 영남일보가 3승 4패로 4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조훈현-이창호 사제콤비로 무장한 광주 Kixx가 2승 5패로 7위로 주저앉은

것이 의외로군요. 서봉수 감독이 이끄는 이북5도의 티브로드가 3승 4패로 5위로 부상한 것은 눈에 띄니다.

0...티브로드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팀으로 소문났습니다. 티브로드 구단에서도 선수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 팀은 경기에 지든 이기든 국후 2시간 검토가 기본입니다. 서봉수 감독 자신이 못 말리는 공부벌레 아닙니까? 아무래도 감독의 색깔을 따라가게 되나 봅니다. 김승준·최명훈 九단의 망형노릇도 특특히 한몫 하고 있고요. 단체전이라는 게 개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워크 발휘 정도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요. 설령 후기리그에 돌풍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위경쟁의 키를 쥐고 있는 팀이라 봅니다.

0...전반기 최대 루키라면 7전 전승을 거둔 제일화재의 류동완 初단이겠죠? 에이스 이세돌 九단 한 명만 가지고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이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까지 기막힌 '조커' 역할을 해주니 선두를 질주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0...류동완 初단을 뽑은 이흥열 감독에게 주위에서 처음엔 "왜 이 친구를 뽑았나?"며 의문을 표시했다더군요. 그런데 이흥열 감독의 선발 이유가 재미있어요. 류동완 初단은 골든벨바둑도장 출신입니다. 생각 안 나세요? 전에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에 강압적인 교육방식으로 두들겨 맞았던 그 바둑교실...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거대 방송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사연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그때 오리걸음



류동완 初단.



티브로드팀의 정열적인 검토 모습.

체벌을 하던 원생들의 구호가 "동완이 형을 이기자!"였고 그 고발프로를 지켜봤던 이흥열 감독이 이후 류初단을 특별히 눈여겨보다가 선발한 모양입니다.

0...이달에도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없겠군요. 류동완 初단에 대해서는 다음호부터 재개하는 [新기사론]에서 상세히 다뤄 보기로 하죠. 지난호부터 선보인 [취재방담·취종진담]이 시작하자마자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로 평가받았다고 하네요.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또 한달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